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가부장의 내면에 대한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LIU KE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가부장의 내면에 대한 연구

指導敎授 鄭 炳 說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3年 4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文學專攻
劉 珂

劉珂의 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3年 5月

委 員 長 이 종 묵 (印)

副委員長 최 어 진 (印)

委 員 정 병 설 (印)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가부장의 내면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작품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현씨양웅쌍린기』는 현수문과 현경문이라는 가부장의 부부 갈등을 다룬 소설로, '아내에 대한 제압'이라는 문제와 관련된 내면 심리를 전면에 부각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 작품에서 인물의 내면은 부부서사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며 주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부장의 내면에 주목하여『현씨양웅쌍린기』를 분석하는 작업은 작품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글장편소설에 등장하는 가부장 인물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준다는 의의를 지닌다.

제Ⅱ장에서는 가부장의 개념을 정의하고『현씨양웅쌍린기』속 가부장 인물의 등장 양상을 분석하였다. 가부장을 조선시대 유교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개념을 '가족 안에서 아내 또는 자식을 통솔하며, 유교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권력과 책임을 갖는 남성'으로 규정하였다.『현씨양웅쌍린기』에서 이 규정에 부합하는 인물은 모두 네 명으로, 이들을 1세대 가부장인 현택지·주명기와 2세대 가부장인 현수문·현경문으로 분류하였다. 1세대 가부장의 서사는 주로 2세대 가부장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권(父權)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1세대 가부장의 말과 행동 등 외면적 묘사를 통해 전개된다. 2세대 가부장의 서사는 2세대 가부장들과 각각의 부인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세대 가부장의 경우, 부권(夫權)을 행사하는 과정에 관한 서술에서 가부장의 내면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Ⅱ장의 분석을 토대로 삼아, 제Ⅲ장에서는 현수문과 현경문을 대상으로 그들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우선 현수문의 내면을 고찰하였다. 현수문이 윤소저에게 복수하는 과정에 관한 서술에서는 현수문의 분노가 중점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 분노는 주로 폭력적 행동으로 표현된다. 지배욕과 나르시시즘이 강한 현수문은 가부장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윤소저에게 속아 자신감과 자존심을 위협받게 되고, 그 결과 심한 분노

를 느낀다. 윤소저에 대한 복수심에서 기인한 폭력적 행위는 가부장으로서 아내를 통제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현경문의 내면을 분석하였다. 현경문은 처음에 주소저와 함께 있을 때 그녀를 강압적으로 제어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한다. 또 주소저와 떨어져 있을 때는 그녀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한다. 마지막으로 주소저가 돌아왔을 때는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제어해야 한다는 이중의 번민을 겪는다. 현경문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주소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어할지 고민한다. 이는 현경문이 가부장으로서 주소저를 통제할 자신감이 없음을 보여준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가부장의 내면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먼저 당대 향유층의 측면에서 작품 속 가부장의 내면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애정'을 바탕으로 가부장의 내면을 그려내는 다른 한글장편소설에 비하여, 이 소설에서는 아내를 강압적으로 제어하려는 심리 및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내면과 그 변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내면묘사는 현실 속의 부부 불화에서 가부장이 경험할 만한, 복잡하고 다변하는 심리를 잘 반영한다. 작가가 이와 같은 내면을 자세하게 그려낸 것은 현실감을 부각하고, 여성 독자뿐 아니라 남성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부장의 내면이 갖는 의미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세대 가부장들은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규범적인 가부장상(家父長像)에 집착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그러한 가부장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면 분노, 불안, 고민, 또는 자신감 결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는 중국의 고전소설은 물론 한국의 현대소설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규범적 가부장상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은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의 보편적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현씨양웅쌍린기』, 한글장편소설, 가부장, 내면, 불안, 내적 갈등, 자신감 결여, 현실감, 향유층, 사회적 압박

학 번: 2020-26674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2
3. 자료개관 ····· 8

Ⅱ. 가부장의 개념과 양상 ····· 18
1. 가부장의 개념 ····· 18
2. 가부장의 양상 ····· 28

Ⅲ. 내면의 양상과 분석 ····· 44
1. 분노에 잠재한 불안 ····· 45
2. 내적 갈등과 자신감 결여 ····· 60

Ⅳ. 내면의 의미 ····· 87
1. 현실감의 부각을 통한 향유층의 확대 ····· 87
2.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서 ····· 97

Ⅴ. 결론 ····· 105

참고문헌 ····· 108
中文摘要 ····· 118

Ⅰ. 서론

1. 연구목적

본고는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 『현씨양웅쌍린기(玄氏兩熊雙麟記)』에서 가부장(家父長)의 내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의 인물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고자 한다.

조선후기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가부장은 대략 '가족 안에서 아내 또는 자식을 통솔하며, 유교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권력과 책임을 갖는 남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1] 『현씨양웅쌍린기』를 비롯한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에도 가부장에 해당하는 인물이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한다. 특히 『현씨양웅쌍린기』에서 가부장은 부부 갈등의 주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여성 인물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글장편소설에서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는 대체로 여성의 내면에 중점을 두거나, 혹은 남녀의 내면을 골고루 그려내며, 이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을 부각시킨다.[2] 이때 가부장에 해당하는 인물의 내면은 처첩에 대한 걱정, 그리움 등 '애정'을 그리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3] 그런데 『현씨양웅쌍린기』에서는 특이하게도 가부장 인물의 내면이 처첩에 대한 '제압'과 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작품에서

---

1) 제Ⅱ장 제1절에서 가부장의 개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 기획특집 2: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묘사담론 연구」, 『서강인문논총』 2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김은일,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전기화,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3)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구선정, 「가부장제하 남성의 죄벌(罪罰)과 고통의 이면-<쌍천기봉>의 "이몽창"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가부장 인물의 분노와 번민 등 그 내면과 변화 과정이 처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서술되는 것이다. 더불어 이 가부장의 내면이 부부서사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며 주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부장의 내면에 대한 탐구는『현씨양웅쌍린기』의 주제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여성 인물에게 주목했을 뿐, 가부장 인물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에 착목해『현씨양웅쌍린기』에서 여성 독자의 현실과 내면을 읽어내려 시도했다.[4] 하지만 작품의 중심 서사가 부부 갈등이며, 가부장 인물의 내면묘사가 두드러지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내인 여성 인물뿐 아니라 남편, 즉 당대의 관점에서 가부장이라 할 수 있는 남성 인물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가부장의 내면'을 통해『현씨양웅쌍린기』를 독해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현씨양웅쌍린기』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 연구 초기인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본 및 연작을 다룬 연구, 서사구조의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한 연구, 마지막으로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등장인물을 분석한 연구가 그것이다.

우선, 이본 및 연작을 다룬 연구는 정병욱이 낙선재문고의 해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5] 정병욱의 해제 이후, 김진세는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현씨양웅쌍린기』가 중국 소설의 번안이나 번역이 아닌 한국 소설이라는 점을 밝혀냈다.[6] 이후의 연구에서는 여러 이본 분석을 통해 낙선재본이

4)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민찬,「玄氏兩熊雙麟記」, 김진세 저,『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최기숙,「<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 '현경문-주소저' 부부 관련 서사분석 중심으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등이 있다.

5) 정병욱,「樂善齋文庫 目錄 및 解題」,『국어국문학』44-45, 국어국문학회, 1969.

선본임을 밝혔고, 연작 관련 작품의 연계성과 개별성에 주목하여 작품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7]

둘째, 서사구조의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 속 서사적 갈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다.[8] 초기에는 작품 속 부부 갈등, 부자 갈등 등에 주목해 가문의식을 읽어내려 했다면, 이후 부부 갈등에 주목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김지연은 처음으로 이 작품이 부부 갈등만으로 단일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논의했다.[9] 이후 최기숙은 이 작품의 주요 서사가 현경문과 주소저의 '부부관계' 또는 '결혼 생활'이라고 주장했다.[10]

셋째,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등장인물을 고찰한 연구이다. 박명희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러 고전소설 작품들을 분석하면서『현씨양웅쌍린기』를 함께 살폈다.[11] 여주인공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의 형상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여성의 시각이 부분적으로 수용된 작품이라 보았다. 이후 이러한 시각을 계승한 논의가 활발히 제출되었다.[12] 대표적으로 이지하는 작품 속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혼

---

6) 김진세,「玄氏兩熊雙麟記 硏究」,『논문집』4,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972.

7) 김진세,「玄氏兩熊雙麟記의 書誌的 硏究-樂善齋本과 德興書林本의 경우」,『관악어문연구』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1; 최길용,「連作型 古小說 硏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이지하,「현씨양웅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다원,「『현씨양웅쌍린기』 연구-연대본『玄氏兩雄雙麟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영택,「<玄氏兩雄雙麟記> 連作 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8) 송성욱,「家門意識을 통해 본 한국고전소설의 구조와 창작의식:「家門小說」과「軍談小說」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송성욱,「婚事障碍型 大河小說의 叙事文法 硏究: 單位談의 展開樣相과 結合方式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김지연,「『현씨양웅쌍린기』의 단일 갈등 구조와 인물 형상의 관계」,『민족문학사연구』28, 민족문학사학회, 2005; 최지우,「<현씨양웅쌍린기>와 <하진양문록>의 비교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최기숙, 앞의 논문.

9) 김지연, 위의 논문.

10) 최기숙, 앞의 논문.

11) 박명희,「고소설의 女性中心的 視角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2) 민찬, 앞의 논문; 유인선,「『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개성적인 여인상: 주소저의 인물분석을 바탕으로」,『관악어문연구』3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8; 주형예,「19세기 한글통속소설의 서사문법과 독서경험-여성이야기를 중심으로-」,『고소설연구』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이지하,『가족 서사의 욕망과 상상력: 여성 주체적 시각으로 읽는 고전 장편소설』, 소명출판, 2023, 168-199면; 박은정,「<현씨양웅쌍린기> 연작의 '육취옥' 연구」,『고전문학연구』51, 한국고전문학회,

인관계를 거부하는' 여주인공들의 고민과 항거가 가부장제의 모순에 대한 여성적 비판의식과 자의식을 드러낸다고 보았다.[13] 요컨대 선행연구에서는 대개 공통적으로 여성 인물에 치중할 뿐, 작품에서 부각되어 있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가부장 인물의 내면묘사에는 주목하지 않은 것이다.[14]

한편 가부장 인물에 대한 연구는 가정소설이 고전소설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주로 가부장 인물이 서사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가부장 인물의 외적 형상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최근에야 가부장 인물의 내면을 다루기 시작했다. 가부장의 기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문의 유지와 번영에 있어 가부장이 지니는 절대적 권력과 그 권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15] 이후 작품 속 가부장을 다양하게 유형화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는 '여가장(女家長)'의 존재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16] 가부장 인물의 외적 형상에 대해서는 무능한 가부장

2017; 공혜란, 「<현씨양웅쌍린기(玄氏兩雄雙麟記)>에 나타난 상층 여성 겁탈과 대응 문제」,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곽성민, 「<현씨양웅쌍린기>의 갈래복합 구조와 소설사적 의의」, 『동남어문논집』 47, 동남어문학회, 2019; 강우규, 「등문고를 울린 어리석은 여성들-<임씨삼대록>의 목지란과 <현씨양웅쌍린기>의 육취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황지현, 「자기 파괴성을 통해 본 국문장편소설의 세계관」,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3) 이지하, 위의 책, 168-199면.

14) 물론 남성 인물을 분석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동흔은 남성 인물을 포함한 여러 등장인물을 '부부 갈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부 갈등의 사회적 의미를 논했다(신동흔, 「玄氏兩熊雙麟記에 그려진 귀족사회의 실상」,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한길연은 대하장편소설의 보조인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씨양웅쌍린기』 연작에 등장하는 남성 보조인물인 '장시중 형제'를 '익살스러운 양반군'이라고 지칭하며 이들 인물군의 사회적 존재 의의를 고찰했다(한길연, 「大河小說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웅쌍린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측면에서 작품의 의미를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남성 인물, 특히 남성 중심인물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15)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의 양상과 그 세계관: <뉴효공 선행록> <뉴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16) 양민정, 「<蘇賢聖錄>에 나타난 女家長의 역할과 社會的 意味」,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2; 정영신, 「문화: 여성(女性) 가장(家長)의 역할(役割)과 기능(機能) -<윤하정삼문취록(尹河鄭三門聚錄)>을 중심으로-」, 『東方學』 1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박영희, 「<蘇賢聖錄> 連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長權)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이나 권위가 약화된 가부장을 포착하여 일정하게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고, 가부장권이 상실되었다가 회복하는 것은 가부장권을 회복하려는 작가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17] 이들 연구는 종전에 주목받지 못하던 가부장 인물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한글장편소설의 가부장 인물에 관한 논의를 확대시켰다는 의의가 있다.[18]

가부장의 내면에 대한 연구로는 일찍이 이원수가 『창선감의록』의 화춘이 가부장으로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폭력성을 유발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19] 그의 논의는 작품에 나타난 가부장의 형상을 내면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닌다. 한편 이상적인 가부장 인물의 내면에 관심을 둔 논의도 있다. 조혜란은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이 유교적 가치 체계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가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슬픈 내면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20] 이지하는 한글장편소설의 가부장이 이념·도덕적 층위에서 가부장적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 층위에서도 자애(慈愛)와 배려심 등 인간적 자질을 드러냄으로써 모범적인 가부장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밝혔다.[21] 이들

2015; 김수연, 「18세기 고소설의 속물형 아버지와 효 윤리의 재설계－<완월회맹연>의 장헌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폭력적 가부장에 대한 비판적 시선의 형상화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1.

17) 김일렬,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박영희, 「<楊豊傳>에 나타난 父子對立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이성권, 『한국 가정소설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장경남, 「<문성기> 연구」, 『고소설 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18) 이외에도 영웅소설, 세태소설 등 다양한 소설 유형에 등장하는 가부장의 서사적 기능을 논의한 연구가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경남, 「朝鮮後期 小說을 통해 본 父權의 形象-「어룡전」, 「양풍운전」을 中心으로-」, 『어문연구』 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엄태웅, 「<방한림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이지하, 앞의 책, 44-70면.

19) 이원수, 「<창선감의록>, 장자상속제와 사대부가의 고민」, 『어문학』 100, 한국어문학회, 2008.

20)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21) 이지하, 앞의 책, 11-41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가부장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가부장이 드러내는 복잡한 내면을 단조롭게 포착했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가부장 인물의 내면에 주목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22] 정선희는 『소씨삼대록』에 나타난 소운성의 내면에 주목하면서, 소운성을 '영웅호걸형 가장'이라고 명명하고, 그 형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소운성의 구겨진 자존심, 간절한 애정, 슬픈 감정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였다.[23] 이후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가부장 인물의 내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24] 대표적으로 한길연은 『완월회맹연』의 폭력적 가부장인 정인광에 주목했고, 그의 내면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규명하였다.[25] 한편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가부장 인물의 내면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황병홍은 『사씨남정기』에 등장하는 가부장 유연수의 성격 변화에 주목했다.[26] 그 결과 유연수는 서사 진행에 따라 한층 합리적이고 성숙한 가장으로 변모해간다고 주장했다. 조

---

22) 남성 인물의 내면에 주목한 이른 시기의 논의로는 조혜란의 연구가 있다(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임씨삼대록>의 임관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이 연구에서는 『임씨삼대록』에서 남성 인물 임관흥의 감정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에 주목하여 임관흥의 고민과 가문에 대한 부채감(負債感)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조혜란의 논의는 임관흥을 '가부장'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사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23) 정선희, 「특집: 고전소설의 주인공;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始原)-<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24) 한편,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남성 인물의 내면을 분석했으나 가부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은 연구도 있다. 구선정은 『쌍천기봉』의 등장인물인 이몽창에게 주목하여, 자유로운 애정 추구에 대한 의지와 당대 이념의 충돌 속에서 고민하는 그의 심리를 분석하였다. 이 논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고뇌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나, 그 의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쉬운 지점이다(구선정, 앞의 논문). 또한 공혜란은 『소현성록』 연작에 나타난 소운명의 '의처증'에 주목하여 그 원인과 의의를 논의한 바 있다. 이 논의는 정신의학 이론을 활용하여 소운명의 내면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본고의 연구 대상 가운데 분노를 통해 불안감을 표출하는 현수문을 분석하는 데 참고가 된다(공혜란, 「삼대록계 소설에 나타난 남성 인물의 의처증 연구-<소현성록(蘇賢聖錄)> 연작의 '소운명'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3,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25)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26) 황병홍, 「<南征記>의 構造와 意味-유연수의 성격분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고대학』 30,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광국은『창선감의록』의 적장자인 화춘을 차세대 가부장으로 보고, 화춘과 다른 인물들의 내면을 정신분석학 이론으로 분석하였다.[27] 이들 연구는 종전에 주목받지 못하던 가부장 인물의 내면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가부장 인물의 현실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이 연구들은 이전의 연구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온 '가부장'이라는 용어를 규정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한편 가부장 인물과 관련한 연구는 외국 문학 연구에서도 선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28] 이들은 대부분 가부장 인물의 권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문학계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극에 등장하는 정치적 지배자에 관한 논의에서 정치적 지배자가 강권을 휘두르지만, 이때 지배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약하거나 고통스럽다고 지적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29] 정치적 지배자는 '가부장'과 다른 개념이지만, 권력과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이 연구는 가부장을 다소 현상적으로 논해 온 고전소설 연구의 경향과 시각을 달리하고 있어 본고의 논의에 참고할 만하다. 한편 현대소설에 나타나는 가부장 인물이 불안, 고민을 드러낸다는 논의 역시 가부장 인물의 내면에 주목하고 있어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30]

이상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 도출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고는 선행연구

---

27) 조광국,「<창선감의록>의 적장자 콤플렉스」,『고전문학과 교육』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구, 청관고전문학회), 2018.

28) 주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강희경,「Shakespeare 로만스 극의 정치성」,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강희경,「가부장 신화의 관점에서 본『심벨린』」,『셰익스피어 비평』38, 한국 셰익스피어학회, 2002; 이미영,「『자에는 자로』: 권위를 문제 삼은 '문제극'」,『셰익스피어 비평』40, 한국 셰익스피어학회, 2004; 도해자,「셰익스피어 극의 가족 서사 재구성: 안젤라 카터의『현명한 아이들』을 중심으로」,『셰익스피어 비평』55, 한국 셰익스피어학회, 2019.

29) 이희원,「"역풍을 넘어 포옹하는 격이었지요":『겨울이야기』에 나타난 남녀의 분열과 화해 The Male/Female Dichotonry and Mutual Accommodation in The Winter's Tale 1」,『영미문학페미니즘』6, 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1998; 이희원,「셰익스피어의『페리클리즈』에 나타난 부녀 관계」,『영미문학페미니즘』8,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1.

30) 장소진,「현대소설에 나타난 '집'의 의미와 가부장의 위상」,『우리말 글』39, 우리말글학회, 2007.

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부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작품에 드러난 가부장의 내면을 중심으로 『현씨양웅쌍린기』를 독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제Ⅰ장 제3절에서는 연구에 적합한 선본을 선정할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논의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가부장의 개념을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현씨양웅쌍린기』의 등장인물 중 '가부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이며, 이 중 본고의 연구시각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누구인지 논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현씨양웅쌍린기』의 가부장의 내면을 분석할 것이다. 『현씨양웅쌍린기』는 가부장인 현수문과 현경문의 내면묘사를 중심으로 부부 갈등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따라서 현수문과 현경문의 내면을 각각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씨양웅쌍린기』에서 가부장의 내면이 어떻게 서술되는지, 왜 그러한 내면이 드러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의 논의를 토대로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가부장의 내면이 지닌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다른 한글장편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가부장의 내면이 지니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 작품이 꾸준히 향유되었던 이유를 밝힐 것이다. 또한 이 작품에 나타난 가부장의 내면이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논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고전소설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의 내면, 한국의 현대소설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부장의 내면과도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부장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작품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3. 자료개관

1) 관련기록

『현씨양웅쌍린기』는 『명주기봉(明珠奇逢)』, 『명주옥연기합록(明珠玉緣奇

合錄)』,『현씨팔룡기(玄氏八龍記)』와 연작 관계에 있는 작품으로, 현수문과 현경문 형제의 부부 갈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전 이본이 100종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현씨양웅쌍린기』는 당대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던 작품으로 짐작된다.[31]『현씨양웅쌍린기』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명주옥연기합록』 제25권의 결말에 "현시냥웅쌍인긔"가 있음.[32]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낙선재본 『현씨양웅쌍린기』 제10권 45b-46a면에 "냥웅빵린긔연"이 있음.[33]
③ 서울대 규장각본 『옥원재합기연(玉鴛再合奇緣)』(溫陽鄭氏 일가에 의해 1790년대에 필사) 제14권의 맨 앞 장에 실린 여러 소설의 제목들 가운데 "현시냥웅"이 있음.[34]
④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諺文古詩』(강전섭은 '壬申'이라는 필사기에 근거해 1872년의 기록으로 추정)의 한 부분인 「언문칙목녹」에 여러 소설의 제목이 실려 있는데, 그 중 56a면에 "현시양웅쌍닌긔"가 있음.[35]
⑤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1894년에 간행) 907번에 "현시냥웅썅닌긔 玄氏兩雄雙麟記"가 있음.[36]

---

31) 조희웅,『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64,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325-343면.
32)『명주옥연기합록』제25권의 결말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ᄎᆞ후 빅연의 이르도록 마장업시 지ᄂᆡᄂᆡ 원ᄂᆡ 오 진 냥공의 ᄉᆞ적은 현시냥웅쌍인긔의 ᄒᆡ비ᄒᆞ고 ᄐᆡᄉᆞ공과 졔왕의 ᄉᆞ적은 명쥬긔봉의 ᄒᆡ비ᄒᆞ고 현시 졔인의 후 ᄉᆞ적은 현시팔용긔 ᄒᆡ비ᄒᆞ나 옥화군쥬의 옥연긔합과 연의열의 명주긔합이 긔이ᄒᆞ무로 현승상 희빅과 병부 희문의 ᄉᆞ적을 초출ᄒᆞ여 명쥬옥연긔합녹이라 ᄒᆞ여 후세의 젼ᄒᆞ여 션악의 보응ᄒᆞ믈 밝히미니 후인은 다시 현시후록을 이어 볼지어다."
33)『현씨양웅쌍린기』제10권의 45b-46a면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샹과 댱부인의 별셰ᄒᆞ던 셜화와 웅린 텬린 등의 취실ᄒᆞ던 긔긔ᄒᆞᆫ 셜화ᄂᆞᆫ 다 후록의 ᄌᆞ셔히 잇거ᄂᆞᆯ ᄎᆞ던은 다만 ᄉᆞ지시녀 난혜 가ᄉᆞ를 ᄂᆞᆺᄂᆞᆺ치 다 일긔ᄒᆞ여 ᄂᆡ며 후셰 사ᄅᆞᆷ이 뎐을 지어 ᄡᅵ 셰샹의 젼ᄒᆞᄆᆡ 냥 현공의 위인이 일빵 룡린 ᄀᆞᆺᄐᆞᆫ 고로 슈졔ᄒᆞᄃᆡ 냥웅빵린긔연이라 ᄒᆞ엿ᄂᆞ니 ᄎᆞᄎᆞ 뉴젼 만셰ᄒᆞ라."
34)『옥원재합기연』제14권의 맨 앞장에 기록된 소설 목록은 다음과 같다.
"명ᄒᆡᆼ녹, 비시명감, 완월, 옥원ᄌᆡ합, 십봉긔연, 신옥긔린, 뉴효공, 뉴시삼ᄃᆡ록, 니시셰ᄃᆡ록, 현봉빵의록, 벽허담관졔언녹, 옥환긔봉, 옥닌몽, 현시냥웅, 명듀긔봉, 하각노별녹, 임시삼ᄃᆡ록, 소현셩녹, 손방연의, 빵녈옥쇼봉, 도잉ᄒᆡᆼ, 취미삼션녹, 취회록, 녀와뎐."
35) 강전섭,「언문칙목녹(諺文冊目錄) 小考」,『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5, 중앙문화사, 1995, 2014면.
『諺文古詩』56a면에 "현시양웅쌍닌긔"라는 제목이 나온다.

⑥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의『국조고사(國朝故事)』권3 말미에 부기된「칙녈명눅」(유춘동에 의해 1893~1910년 사이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에는 민간에서 유통되던 197종의 소설 제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67면 뒷면에 "현시냔웅쌍닌긔(오)"가 있음.[37]

⑦ 서울대 규장각본의『大畜觀書目』(순조대 이후의 기록으로 추측)에 "玄氏兩熊雙獜記 諺九冊"이 있음.[38]

⑧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연경당한문목록 부언문목록(演慶堂漢文目錄 附諺文目錄)』(李王職庶務係圖書室에 의해 1920년 5월에 조사됨) 37b면에 "玄氏兩熊雙麟記"가 있음.

⑨『조선지도서관(朝鮮之圖書館)』에 게재된 田中梅吉의「병합(倂合) 직후 시대에 유포된 朝鮮小說의 書目」(1930년대)에 "雙獜記"가 있음.[39]

위에 제시된 자료 중 ③~⑨는 18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기록된 것으로, 이를 통해『현씨양웅쌍린기』의 향유 시기 및 창작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중 ③ 서울대 규장각본『옥원재합기연』은 그 기록 연대가 가장 이른 것으로, 1790년대에 온양정씨 일가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록에 근거하면『현씨양웅쌍린기』는 1790년대 이전에 창작되어 향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목록은『옥원재합기연』이 필사된 후에 개장(改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현씨양웅쌍린기』가「언문칙목녹」,「칙녈명눅」과『朝鮮小說의 書目』등의 자료에 꾸준히 언급되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19세기 전반에 걸쳐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널리 향유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⑧『연경당한문목록 부언문목록』은 창경궁 연경당에 소장되었던 언문책 목록이므로『현씨양웅쌍린기』가 궁중에서도 향유되었을 작품인 것으

36) 모리스 꾸랑,『한국서지』, 이희재 역, 일조각, 1994, 303면.
37) 유춘동,「<책열명록>에 대하여」,『문헌과 해석』35, 태학사, 2006, 187-191면.
38) 이정효,「『大畜觀書目』과『承華樓書目』에 관한 考察」,『서지학연구』73, 한국서지학회, 2018, 40-41면.『大畜觀書目』11면에 기록된 소설 목록은 다음과 같다.
"劉氏三代錄 諺 一件十九冊 一冊落 一件 二十二冊 二冊落 劉氏忠孝錄 四冊 明珠奇逢 諺三套 共二十五冊 衛氏五世三蘭賢行錄 諺二十七冊 玄氏兩熊雙獜記 諺九冊"
39) 유춘동,「자료: 한일병합(韓日倂合) 즈음에 유통되었던 고소설의 목록」,『연민학지』15, 연민학회, 2011, 291-301면.

로 보인다.

『현씨양웅쌍린기』의 관련기록을 통해 작품명이 “현시냥웅쌍인긔”, “냥웅빵린긔연”, “현시냥웅”, “현시양웅쌍닌긔”, “玄氏兩雄雙麟記”, “玄氏兩熊雙獜記”, “玄氏兩熊雙麟記”, “雙獜記” 등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목에 조금씩 차이가 보이지만 위의 제목으로 전하는 작품들이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표제와 권수제가 각각 “玄氏兩雄記”, “현씨냥웅빵닌긔년”으로 다르게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서지와 이본

지금까지『현씨양웅쌍린기』의 완질본은 필사본, 세책 필사본과 구활자본으로 9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40] 새롭게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 7권 7책 소장본 2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현씨양웅쌍린기』의 완질본은 아래의 11종이 있다.

-필사본:

① 한국학중앙연구원 낙선재본(이하 낙선재본이라 칭함): 10권 10책
② 고려대 도서관본(이하 고려대본이라 칭함): 10권 10책
③ 서울대 규장각본(이하 서울대본이라 칭함): 6권 6책
④ 국립중앙도서관본(이하 국도본A라 칭함): 18권 6책
⑤ 국립중앙도서관본(이하 국도본B라 칭함): 7권 7책
⑥ 성균관대학교 존경각본(이하 성대본이라 칭함): 11권 11책
⑦ 김광순 소장본(이하 김광순본이라 칭함): 7권 7책
⑧ 조동일 소장본(이하 조동일본이라 칭함): 8권 6책
⑨ 김동욱 소장본(이하 김동욱본이라 칭함): 6권 6책

-세책 필사본

40) 이 외에 목록상 완질본으로 확인된 강전섭 소장본(3권 3책), 아스톤문고 소장본(6권) 등이 있는데, 다른 이본에 비해 많이 축약되거나, 필자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실물을 열람할 수 없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다원, 앞의 논문, 8-10면 참고).

⑩ 연세대 도서관본(이하 연대본이라 칭함): 24권 24책

-구활자본

⑪ 덕흥서림 간행본(이하 덕흥서림본이라 칭함): 상·하 2책

① 낙선재본은 전 책이 10권 10책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玄氏兩熊雙麟記” 내제는 “현시냥(량)웅빵린긔”로 되어 있다. 각 권 91-114면 내외이며 면당 10행, 행당 20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필사자나 필사기는 없다.

② 고려대본은 전 책이 10권 10책으로 되어 있다. 표제와 내제는 낙선재본과 동일하다. 각 권 109-180면 내외이며 면당 7-9행, 행당 20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권9 표지 안쪽에 ‘정유연 등셔 우힝실누’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③ 서울대본은 전 책이 6권 6책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玄氏兩雄雙麟記” 내제는 “현씨양(냥)웅빵닌(린)긔”로 되어 있다. 각 권 73-105면 내외이며 면당 12-14행, 행당 27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필사기를 통해 임진년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1: 셰지 임진 츄 칠월 념일〃 필셔
권2: 셰지 임진 츄 팔월 초 팔일 죵셔ᄒᆞ다
권3: 셰지 임진 동 십일월 초 ᄉᆞ일 필셔ᄒᆞ다
권4: 셰지 임진 십일월 념뉵일 죵셔
권5: 셰지 임진 납월 초 이일 죵셔
권6: 셰지 임진 납월 초 육일 종셔

④ 국도본A[41]는 전 책이 18권 6책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현시냔웅쌍님긔” 내제는 “현시냥웅빵닌긔”로 되어 있다. 권10～13이 4책으로, 권17·18이 6책으로 합책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3권 1책으로 되어 있다. 각 책 면수는 66-146면이며 면당 11-12행, 행당 19-25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6책 말미의 필사 후기를 통해 필사자가 궁중에서 저본을

41) 국도본A의 서지사항은 이다원의 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했다(위의 논문, 38-40면).

얻어 1873년 6월 상순에 필사하였으며 소설의 교화적 기능에 대해 자신의 소설관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필사 후기는 다음과 같다.

> 셕ᄌᆞ 국가의 ᄑᆡ관을 두어 여염간의 셰〃ᄒᆞᆫ 소셜을 카여 ᄑᆡᄉᆞ를 지으니 임군이 ᄑᆡᄉᆞ를 보고 챵션징악ᄒᆞ려 ᄒᆞᄂᆞᆫᄇᆞ라 그러ᄒᆞᆫ직 금셰 소셜은 젼일 ᄑᆡᄉᆞ이니 풍화의 도음이 업지 업스리오...(중략)...동치 습이년 계유 하의 현시빵닌긔를 권ᄂᆡ로 죠ᄎᆞ 어더 보니 쳐음의 ᄌᆞ미잇게 여겨 등셔ᄒᆞ엿드니 지숩 상고ᄒᆞ니 셔즁의 챵션증악ᄒᆞ염즉ᄒᆞᆫ ᄉᆞ젹이 젹고 ᄒᆞᆫᄀᆞᆺ 한가ᄒᆞᆫ ᄉᆞ룸의 소일거리니 그를 ᄋᆡ둘나ᄒᆞ노라...(중략)...계유 뉵월 샹한의 녀강 홍곡외사젼 열낙당셔

⑤ 국도본B는 전 책이 7권 7책으로 되어 있다. 권1~5의 표제는 “玄氏兩雄相蓮幾年” 내제는 “현씨양웅썅년(인)긔년”으로 되어 있다. 권6의 표제는 “玄氏兩雄雙賢紀年” 내제는 “현씨양웅쌍인기년”으로 되어 있으며 권7의 표제는 “玄氏兩雄雙蓮紀年” 내제는 “현씨양웅샹연긔년”으로 되어 있다. 각 권 69-144면 내외이며 면당 10-18행, 행당 22-25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표제에 ‘정사’라는 필사기를 통해 정사년 무렵에 필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권2: 丁巳二月節沙得
권5: 사동댁□□□ 丁巳二月節沙得
권6: 丁巳二月仲春□
권7: 丁巳二月仲春九日□

⑥ 성대본은 괘선(罫線), 판심과 파도 무늬 모양 광곽(匡廓)이 있는 출판지에다 필사되어 있는 남격초본(藍格鈔本)이다. 전 책이 11권 11책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玄氏兩雄雙麟記”, 권10의 내제는 “현씨양웅긔”로 되어 있으며 다른 권의 내제는 “현씨양웅빵인긔”로 되어 있다. 각 권 64-116면 내외이며 면당 10행, 행당 20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권4의 중봉(中縫)에 ‘金龍商會製’[42]라는 글이 인쇄되어 있으며 ‘셰ᄌᆡ 임ᄌᆞ 시월 십일 셔우

과천군 관믄동'이라는 필사기가 있다. 이를 통해 이 이본은 현재의 과천시 관문동에서 1912년에 필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⑦ 김광순본은 전 책이 7권 7책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玄氏兩雄記" 내제는 "현씨냥(양)웅빵닌(인)긔년(연)"으로 되어 있다. 각 권 45-139면 내외이며 면당 12-16행, 행당 22-25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필사 후기를 통해 필사자가 한 명이 아니라 질아와 질부 및 나이가 많은 노친 등이 계사년 8월 1일부터 갑오년 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이 작품을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권1: 계ᄉᆞ 츄 팔월 초 니일 시셔ᄒᆞ여 십일〃에 〃로 옴기나...
권2: 계ᄉᆞ 팔월 십니일 시셔...
권4: 갑오 원월 긔밍일 등셔ᄒᆞ다
권5: 시셰 가오 원월 기밍일 시쟉ᄒᆞ야...
권6: 시셰 갑오 원월 념일 시쟉ᄒᆞ여...
권7: 이 칙 시셰 졍월 회일ᄒᆞ여 총〃히 니월 초 오일히 씌다가 동셔ᄒᆞ니 시훤 삼권으로 시작ᄒᆞ여 오륙권을 ᄒᆞᆫ□담ᄉᆡ녜 맛노라 소경 ᄀᆞᆺ흔 안녁의 필ᄌᆞ을 노흐녀 동일 곤ᄋᆡ 밤이면 뇨통각통 손목도 신ᄃᆞᆺᄒᆞ고 더 슈거 드뎟□시□ 고통ᄒᆞ고 ᄉᆡ면이더다...(중략)...이 젼의ᄂᆞᆫ 팔십 노친의 슈필□ 들고 딜ᄋᆞ들 쥬옥필치도 들고 딜부들 글시 면〃 드럿시니 니동 드리 아냐 보아냐 빵모의 구술갓흔 글시로 밧바 만히 삐지 못ᄒᆞ니 ᄋᆡ돌도다...(후략)

⑧ 조동일본은 전 책이 8권 6책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현씨양웅쌍인긔" 내제는 "현시냥웅쌍인긔"로 되어 있다. 권5·6, 권7·8이 합책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1권 1책이다. 각 권의 면수는 차이가 있고 26-93면 내외이며 면당 13행, 행당 24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필사 후기를 통해 1880년 이월부터 순차적으로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42) 金龍商會는 大正元年八月五日에 등록되었으며, 증권, 종이, 측량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상회이다(「法人及商業登記公告」, 『조선총독부 관보』 제0010호, 1912년 8월 10일, 7면)(https://db.history.go.kr).

권1: 경진 이월 초 팔일노써 십일〃 필등이라 庚辰二月十一 畢 冊主宋
권2: 경진 이월 십이일노써 십육일 필등이라
권3: 경진 이월 이십삼일노써 이십팔일 필등이라
권4: 경진 이월 회일노써 삼월 쵸 이일 필등이라
권6: 경진 삼월 이십일노써 이십이일 필등이라
권8: 광서 뉵연 경진 밍하 초 삼일 낙필ᄒᆞ니라

⑨ 김동욱본은 전 책이 6권 6책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현씨쌍린괴" 권1~3의 내제는 "현씨썅린(닌/인)긔"로 되어 있으며 권4~6의 내제는 "현시양웅썅인(닌)긔"로 되어 있다. 각 권 69-89면 내외이며 면당 12-16행, 행당 25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필사 후기를 통해 1929년부터 1930년까지 필사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43]

권1: 셰지 긔ᄉᆞ 십월 초 일〃 필셔
권2: 셰지 긔ᄉᆞ 십월 십이일 필셔
권3: 셰지 츈 이월 경오 십육일 필셔
권4: 셰지 경오 하 육월 십육일 죵셔
권5: 셰지 경오 이월 초 일 필셔라
권6: 셰지 경오 셔력 일천구빅이십팔년 경오 십팔일 필셔

⑩ 연대본은 전 책이 24권 24책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玄氏兩雄雙麟記" 내제는 "현시냥웅빵닌긔"로 되어 있다. 각 권 64면 내외이며 면당 11행, 행당 13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셰긔유', '뉸이월'의 필사기를 통해 1909년에 필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4]

⑪ 덕흥서림본은 상·하 2책, 20회의 장회체로 되어 있다. 상권은 111면, 하권은 104면이며, 저자와 발행자는 김동진(金東縉)이고 발행년도는 1919년이다.[45]

---

43) 이다원은 필사자가 경오년인 1930년이라는 간지와 1928년이라는 서력 연도를 혼동하였으며 이 이본이 1929년부터 1930년까지 필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위의 논문, 26면).

44) 이윤석; 大谷森繁; 정명기, 『貰冊 古小說 硏究』, 혜안, 2003, 46-83면; 이윤석, 이다원 교주, 『현씨양웅쌍린기』 ⅠⅡ, 경인문화사, 2006.

3) 이본비교

연구에 적합한 선본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선본으로 지정된 낙선재본, 국도본B, 성대본을 비교할 것이다. 세 이본에서 줄거리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낙선재본에는 성대본에 없는 서사단락이 존재한다.

> (낙선재본) 쳐음의 신비호를 승샹이 구ᄒᆞ여 일명을 살ᄋᆞᄆᆡ 비회 감복ᄒᆞ믈 이긔지 못ᄒᆞ여 샹부 문긱이 되엿더니 관동 졀셔긔경의 산젹이 셩힝ᄒᆞᄆᆡ 승샹이 특별히 비호를 쳔겨ᄒᆞ여 졀셰츙명을 삼아 관동을 다ᄉᆞ리ᄆᆡ 군무와 위엄이 제 젹의 북죵ᄒᆞ미 되니 이의 탁용ᄒᆞ여 졍셔쟝군이 되엿ᄂᆞᆫ지라 승샹 부ᄌᆞ의 덕을 감츅ᄒᆞ여 죽어 갑흘 ᄯᆞᆺ이 이셔 ᄆᆡ양 문호의 나ᄋᆞ가 츄보ᄒᆞ믈 평일 ᄀᆞᆺ치 ᄒᆞ니 승샹과 냥휘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비록 젼일 비쳔ᄒᆞ나 도금ᄒᆞ여 쟉직이 고대ᄒᆞ거ᄂᆞᆯ 엇지 너모 과겸ᄒᆞᄂᆞ뇨” 비회 눈믈을 흘리고 ᄃᆡ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쇼쟝이 냥위 현후와 승샹 합하의 싱ᄉᆞ육골 지은 곳 아니면 엇지 금일이 이시리 잇고 셰셰싱싱의 죤부 ᄂᆞ북이 되여도 은덕을 다 갑지 못ᄒᆞ이로쇼이다”(권10, 42a-43a)

이 단락은 전에 남주인공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난 장군 신비호가 관동의 산적을 물리친 공을 세운 뒤 현택지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서사전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도본B에는 낙선재본과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이 있지만 성대본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이는 성대본의 축약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부 서술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현경문이 아들을 악부에게 계후하는 장면에서 성대본은 현경문이 아들을 악부에게 계후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국도본B는 악부가 현경문의 아들의 성을 바꾸고 계후해 달라고 한 뒤 현경문이 아들을 악부에게 계후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낙선재본은 국도본B와 비슷하지만 현경문이 성을 바꾸는 것을 허락

45) 이다원, 앞의 논문, 53-54면.

하지 않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세 이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성대본) 쥬씨 ᄉᆞᆷᄌᆞ 일녀을 두ᄆᆡ 필ᄌᆞ 명닌으로 쥬소ᄉᆞ 후ᄉᆞ을 잇게 ᄒᆞ고 쳘씨 ᄉᆞᄌᆞ을 두고...(후략)(권11, 35면)

(국도본B) 소ᄉᆡ 드ᄃᆡ 승샹긔 고ᄒᆞ고 명인을 입후ᄒᆞ여 ᄉᆞ셩 듀시ᄒᆞ고져 ᄒᆞ니 남휘 그 셩을 다 갈고져 ᄒᆞ믈 자못 불열ᄒᆞ여 비록 ᄉᆞᆷᄌᆞ을 두어시나 부모의 졍은 나니 마다 더은디라 기린 ᄀᆞᆺ한 아ᄃᆞ을 ᄂᆡ니 노흘 바을 크긔 실망ᄒᆞ여 인간의 견집ᄒᆞ니 소ᄉᆞ 부뷔 크긔 노ᄒᆞ야 부인은 문득 침셕의 더 긔여 체읍ᄒᆞ여 상 업ᄂᆞᆫ 기죄 무슈하물 듯고 듀부인의 디극한 효심의 쵸젼ᄒᆞ믈 마디 아니〃 남휘 힝셰 부득이 명아을 듀공의 후ᄉᆞ를 뎡키 ᄒᆞ니 소ᄉᆞ와 부인의 환희ᄒᆞ미 비갈 ᄃᆡ 업더라(권7, 79-80면)

(낙선재본) 쇼ᄉᆡ 드ᄃᆡ여 승샹긔 고ᄒᆞ고 계후ᄒᆞ여 ᄉᆞ셩 듀시ᄒᆞ려 ᄒᆞ니 남휘 그 셩을 다 갈녀ᄒᆞ믈 보고 ᄌᆞ믓 불열ᄒᆞ고 비록 삼ᄌᆞ를 두어시나 부모의 졍은 ᄂᆞ니 퓩퓩 더은지라 긔린 ᄀᆞᆺ튼 ᄋᆞᄌᆞ를 쇽졀업시 ᄂᆡ여 노흐믈 불열ᄒᆞ여 언간의 견집ᄒᆞ니 쇼ᄉᆞ 부뷔 크게 노ᄒᆞ여 부인은 믄득 침셕의셔 체읍ᄒᆞ여 샹 업ᄉᆞ 말노 로심ᄒᆞ믈 듯고 부인의 지극ᄒᆞᆫ 효심의 쵸젼번뇌ᄒᆞᄂᆞᆫ지라 남휘 셰 부득이 ᄒᆞ여 명닌을 쥬쇼ᄉᆞ의 후샤를 졍케 ᄒᆞ나 ᄉᆞ셩 쥬시ᄒᆞ믈 허치 아니니 쇼ᄉᆞ 부부와 부인의 환희ᄒᆞ미 비길 ᄃᆡ 업고...(후략)(권10, 43b-44a)

이처럼 세부 서술상의 차이가 확인된다. 또한 성대본과 국도본B에 비해 낙선재본이 생략된 내용이 적고, 후편『명주기봉』의 서사를 상기하면 문맥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세 이본 중 낙선재본이 선본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낙선재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낙자(落字)로 인해 내용을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른 이본을 참고하기로 한다.

Ⅱ. 가부장의 개념과 양상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가부장의 내면을 살펴보기에 앞서 두 가지 예비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가부장'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현씨양웅쌍린기』의 등장인물 중 '가부장'에 해당하는 인물을 선별하고, 이들 중에서 본고의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왕의 고전소설 연구에서 가부장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조선의 사상적·사회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유교적 가부장'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현씨양웅쌍린기』에서 '가부장'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정하고, 이 인물들의 작품 내 존재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가부장의 개념

고전소설 연구에서 '가부장'[46]이라는 개념은 그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초기에는 주로 '가부장'이 '가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논의되었고, 그 후에는 '차세대 가부장'이나 '2세대 가부장'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최근에는 기혼 남성 일반을 가부장으로 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의 연구는 '가부장'을 '가장'[47]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

46) '가부장'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의 '파트리아르케스(πατριάρχης)'에 어원을 둔 영단어 '페이트리아크(patriarch)'의 번역어로, 가족의 수장 또는 아버지를 뜻한다(Hamilton, Henry R, *The Classic Greek Dictionary: English-Greek; Containing All the Words in General Use with Their Various Significations Classified,* New York (State): A. Hinds, [189-?], 1880, p. 173).

47) '가장'이란 말 그대로 집안의 어른이다. '가장'이라는 말이 보이는 최초의 문헌은『묵자(墨子)』로, "어찌 집에 살면서 가장에게 죄를 얻는 일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惡有處家而得罪於家長, 而可爲也)"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장이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은 가족을 통솔하고 대표하는 최연장자 남성으로 규정된다. 대표적인 논의로 김두헌과 박병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두헌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박병호는 법적 관점에서 가장의 개념을 규정했다. 김두헌에 의하면 가장은 여러 세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중 최고

악했다. 조선시대에 '가장'이라는 말은 법적·관습적으로 가문의 수장 한 명만을 가리켰다.[48] 즉, 이 단계의 연구는 '가부장'의 개념을 비교적 좁게 규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김일렬, 송성욱 등의 초기 연구에서 최근에 황미숙, 황병홍 등의 연구로 이어졌다.[49] 고전소설 속 가부장에 대한 연구 중 상당수는 이러한 관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김일렬은 가부장이 가족 구성원의 정점에 서서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고 가정의 안정과 화목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의했다.[50] 황미숙은 고전소설 속의 시아버지를 가부장으로 보았다.[51] 그리고 가부장은 가족을 지배·지휘·통솔하는 최연장자인 가장으로, 가족의 일에 대한 결정권, 가족 질서 유지, 가족 부양, 교육, 재산, 제사 주재 등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지적했다.[52]

두 번째 단계의 연구는 가부장을 세대에 따라 구별하기 위해 '(제)1세대', '제2세대' 가부장 또는 '차세대 가부장' 등의 용어를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성권은 차세대 가(부)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53] "가장은 가족단체의 통솔자, 지휘자이며 가의 대표자이고 원칙적으

존속(尊屬)으로, 가산(家産) 관리, 가족 부양, 분가, 입양, 자녀의 혼인·교육·징계 등에 있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친화(親和), 애경(愛敬) 등 유교적 예(禮)로 가족을 통솔한다(김두헌, 『韓國家族制度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322-332면). 박병호에 의하면 가장은 원칙적으로 최연장자 남성으로, 부부로 구성된 가족에서는 남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서는 아버지, 형제 기타의 방계친족들로 구성되는 가족에서는 항렬이 가장 높은 최연장자 남성이며, 그 외에도 노비나 고공(雇工)에 대한 상전(上典) 또는 주인을 지칭하기도 했다(박병호, 『韓國의 傳統社會와 法』,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109-113면; 박병호, 「韓國의 傳統家族과 家長權」, 『韓國學報』, 일지사, 1976, 75-89면).

48) 조선후기 법률에 따르면 호주(戶主)인 가장이 늙어서 아들에게 가무(家務) 관리권을 전하더라도 가장은 아버지이며, 어머니가 생존해 있더라도 여성은 가장이 될 수 없다(박병호, 위의 논문, 1976, 74면). 또한 『예기(禮記)』에서는 "집안에 두 주인이 없다(家無二主)"라고 강조한다(「방기(坊記)」, 『예기(禮記)』).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가장'은 법적·관습적으로 가문의 수장 한 명을 의미했음을 알 수 있다.

49) 김일렬, 앞의 책; 송성욱, 앞의 논문, 1990; 황미숙, 「고소설에 등장하는 媤父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장경남, 앞의 논문, 2003; 이원수, 앞의 논문; 엄태웅, 앞의 논문; 황병홍, 앞의 논문.

50) 김일렬, 위의 책, 71면.

51) 황미숙, 앞의 논문, 1-2면.

52) 이광규,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一志社, 1975, 129-135면.

53) 이성권, 앞의 책. 최근에는 조광국이 화춘을 차세대 가부장으로 보고 논의한 바

로 남자로서 최연장자"[54]이며 차세대 가장이란 이 가장의 아들로서 "가장이 죽은 뒤 가족을 대표하게 되는 장자를 의미한다"[55]. 이지하는 『유효공선행록』에서 가문 내 최고 어른인 유정경을 제1세대 가부장이라 지칭하였다.[56] 그리고 1세대 가부장의 잘못을 시정하고 가문의 중심으로 성장해 가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유정경의 장자인 유연을 제2세대 가부장이라 지칭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에서 가부장을 '가장'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특히 두 번째 단계의 논의는 '가부장'의 개념을 보다 넓게 규정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선행연구는 장자(長子)만 차세대 가부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의미가 협소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면 『소현성록』의 소운성과 『유효공선행록』의 유우성은 장자가 아니지만 가장권을 이어받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가부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인물들을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성취를 이룬 바 있다.[57] 차세대 가부장을 장자로만 한정했을 때는 이런 인물들을 논의에 포괄하기 어렵다.

한편 세 번째 단계의 연구는 좁은 가부장의 의미로부터 벗어나 고전소설의 가부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한길연은 여성학에서의 사용하는 폭넓은 가부장제의 개념을 활용하여 아내 또는 자식을 억압할 수 있는 모든 남성 인물을 가부장으로 보았다.[58] 여기에 더해, 효를 중시하고 가문을 우선시하는 것을 가부장의 요건으로 추가하였다. 박은정은 가부장을 "한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고 부양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주체"[59]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송부인전』의 여주인공 송경패의 입장에서 볼 때 '가부

있다. 하지만 조광국은 차세대 가부장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조광국, 앞의 논문). 따라서 조광국이 염두에 둔 차세대 가부장의 개념이 이성권이 제시한 개념과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54) 위의 책, 96면 각주 24 재인용.

55) 위의 책, 96면 각주 24 재인용.

56) 이지하, 앞의 책, 13-21면.

57) 정선희, 앞의 논문; 이주영, 「늑혼을 둘러싼 사회 관계망과 전언 분석-<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성현공숙렬기>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32, 국문학회, 2015.

58) 한길연, 앞의 논문, 2013; 한길연, 앞의 논문, 2021.

59) 박은정, 「<송부인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위상과 가족의 재구성」,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235-236면.

장'에 해당하는 인물은 그녀의 시아버지이다. 하지만 박은정은 송경패의 남편을 가부장으로 규정하였다. 그 근거로 혼인 후 남편을 따라야 하는 '삼종지도(三從之道)'가 있고, 시아버지보다 남편이 그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최근에 가부장제 질서 하에서 결혼한 남성을 '소가장(小家長)'이라고 지칭한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60] 이 연구에서는 박은정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남편'을 가부장으로 보았다.

한길연과 박은정은 아내 또는 자식을 통솔할 수 있는 모든 남성을 가부장으로 보았다. 즉 '가부장'을 '가장', '남편'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규정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가부장의 개념을 수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현씨양웅쌍린기』에 나오는 부부관계 속의 남성 인물을 '남편'이 아니라 '가부장'으로 지칭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용어이다. 그런데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은 부인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심리를 체험할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남편'이라는 용어는 남성 인물을 둘러싼 복합적 관계망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복잡한 심리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관계망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인 '가부장'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부장에 관한 규정은 '가부장제'라는 개념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부장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부장제의 원형은 고대 로마의 가족 체제에서 형성되었다.[61] 고대 로마에서 가부장은 가족 중 생존 최고령인 '아버지'로, 법률적·윤리적으로 가족 구성원, 특히 자식들에 대한 혼인 결정, 생사여탈과 같은 절대적 권리를 가지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의무를 가진 남성이었다. 가부장제는 1960년대 이후 여성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개념이며,[62] 사회학

60) 공혜란, 「가문소설의 여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19면.

61) 이하 로마의 가부장 및 가부장제에 대한 정리는 다음 논의들을 참고하였다. Shelton, Jo-Ann, *As the Romans Did: A Sourcebook in Roman Social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7; 테오도르 몸젠 지음; 김남우, 김동훈, 성중모 옮김, 『몸젠의 로마사』, 푸른 역사, 2013, 83-88면; 박미해,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아카넷, 2010, 15면.

62) 거다 러너 지음, 강세영 옮김,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박미해, 위의 책,

에서도 많이 거론된 개념이다.

초기 여성학에는 남성 지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학자들은 '종족에 대한 가장의 권리'라는 가부장제의 개념을 받아들였다.[63] 이후 가부장제의 역사적 기원, 사회적 배경,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관계 등을 밝혀내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64] 이 논의 가운데 실비아 월비(Sylvia Walby)의 논의는 가부장 체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거시적으로 가부장제의 정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가부장제를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 구조와 관습의 체계"[65]로 정의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가부장제는 가족 집단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사회 영역에도 존재한다. 여성학에서의 가부장제 개념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억압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66]

다음으로 사회학에서 가부장제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사회학에서 가부장제란 "가장인 남성이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 형태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장의 지배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체계를 일컫는 제도"[67]를 뜻한다. 사회학에서의 가부장제는 가부장이 가족 집단을 어떤 방법으로 통솔하는가에 주목하여 정의되므로 여성학에서의 가부장제 개념보다 더 구체적, 중립적인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가부장이 가족 구성원을 지배한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여성학에서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상통한다.

두 분야의 가부장제의 개념을 통해 가부장은 통솔하고 지배하는 '권력'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가장'이 예학에

15면.

63) 실비아 월비 지음; 유희정 옮김, 『가부장제 이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64) 거다 러너 지음, 강세영 옮김, 앞의 책; Rosemarie, Tong; Botts, Tina Fernandes,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 (Fifth ed.),* New York, 2017; Hartmann, Heidi,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Capital and Class*, 1979.

65) 실비아 월비 지음; 유희정 옮김, 앞의 책, 40-43면.

66) 다만 가부장이 자신의 아들 등 남성 구성원에게도 지배권을 가진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점은 다음 절에서 상론할 것이다.

6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근거한 전통적 개념이라면 '가부장'은 사회학 및 여성학에 의거한 현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가장'이라는 개념의 핵심적 의미가 '종통의 계승'이라면, '가부장'이라는 개념의 핵심적 의미는 '한 가정[68]에 대한 통제권'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교적 가부장이 권력뿐 아니라 의무도 지닌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과 시대에 따라 가부장제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69]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가부장의 일반적인 개념을 정의하기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에 유교적 가부장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교적 가부장의 개념을 정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유교적 가부장의 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가부장의 권력은 가족 내 역할에 따라 '부권(父權)'과 '부권(夫權)'으로 나눌 수 있다. 부권(父權)은 자식의 잘못이나 범죄 행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동시에, 가산의 관리·분배·사용 등의 권력, 조상의 제사권, 자식 등 가족 구성원의 부양·교육·혼인·징계 등의 권력을 말한다.[70] 부권(夫權)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성적 독점권, 이혼 전유권 등 아내를 지배하는 통제권을 가지면서도 아내의 언행, 윤리와 도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가리킨다.[71]

또한 유교적 가부장에 대한 도덕적 요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식에 대한 가부장의 권한은 강력하다. 그런데 가부장은 권력으로만 가족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禮)로써 가족을 다스린다.[72] 조선시대, 특히 조선중기부터 말기까지 학자들은 주희(朱熹)의 『

---

68) 여기서 '가정'은 부부, 자식을 포함하는, '가문'에 비해 작은 가족 단위를 뜻하는 말로 썼다.

69) 실비아 월비 지음; 유희정 옮김, 앞의 책, 7-11면.

70) 김두헌, 앞의 책, 325-332면; 박병호, 앞의 논문, 75-89면.

71) 박미해, 앞의 책, 61-68면; 이광규, 앞의 책, 109-123면.

72) 앞서 언급했듯 '가부장'이란 용어는 조선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교적 가부장에 관한 규범은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선행연구는 가장이 권력보다는 예(禮)로써 가족 구성원을 통제할 것이 강조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김두헌, 앞의 책, 330면). 이 점은 '가장'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가부장에도 적용된다.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에는 예학이 사족이나 선비에게 요구되는 도덕규범과 윤리규범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비 일반과 비교했을 때 가부장에게 부과되는 도덕 및 윤리규범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혼인하지 않은 선비의 경우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와 구준(丘濬, 1420～1495)의 『가례의절(家禮儀節)』을 중심으로 많은 가례서(家禮書)를 주석하거나 편찬했다.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봉선잡의(奉先雜儀)』,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가례집람(家禮輯覽)』, 이재(李縡, 1680～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사소절(士小節)』과 허전(許傳, 1797～1886)의 『사의(士儀)』 등 대표적인 예서가 그것이다. 이러한 가례서를 통해 유교적 가부장에게 요구된 윤리적 규범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언행, 옷차림 등 외면과 관련된 규범과, 성품 등 내면과 관련된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부장의 외면과 관련된 규범에 대해 살펴보자.

위 가례서는 공통적으로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그리고 제례(祭禮) 등 예절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 설명해준다. 관례에 관한 설명을 통해 선비의 겉모습 및 언행과 관련된 규범을 엿볼 수 있다.[73]

> 무릇 사람이 사람이 된 까닭은 예의(禮義)가 있기 때문이니, 예의의 시작은 용체(容體)를 바르게 하고 안색을 가지런히 하고 사령(辭令)을 순히 하는데 있다. 용체가 바르고 안색이 가지런하고 사령이 순한 뒤에야 예의가 갖추어져서 이로써 군신을 바로잡고 부자를 친하게 하고 장유를 화(和)하게 하니, 군신이 바루어지고 부자가 친하고 장유가 화한 이후에 예의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관례한 이후에 의복이 구비되며 의복이 구비된 이후에 용체가 바르게 되고 안색이 가지런해지고 사령이 순해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관례는 예의 시작이다."라고 한다.[74]

효와 충이 특히 강조된다. 효는 부모를, 충은 나라와 임금을 '모시고 받드는' 위치에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다. 물론 가부장도 이와 같은 덕목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혼인하고 나면 아내와 자식을 포함해 자신이 이끌어야 하는 가정이 형성된다. 따라서 가부장에게는 효와 충 외에도 아내 또는 자식 등에 대한 예(禮)가 요구된다. 즉, 가부장은 예에 입각하여 아내 또는 자식을 '다스려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73) 관례의 축사(祝詞)에서도 예의 바른 행동이 요구되었다(조창규, 「儒家 冠禮의 文化解釋」, 『大東漢文學』 27, 대동한문학회, 2007, 429-433면 참조).

74) "凡人之所以爲人者, 禮義也. 禮義之始, 在於正容體, 齊顔色, 順辭令. 容體正, 顔色齊, 辭令順, 而后禮義備. 以正君臣, 親父子, 和長幼. 君臣正, 父子親, 長幼和, 而后禮義立. 故冠而后服備, 服備而后容體正, 顔色齊, 辭令順. 故曰, "冠者禮之始也.""(「관의(冠義)」, 『예기(禮記)』).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하였다.

위 인용문은 관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대목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외모와 행동이 바르고 안색이 가지런하며 말이 순한 것이 예의 시작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사소절』의 「사전(士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 "욕 같은 속된 말이 한 번 입에서 나오면 선비의 품행이 즉시 떨어진다."[75]

2 "군자는 행동에 있어서 우아하고 단정하며, 민첩하면서 여유가 있어야 된다."[76]

3 "인(仁)이란 생생(生生), 즉 생명을 북돋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군자가 인도(仁道)를 체득하면 어찌 잠시인들 생생이 없으리오. 말을 할 때 조리(條理)가 없으면 생생이 아니요, 의복을 단정하게 입지 않으면 생생이 아니다."[77]

위 인용문은 이덕무의 『사소절』의 「사전」에서 선비들의 언행 규범을 제시한 대목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가부장이 욕설하지 말아야 하고 우아하게 행동하며 의관(衣冠)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교적 가부장에게 어떤 내면적 자질이 요구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앞서 『예기』에서는 예의 시작 중 하나로 안색이 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선비들이 내면의 감정과 정신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렸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범은 『사소절』의 「사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75) "俚俗之言一出口, 士行卽時墜地."(이덕무, 「사소절」,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7). 이하 『사소절』의 원문은 모두 한국고전종합DB에서 가져왔으며, 표점과 밑줄은 필자가 한 것이다. 이하 번역은 모두 이동희 편역, 『사소절(士小節): 선비 집안의 작은 예절』, 傳統文化硏究會, 2013에서 인용하되, 저자, 제목과 권수만 밝히기로 한다.

76) "君子立溫雅之途, 佩皎潔之符, 守精敏之樞, 處寬博之都."(이덕무, 「사소절」,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8).

77) "仁者, 生生之謂也. 君子體中, 何嘗無一刻生生. 出言無章, 非生生也, 冠帶不整, 非生生也."(이덕무, 「사소절」,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9).

1 마음에 없는 웃음을 억지로 웃지 말고 까닭 없이 격분하지 말며, 일에 앞서 의심나는 것이 없도록 하고 때가 지난 뒤에 공연히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78]

2 병도 없고 근심도 없을 때는 신음하거나 얼굴을 찡그려서는 안 되고, 조그마한 병과 작은 근심이 있을 때 크게 신음하고 크게 얼굴을 찡그려서는 안 된다.[79]

3 근심이란 흔히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생겨나 반드시 노여움과 함께 발로(發露)하는 것이다. 사람의 심정이 이따금 이러하니, 억눌러서 격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80]

4 비록 시름과 분노가 있더라도, 조급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호소하듯이 나무라듯이 혼자서 중얼거려서는 안 된다.[81]

5 사소한 근심으로 얼굴을 찡그려 우는 형상을 해서는 안 되고, 약간 성낼 일에 고함을 질러 꾸짖는 얼굴을 해서는 안 된다.[82]

위 인용문을 통해 유교적 가부장이 분노, 시름 등의 감정을 억제하고 쉽게 표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례와 제례는 효 실천의 연장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이러한 의례를 배움으로써 유교적 가부장은 부모 및 조상에 대한 효, 경(敬), 가문 유지 및 계승 등의 유교적 규범을 습득하게 된다.[83]

---

78) “勿作有意强笑, 勿生無故激惱, 須防先事多疑, 須慮後時徒悔.”(이덕무, 「사소절」,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7).

79) “無病無愁, 不可作呻吟顰蹙. 小病小愁, 不可作大呻吟大顰蹙.”(이덕무, 「사소절」,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9).

80) “憂愁, 多出於不如意, 必挾怒並發. 人情往往如此, 可調抑而不可挑激.”(이덕무, 「사소절」,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7).

81) “雖有憂愁忿怒, 不可操擾難耐. 閒居無人, 刺刺咄咄, 自言自語, 如訴如詈.”(이덕무, 「사소절」,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8).

82) “不可因一小愁, 作嚬蹙欲哭之狀. 不可因一小恚, 作吼咆欲罵之容.”(이덕무, 「사소절」,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7).

83) 유권종, 「유교의 상례와 죽음의 의미」, 『철학탐구』 16,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2004; 최기복, 「유교 상예의 근본 의의와 현대적 쇄신」, 『유교사상문화연구』 15, 한국유교학회, 2001; 정긍식, 「조선전기 朱子家禮의 수용과 祭祀承繼 관념」, 『역사민속학』 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도민재, 「晦齋 李彦迪의 예학사상 연구」, 『東洋哲學硏究』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강보승, 「경(敬)과 유교의례(儒

또한 유교적 가부장은 부모, 조상에 대한 경이라는 유교적 규범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형제, 아내에 대해서도 윤리적 규범을 지켜야 한다.

> 1 "관례(冠禮)는 성인(聖人)이 성인(成人)의 도리로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사람에게 성인(成人)의 덕성을 기대하기 위한 의식이다. 「관의(冠義)」에 이르기를 "효(孝), 제(悌), 충(忠), 순(順)의 행실이 확립된 뒤에 사람된 도리를 할 수 있고, 사람된 도리를 할 수 있은 뒤에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관례는 예(禮)의 시작이요, 가례(嘉禮)의 중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84]

> 2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까닭은 남편은 '하늘을 존중하고 땅을 천시한다.'는 천존지비(天尊地卑)의 설을 지키어 스스로 높은 체하여 아내를 억눌러 꼼짝 못하게 하고, 아내는 '나나 저나 동등한데 무슨 굽힐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부동등(夫婦同等)의 뜻을 지키는 데서 연유할 뿐이다. 평시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않으나, 조금만 불화가 생기면 욕설이 분분하고 각기 자존심을 내세우며 다투어 예절을 잃는다. 이들은 자못 하늘과 땅이 비록 높고 낮으나 만물을 기르는 공(功)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른다. 부부는 비록 동등이라 하나 음양(陰陽), 강유(剛柔)의 분수를 어겨서는 안된다. 이것은 평상시에 친밀이 과도하여 서로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기 때문이다."[85]

위 인용문 1은 허전의 『사의』에서 관례의 중요성을 제시한 대목의 일

敎儀禮)로 본 효(孝) 실천과 유교적 영생의 길」, 『유교사상문화연구』 84, 한국유교학회, 2021.

84) "冠禮, 聖人之所以敬人, 以成人之道, 而望人以成人之德也. 故冠義曰, 孝悌忠順之行立, 而后可以爲人, 可以爲人, 而后可以治人. 故曰, 冠者, 禮之始也."(허전, 「성인편(成人篇)」, 『사의(士義)』 권4). 번역은 한국고전의례연구회 역주, 『(국역)사의』, 보고사, 2006, 369면에서 인용하였다.

85) "夫婦之不和, 只緣夫守天尊地卑之說, 欲自高大, 而抑彼不使之容也. 婦人只持齊體之誼, 以爲吾與彼等也, 有何相屈之事哉? 平時諧好之際, 未必如此, 而少失和意, 詬罵紛紛, 各自矜重, 俱失禮敬, 殊不知天地雖云高下, 其化育之功一也. 夫妻縱曰齊體, 剛柔之分, 不可違焉, 只是常時狎近, 不相敬憚之致也."(이덕무, 「사소절」,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8).

부이다. 성인(聖人)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으로는 효(孝)와 제(悌)가 강조되었다. 따라서 유교적 가부장은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간의 우애를 잘 지켜야 한다. 인용문 2는 『사소절』「사전」에서 선비들이 부부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한 대목의 일부이다. 유교적 가부장은 아내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서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정리하자면 유교적 가부장은 외적으로는 언행이 우아하고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 내적으로는 감정을 절제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을 대할 때 공경, 효, 우애, 예의 등의 행위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요컨대 작품에 등장하는 가부장 인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가부장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졌는지를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교적 가부장을 '가족 안에서 아내 또는 자식을 통솔하며, 유교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권력과 책임을 갖는 남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가부장의 개념은 새롭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본고의 필요에 의해 선행연구를 수용해서 정리한 것이다. 다음 절에서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가부장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가부장의 양상

『현씨양웅쌍린기』에 등장하는 가부장의 내면을 분석하기 전에 이 작품에서 어떤 가부장 인물이 등장하고, 가부장 인물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확인한 가부장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가부장의 양상을 알아보고, 이때 등장하는 가부장 인물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고전소설의 가부장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주요 기준으로 '가부장의 인물 유형'과 '가부장의 세대'를 들 수 있다. 우선 가부장 인물 유형에 따라 크게 이상적 가부장과 비이상적 가부장으로 나누어진다.[86] 이상적 가부장은 다시 구분되지 않지만, 비이상적 가부장은 인

86) 이지하, 앞의 책, 13면.

물의 성격에 따라 다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완월회맹연』의 정인광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적 가부장이고,[87] 『양풍전』의 양태백은 첩에게 침혹되어 가문을 유지할 책임을 지지 못하는 우매한 가부장이거나 『어룡전』의 어이관은 후처를 통솔하지 못하여 가문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한 가부장이다.[88] 또한 가부장을 이렇게 고정된 유형으로 분류하는 대신 가부장의 성장에 주목한 논의도 있다.[89]

한편, 가부장은 세대에 따라 1세대 가부장과 2세대 혹은 차세대 가부장으로 나눌 수 있다. 1세대 가부장은 가족 안에 최연장자인 가부장이고, 2세대 가부장 또는 차세대 가부장은 1세대 가부장이 죽은 후 가문의 중심으로 되는 적장자이다. 『유효공선행록』의 유정경은 1세대 가부장이고 그의 장자인 유연은 2세대 가부장이다.[90]

본고는 가부장의 내면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부장의 인물 유형보다는 가부장의 세대를 분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부장의 세대를 기준으로 가부장을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1세대 가부장뿐 아니라 2세대 가부장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1세대 가부장의 아들로서 자기 아내 또는 자식을 통솔할 수 있을 때가 되면 2세대 가부장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가부장 인물을 선정하여 큰 비중으로 등장하는 주요 가부장 인물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인물의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1) 가부장 인물의 설정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가부장의 양상을 알아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다. 바로 서사단락을 살피는 것이다. 『현씨양웅쌍린기』의 서사단락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그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다.[91] 그러나

87) 한길연, 앞의 논문, 2013; 한길연, 앞의 논문, 2021.
88) 이성권, 앞의 책, 142-145면.
89) 황병홍, 앞의 논문; 조혜란, 앞의 논문, 2013.
90) 이성권, 앞의 책; 이지하, 앞의 책, 11-41면.
91) 송성욱, 앞의 논문, 1990; 이지하, 앞의 논문 등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어렵고 가부장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로는 중심인물인 현수문과 현경문 두 명뿐 아니라 다른 보조인물들도 있는데, 기존 논의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양상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적으로『현씨양웅쌍린기』의 서사단락을 살피고 앞서 살핀 가부장의 개념과 비교하여 해당하는 가부장 인물을 선정하고자 한다.『현씨양웅쌍린기』의 순차적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1. 송나라 이부상서 현택지와 이부상서 장구의 딸 장부인은 장남 현수문과 차남 현경문 두 아들을 둔다.
2. 현수문은 참지정사 하세걸의 딸인 하소저와, 현경문은 어사 주명기의 딸인 주소저와 결혼한다.
3. 두 형제는 과거에 응시하여 모두 급제한다.
4. 현수문은 하소저를 좋아해 금슬 좋게 지내나, 현경문은 주소저가 너무 아름답다고 여겨 좋아하지 않아 주소저를 냉대한다.
5. 현경문 부부의 불화를 알아챈 주명기의 부인 후부인이 주명기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주명기는 현경문에게 노여움을 품는다.
6. 이를 눈치챈 현택지도 현경문을 꾸짖고, 사촌 형제 장시중 형제는 현경문을 놀린다. 그러자 현경문은 아버지의 명을 받았다고 하며 주소저와 잠자리를 가지려 한다. 그러나 주소저가 거절하여 둘의 불화가 더 심해진다.
7. 주명기의 조카 육취옥이 현경문에게 반해 계교를 꾸미자 육취옥을 믿는 주명기는 현경문을 크게 꾸짖는다. 육취옥의 계교가 발각되자 현경문은 주명기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8. 육취옥은 등문고를 울려 천자의 명을 받아서 현경문과 결혼하고, 주명기는 육취옥을 도와 계교를 꾸민 시비 능선을 처벌한다.
9. 천자에게 직언을 올려 고향으로 내쳐진 주명기는 현택지의 허락을 받아 딸 주소저를 데리고 고향으로 떠난다.
10. 현경문은 그동안 주소저에게 매정하게 대한 것을 후회한다.
11. 현수문이 외숙 장시랑 집에 있는 윤혜빙이라는 소녀에게 반하여 장시중 형제의 도움으로 그녀를 겁탈한다.
12. 윤소저는 자결하려고 하나 현경문에게 구해져 살아나고, 이 사건을

안 현택지의 도움으로 어렸을 때 헤어진 아버지와 재회하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가 장시랑의 처남 윤기화이다. 후에 윤소저는 현수문과의 혼인을 강요당한다.

13. 장시중 형제는 윤소저가 혼인을 거절할 것이라며 현수문을 조롱한다. 현수문은 이를 부정하지만, 윤소저에게 거절당하고 나서 우려하기 시작한다.
14. 현수문이 재차 윤소저를 제압하여 혼인시키겠다고 말해 윤기화의 허락을 받은 뒤 둘은 혼인하게 된다. 신혼 첫날밤에 윤소저는 귀형녀에게 자기를 가장하게 하여 현수문과 동침시키고 이모 박자사 집으로 도망간다.
15. 현수문은 자신이 귀형녀와 동침한 것을 알고 화를 낸다. 이 일을 안 장시랑은 현수문을 놀린다.
16. 현경문에게 반한 황숙 임강왕의 딸 형아는 남편 여욱이 병자처럼 되어 있는 것이 한스러워 자기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가출한다.
17. 형아는 가출하는 길에 한 주점의 점주 악대호에게 겁탈당한다. 형아는 요승 월청과 결탁하여 주소저를 도적 대호장군에게 팔고 대신 주소저 행세를 한다.
18. 주소저는 대호장군의 집에서 탈출하는 중에 벼랑 아래로 몸을 던진다.
19. 현경문은 돌아온 가짜 주소저의 정체를 알아보고 주소저가 죽은 줄 안다. 현경문은 주소저의 시체를 찾아 장사지내고, 그동안 매정하던 것을 후회하고 죽은 주소저에게 그리움을 품는다.
20. 귀형녀가 딸 현교염을 낳는다.
21. 파촉에서 울지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현수문과 현경문이 출전한다.
22. 주소저는 일광대사에게 구해져 살아나고, 도술을 배운다.
23. 한수문과 현경문은 적장의 요술에 걸려 위기에 처했을 때 남장한 주소저(운유자)의 도움으로 승리한다.
24. 현수문이 집에 돌아온 뒤 윤소저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여 윤부에 찾아간다. 마침 윤소저의 행방을 알아내고 윤기화로 하여금 윤소저를 현부로 데려오게 한다.
25. 현수문은 송신들에게 가마로 윤소저를 태워 오게 한다. 도착한 가마를 보니 안에는 허수아비밖에 없었다. 윤소저는 성운사로 도망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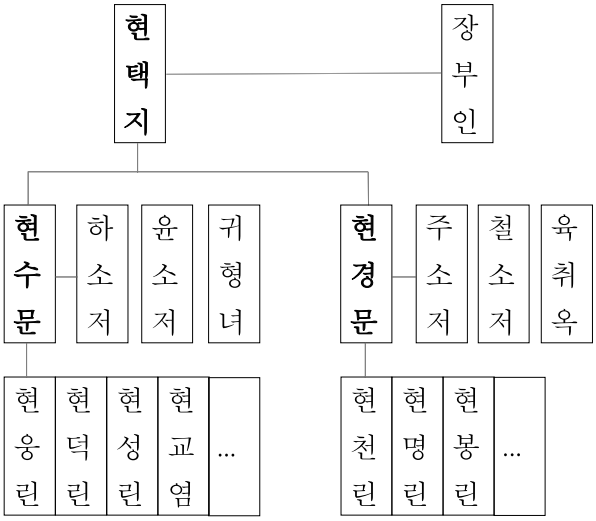
다. 이로 인해 또 한 번 속은 현수문은 웃음거리가 되어 분노가 치민다.

26. 운유자(주소저)는 천신만고 끝에 주부로 돌아오고, 현부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27. 현경문은 주소저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지만 현택지의 명을 받아 호부상서 철호빈의 딸 철소저와 혼인한다.
28. 현경문은 주부에서 사는 운유자가 주소저임을 알아채어 현택지에게 알려준다.
29. 이 사실을 알게 된 천자가 주소저를 원비로, 철소저를 좌빈으로 정하도록 한다.
30. 주소저가 현부로 돌아오자 현경문은 지난날 매정하던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주소저는 여전히 친정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31. 후부인이 시비 영월의 꾐에 빠져 현경문을 모욕하고 찌르려고 하다가 주명기가 나타나 후부인을 가둔다. 이에 현경문은 주소저와 의절을 청하려고 하는데 현택지는 이를 막고 현경문을 타이른다.
32. 주명기는 후부인을 꾸짖은 후 후부인이 시비 영월에게 속았음을 알고 후회한다.
33. 후에 후부인이 병이 나자 주소저는 어머니의 병을 구완하러 주부에 머무르게 된다.
34. 어느 날 현경문이 병들어 죽는다. 주소저가 현부로 돌아와 스스로 희생이 되어 기도하자 현경문은 소생한다.
35. 장시중 형제는 현경문이 부인에게 애걸한다고 조롱하는데 현경문은 자신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장시중 형제가 부인을 두려워한다고 반박한다.
36. 운남국이 반란을 일으키자 현경문은 출전한다. 떠나기 전에 현택지의 암시로 주소저와 억지로 부부관계를 가진다.
37. 요승 월청과 형아는 제남후 조길의 시첩이 되어 조길을 부추겨 반역을 도모한다. 현수문이 출정하여 반란을 평정하고, 형아는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
38. 현경문이 운남국왕과 신하를 개유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39. 월청은 현경문으로 모습을 바꾸어 경사로 돌아와 현경문 행세를 한다. 주소저가 이를 밝혀내고, 월청은 죽임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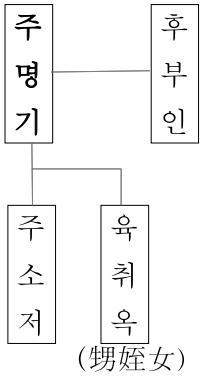
40. 주소저가 임신하나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현경문은 주소저와 말다툼하다가 베개를 던져 주소저의 배를 맞춘다.
41. 현경문은 주소저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주소저에게 사과한다.
42. 윤소저를 그리워하던 현수문은 성운사에서 남장한 윤소저(두혜백)를 만난다.
43. 두혜백이 윤소저임을 알아챈 현경문이 이를 현수문에게 알려준 후, 현수문은 계교를 꾸며 그녀를 모욕한다.
44. 윤소저는 죽어도 현부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를 안 장시중 형제는 윤소저를 개유하고 현수문을 희롱한다. 현택지가 여교 10편을 지어 윤소저에게 보낸 뒤 윤소저는 현부로 돌아오게 된다.
45. 현수문은 윤소저에게 속은 일 때문에 분이 풀리지 않아 윤소저를 많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이를 본 현경문은 윤소저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한다. 후에 현수문과 윤소저는 계속해서 불화한다.
46. 주소저가 아들을 낳은 뒤 후부인은 손자를 보고 싶어하지만 주명기는 그녀를 만류한다. 그러나 후부인은 듣지 않고 현부로 찾아간다.
47. 철소저도 잉태한 것을 본 육취옥은 현경문의 은총을 입기를 바란다. 이에 현택지와 주소저가 현경문을 설득하지만 현경문은 듣지 않는다. 이에 장시랑이 현경문을 취하게 만들어 육취옥과 동침시킨다.
48. 후에 윤소저, 철소저와 육취옥은 다 자식을 둔다.
49. 주명기가 현택지에게 현경문의 차자 명린으로 하여금 계후를 잇게 해 달라고 한다. 현경문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후에 현택지의 명에 따라 이를 허락한다.
50. 현택지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자손들의 영효를 받고, 현수문과 현경문은 오국공, 진국공이라는 벼슬에 오른다.

위의 서사단락 중 앞서 확인한 가부장의 개념에 부합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가족 구성원의 관계도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92]

92) 이에 해당하는 가부장 인물로는 장시랑, 윤기화, 철호빈, 운남왕, 임감왕 등도 있다. 그러나 이들과 이들의 아내 또는 자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서사는 작



[표 1] 현부



[표 2] 주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가부장 인물 중 주요 줄거리와 관련 있는 가부장은 현택지, 현수문 형제, 주명기이다. 이들을 세대에 따라 분류하면 현택지, 주명기는 1세대 가부장이고, 현수문, 현경문은 2세대 가부장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세대 가부장과 2세대 가부장의 양상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부장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가부장과 어떤 인물이 관련을 맺고 있는지, 가부장과 그들에 관련된 가족 구성원의 서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검토하여 가부장의 양상과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2) 1세대 가부장의 양상과 특징

한 가문의 1세대 가부장은 2세대의 가부장의 아버지이며 가문의 최고 가부장이다. 1세대 가부장은 가문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며, '가장'과 같은 의미의 존재라고 볼 수 있다. 1세대 가부장은 자신의 아내 및 자신의 아들인 2세대 가부장뿐 아니라, 2세대 가부장의 아내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에게 권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

품에서 매우 적은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이 인물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1세대 가부장은 현택지와 주명기가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 현택지는 이부상서로서 정직한 인물로 서술되어 있다. 그는 장부인과의 사이에서 장남 현수문과 차남 현경문 두 아들만 두었다. 두 아들이 어리지만 가문의 존속을 위해 각각 하소저와 주소저를 며느리로 맞이한다. 이때 현택지는 장부인, 현수문 형제 및 그들의 아내에게 가장 높은 가부장이다. 현수문은 하소저와 금슬이 좋으나 아름다운 윤소저에게 반하여 그녀를 겁탈한다. 현택지는 이를 안 후 현수문에게 태형을 가하며 크게 꾸짖는다. 하지만 현택지는 현수문을 익애하기도 한다. 후에 그는 윤소저의 정체를 밝혀내고 현수문을 그녀와 혼인시킨다. 두 사람이 결혼한 후 현수문은 윤소저에게 세 번이나 속아 윤소저에게 복수하겠다고 큰소리친다. 현택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 현택지는 윤소저가 현부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고 여교 10편을 지어 윤소저에게 보내 그녀에게 현부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윤소저가 현수문과 계속 불화한다는 것을 알게 된 현택지는 현수문에게 순종하게 하도록 윤소저를 경계한다.

한편 현택지는 현경문과 주소저 부부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경문을 여러 번 꾸짖고 타이른다. 현경문이 주소저와의 불화로 인해 장인 주명기와 갈등을 일으킬 때 현택지는 현경문을 심하게 처벌한다. 한편 육취옥이 등문고를 울려 천자에게 현경문과 혼인하게 해 달라고 청할 때 처음에는 현택지는 이를 거절하지만 천자의 명으로 육취옥을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주소저가 죽은 줄 알고 나서 하인에게 주소저의 시신을 찾아내 장례를 치르라고 명령한다. 이때 그는 정실부인이 없는 현경문을 위해 철소저를 며느리로 맞이한다. 주소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 현택지는 직접 주소저에게 현부로 돌아오라고 명한다. 그는 현경문에게 훈계하여 현경문과 주소저가 부부관계를 맺게 한다. 또한 현택지는 처녀인 육취옥을 가엾게 여겨 현경문에게 그녀와 동침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주명기는 어사로, 강직하고 도량이 좁으며 성급한 사람이다. 주명기와 후부인 사이에는 딸 주소저 한 명밖에 없다. 조카 육취옥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삼촌인 주명기 집에서 산다. 이를 고려하면 주명기는 주소

저와 육취옥이 결혼하기 전까지 이들에 대해 가부장의 권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소저는 현경문과 결혼하지만, 육취옥은 13세가 되어도 시집가지 못한다. 그래서 육취옥은 현경문에게 시집가기 위해 현경문이 자신을 유혹하려 했다는 거짓말을 한다. 진실을 알게 된 주명기는 육취옥을 경계하고 육취옥을 도와준 시비를 처벌한다. 후에 육취옥은 스스로 등문고를 울려 황제의 명을 받아 현경문과 결혼하게 된다. 딸과 조카가 결혼한 후 주명기는 아내 후부인에 대해서만 가부장 역할을 하게 된다. 후부인이 시비 영월의 꾐에 빠져 현경문을 모욕한다. 주명기는 후부인을 제지하지만, 후부인과 오랫동안 말다툼을 한다. 더불어 후부인이 외손자를 만나보러 가고 싶어할 때 주명기는 후부인을 말리지 못한다. 작품 말미에 주명기는 주문(朱門)의 계후를 잇게 하기 위해 외손자 현명린을 양자로 삼는다.

주명기의 가정 내 갈등 서사는 작품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주명기가 2세대 가부장인 현경문과 주소저 부부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현경문과 갈등하는 서사는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소저가 결혼 후 현경문에게 냉대 받는 것을 알고 분노한 주명기는 주소저가 아프다는 핑계를 삼아 딸을 현부로 보내지 않는다. 또한 그는 현경문과 주소저의 불화를 모르는 현택지에게 사실을 은근히 알려주고 딸을 냉대하는 현경문을 비꼰다. 또한 주명기는 가짜 주소저로 위장한 형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형아의 말만 믿은 결과 현경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작품 말미에 주명기는 현경문과 주소저가 화목한 모습을 보고 그지없이 흐뭇하다.

지금까지 1세대 가부장들의 서사를 종합해 살펴본 결과, 1세대 가부장들이 주로 자식과 관련한 2세대 가부장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서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세대 가부장은 아내와 관련된 서사가 있지만 이 서사가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해당 가부장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식을 징계하여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자식의 혼인 결정 또는 양자의 입양을 통해 가계를 계승함으로써 가부장의 부권(父權)을 행사한다. 또한 이들의 자

식과 관련된 서사는 현택지와 주명기의 말과 행동 등 외면적 묘사를 통해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3) 2세대 가부장의 양상과 특징

한 가문의 2세대 가부장은 1세대 가부장의 아들로서 1세대 가부장 이상의 권력을 가질 수 없으나 2세대 가부장의 아내 또는 자식을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2세대 가부장으로는 현수문과 현경문이 있다.

먼저 2세대 가부장인 현수문을 살펴보자. 작품의 서두에서 그는 씩씩하고 엄숙하며 부드러운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현택지의 장남으로, 하소저, 윤소저와 귀형녀 1처 2첩을 맞아들였다. 작품 결말에 그는 하소저와 4남 1녀, 윤소저와 3남 1녀, 귀형녀와 1녀를 두었다. 현수문은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더라도 미인을 얻겠다고 할 정도로 여색에 관심을 가진다. 그가 정실부인 하소저와 처음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에 기뻐하여 그녀와 사이좋게 지냈다. 외숙 집에서 아름다운 윤소저를 보고 반해서 첩으로 들여 달라고 삼촌 형제에게 부탁한다. 현수문은 윤소저를 겁탈한 뒤 크게 즐거워한다. 이 일이 발각된 후 현수문은 아버지 현택지에게 처벌받는다. 후에 현택지의 주선으로 현수문이 윤소저와 혼인하게 된다. 장시중 형제가 윤소저가 현수문을 거절할 것이라고 조롱할 때, 현수문은 겉으로는 자신만만한 체하지만 막상 윤소저에게 거절당하자 걱정하기 시작한다. 결국 현수문은 윤소저를 강압하여 혼인을 성사시킨다. 현수문은 윤소저와 결혼하는 날에 그녀에게 속아 귀형녀와 동침하여 주위의 웃음거리가 된다. 훗날 현수문은 윤소저에게 두 번이나 속는다. 속은 현수문은 매번 매우 분해한다. 게다가 장시중 형제와 그들의 아버지에게 놀림을 받자, 현수문은 윤소저에게 반드시 설치(雪恥)하겠다고 더욱 굳게 다짐한다. 결국 그는 윤소저에게 복수하고 나서야 마음이 후련해진다.

다른 2세대 가부장은 현경문이다. 작품의 서두에서 현경문은 엄숙하고

굳세며 차가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현경문은 현택지의 차남으로 주소저, 철소저와 육취옥 1처 2첩을 맞아들인다. 작품 결말에 그는 주소저와 3남 1녀, 철소저와 4남, 육취옥과 1녀를 두게 된다. 그는 처음에 주소저가 너무 아름답다고 여겨 주소저를 냉대한다. 딸이 현경문에게 박대를 받고 있다고 여긴 주명기 부부는 현경문에게 불만을 품는다. 부부 불화로 장시중 형제의 놀림을 받고 현택지의 꾸짖음을 들은 현경문은 주소저와 동침하려고 하나 실패하고 만다. 한편 현경문에게 반한 육취옥은 계교를 꾸미다 발각된 후 천자에게 현경문과 결혼시켜 줄 것을 청한다. 결국 현경문은 천자의 명을 받아 육취옥을 맞아들인다. 그러나 현경문은 육취옥을 두통거리로 생각하여 멀리한다. 훗날 주소저가 고향으로 떠나자 현경문은 주소저에게 매정하게 군 것을 후회하고 주소저를 그리워하기 시작한다. 주소저가 납치되어 종적이 묘연해진 후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자 현경문은 그녀가 죽은 줄 안다. 장시중 형제가 주소저를 그리워한다고 놀리자, 현경문은 이를 부정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슬픈 감정을 드러낸다. 이때 처실(妻室)이 없는 현경문은 현택지의 명으로 철소저를 부인으로 맞아들인다. 그는 살아있는 주소저와 재회한 뒤 겉으로는 주소저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뻐한다. 장시랑과 장시중 형제에게 앵혈을 찍히게 된 현경문은 계속 주소저와 동침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그러다 출정 전에야 현택지의 명을 받아 강제로 주소저와 부부관계를 맺는다. 또한 장시랑의 주선으로 현경문은 육취옥과 동침하게 된다.

지금까지 2세대 가부장의 서사를 정리한 결과, 2세대 가부장들이 주로 각각의 부인들과 갈등하고 화합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세대 가부장과 그 자식에 관한 이야기는 작품 전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해당 가부장들은 1세대 가부장인 현택지의 아들로, 작품의 중심인물에 해당한다. 그들은 가부장의 부권(夫權)을 가지고 각각 여주인공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여주인공에게 속거나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된 서사에서는 현수문과 현경문의 내면이 중점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지금부터 2세대 가부장에 대한

묘사와 여성 인물에 대한 묘사를 비교하면서, 2세대 가부장의 내면이 묘사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현수문 부부서사의 한 장면을 살펴보자.

① 추시 윤소제 평싱 졍심(貞心)을 허러 현어ᄉᆞ의 두 번 모욕(侮辱)이 동히슈(東海水)ᄅᆞᆯ 기우려 ᄡᅵ셔도 능히 빙쳥옥결(氷淸玉潔) ᄀᆞᆺ튼 ᄆᆞ음이 도라오지 아닐지라 비분앙통(悲憤怏痛)ᄒᆞ여 유ᄉᆞ지심(有死之心)ᄒᆞ고 무싱지의(無生之意)러니 ᄯᅩ 다시 져의 빈실의 도라가니 각골지원(刻骨之怨)ᄒᆞ여 좌ᄉᆞ우샹(左思右想)ᄒᆞ여 일계ᄅᆞᆯ 엇고 ᄉᆞᄉᆞ로 깃거 샹잉을 알ᄑᆡ니ᄅᆞ고 귀혜 ᄃᆡ여 여ᄎᆞ여ᄎᆞ(如此如此)ᄒᆞᆯ ᄯᅳᆺ을 닐오니 잉이 놀나 ᄉᆞ리 불가(不可)ᄒᆞ믈 간(諫)ᄒᆞ니 쇼제 믄득 벽샹(壁上)의 칼을 ᄲᅵ혀...(후략)[93]

② 어ᄉᆡ 쳥파(聽罷)의 윤시 ᄌᆞ가(自家)ᄅᆞᆯ ᄒᆞᆫ 어린 아ᄒᆡ(兒孩) ᄀᆞᆺ치 쇽이듯 ᄒᆞ고 져런 츄악(醜惡)ᄒᆞᆫ 거ᄉᆞ로 ᄌᆞ가(自家) 죠ᄒᆞᆫ 몸을 욕(辱)ᄒᆞ여 텬하(天下) 긔쇼(譏笑)ᄅᆞᆯ ᄃᆞᆺ게 ᄒᆞ믈 싱각ᄒᆞ니 심간(心肝)이 ᄭᅱ놀고 분뇌(憤怒) ᄇᆡᆨ쟝(百丈)이나 놉흐니 좌우(左右)로 귀형(鬼形)을 ᄃᆞ려오라 ᄒᆞ고 바로 내당(內堂)의 드러오니 츄밀(樞密) 부뷔(夫婦) ᄀᆞᆺ 니러 녀ᄋᆞ(女兒)의 지금 ᄂᆞ오지 아니믈 고이 너기더니 현어ᄉᆡ 만면(滿面) 노긔(怒氣)로 당(堂)의 올나 고셩대ᄆᆡ(高聲大罵) 왈, “공(公)이 년긔(年紀) 노쇠(老衰)ᄒᆞ시고...(중략)...분긔(憤氣) 대발(大發)ᄒᆞ여 손으로 난간(欄杆)을 두ᄃᆞ리니 ᄎᆡ식(彩色)을 아루ᄉᆞ린 거시 다 ᄯᅥ러지고 발로 마루ᄅᆞᆯ 구ᄅᆞ니 쳥널이 어ᄌᆞ러니 ᄲᅧ지ᄂᆞᆫ지라 밍회(猛虎) 림중(林中)의셔 파람ᄒᆞ미 아니면 교룡(蛟龍)이 여의쥬(如意珠)ᄅᆞᆯ 닷ᄐᆞᆷ ᄀᆞᆺᄐᆞ니 위풍(威風)이 규규(赳赳)ᄒᆞ여 불감양시(不敢仰視)러라 츄밀(樞密)과 부인(夫人)이 실식(失色)ᄒᆞ여 미쳐 ᄯᆞᆯ 닐허 놀ᄂᆞ오믄 잇고 싱의 호령(號令)의 훈(魂) 아여 부인(夫人)은 ᄒᆞᆫ 구셕의 지쳐 안고 츄밀(樞密)은 눈을 두려지 ᄯᅥ 어ᄉᆞ와 귀형(鬼形)을 마죠 볼 ᄲᅮᆫ이니 이러구러 가즁(家中)이 믈 ᄯᆞᆯᄐᆞᆺ ᄒᆞ다 댱싱이 져므러 가지 못ᄒᆞ고 윤싱들로 더브러 자드니 대경(大驚)ᄒᆞ여 일시의 드러와 보니 싱의 쟉난(作亂)이 비샹(非常)ᄒᆞ여 츄밀(樞密)ᄃᆞ러 ᄯᆞᆯ 어더

93) 인용문은 앞서 선본으로 지정한 낙선재본에서 가져왔다. 이후의 인용문은 별도의 표기 없이 낙선재본의 권수와 면수만을 제시할 것이다. 권3, 24b-25a. 이하 인용문의 강조 및 밑줄 표시는 필자.

니라 ᄒᆞ니 다 아ᄂᆞᆫ지라 모ᄃᆞ 셔셔 굿 볼 ᄲᅮᆫ이오 싱의 노(怒)ᄒᆞᆫ 셩(性)이 렬화(熱火) ᄀᆞᆺᄐᆞ여 능히 말이지 못ᄒᆞ나 일변 귀형(鬼形)의 거동을 보니 우음이 ᄂᆞ더라 츄밀(樞密)이 겨유 ᄂᆞᆯᄂᆞᆫ 거술 졍(正)ᄒᆞ여 귀형(鬼形)을 불너 연고(緣故)ᄅᆞᆯ ᄌᆞ시 고(告)ᄒᆞ라 ᄒᆞᆯ ᄉᆞ이 현ᄉᆞ인(舍人)이 형(兄)의 오지 아니믈 고이 너겨 됴회(朝會) 길의 밧긔 왓ᄃᆞ ᄒᆞ니 샤인(舍人)이 ᄂᆡ당(內堂)으로 드러오라 ᄒᆞ믈 고이히 너겨 ᄉᆞ양(辭讓)ᄒᆞ니 윤싱이 위력(威力)으로 잇ᄯᅳ러 드러올ᄉᆡ 례뫼(禮貌) 빈빈(彬彬)ᄒᆞ고 힝동이 유법(有法)ᄒᆞ여 쇄금션ᄌᆞ(碎錦扇子)로 옥면(玉面)을 가리와 당(堂)의 올나 공(公)을 향(向)ᄒᆞ여 례(禮)ᄒᆞ고 어ᄉᆞᄅᆞᆯ 도라보니 만면(滿面) 노긔(怒氣)로 소셰(梳洗)도 아니코 관(冠)만 머리의 언고 셔시나 난간(欄杆) 머리 ᄭᅮᆷ민 거시 다 브러지고 쳥샹(聽上)이 다 ᄯᅥ러졋ᄂᆞᆫ지라[94]

인용문 ①과 ②의 밑줄을 친 부분은 혼롓날에 각각 윤소저와 현수문의 내면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두 부분을 비교하면 현수문의 내면묘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문 ①에서 윤소저의 원통함과 기쁨을 서술하고 있지만, 그 분량은 적은 편이다. 반면 인용문 ②에서는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현수문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내면을 묘사하는 수법[95]이라는 면에서도, 현수문의 내면에 대한 묘사 수법이 더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윤소저에 대한 내면묘사 수법은 내적독백을 비롯한 직접묘사가 전부이다. 반면 현수문의 내면을 묘사할 때는 내적독백을 비롯한 직접묘사는 물론 간접묘사도 사용된다. 윤추밀과의 대화와 그때의 말씨가 묘사되고, 현수문의 폭력적인 행동도 묘사된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일으킨 혼란스러운 광경에 대한 환경묘사도 있다. 이렇듯 현

94) 권3, 27b-29b.

95) '내면묘사'란 문학, 특히 소설에서 작중인물의 기분이나 심리, 감정, 잠재적 의식 등 내면을 묘사하는 방법을 말한다(신희천; 조성준 편저, 『문학용어사전』, 청어, 2001, 112면; 조미숙, 『현대소설의 인물묘사방법론』, 한국학술정보, 2007, 23-30면 참조). '심리묘사'란 소설에서 작중인물의 심리 상태나 심리의 변화를 묘사하는 방법을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www.korean.go.kr). 따라서 엄밀히 말해 '내면묘사'는 '심라묘사'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묘사의 기법에 대한 논의를 내면묘사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심리 묘사의 기법은 제Ⅲ장에서 다시 상론할 것이다(현룡순, 『소설창작론』, 한국학술정보, 2006, 85-91면 참조).

수문의 내면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경문 부부서사의 경우도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ᄎᆞ일 샹셰 ᄉᆡᆼ을 불너 ᄌᆡ셩각으로 보내니 ᄉᆡᆼ이 노ᄒᆞ미 ᄋᆡᆨ구ᄌᆞᆫ 쇼져의게 도라가 크게 치부(置簿)ᄒᆞ고 이시나 부명을 향거(抗拒)치 못ᄒᆞ여 쥬시로 샹ᄃᆡ(相對)ᄒᆞᄆᆡ 그 ᄌᆡ용셩덕(才容性德)을 감동치 아니미 아니로ᄃᆡ 그 아ᄇᆡ 죄를 ᄲᆞᆯ의게 아니 ᄡᅩ고 어ᄃᆡ 년좌(緣坐)하리오 ᄒᆞᄆᆡ 금셕 ᄀᆞᆺ튼 구든 ᄆᆞ음이 더욱 어려오니 대강 부〃 량ᄋᆡᆨ(兩厄)이 기리가 리엿시미라 ᄉᆡᆼ의 ᄂᆡᆼ안(冷眼)이 죠동(早動)ᄒᆞ여 오ᄅᆡ도록 말이 업더니 믄득 불러 왈, “네 쥬인을 ᄲᆞᆯ니 나리와 명을 드ᄅᆞ라” ① 긔식이 ᄉᆡ외의 찬 바ᄅᆞᆷ이 니러나 ᄲᆞᆫ를 부는 ᄃᆞᆺᄒᆞ니...(중략)...쇼졔 날ᄒᆞ여 니ᄅᆞᄃᆡ, “주군의 나를 하당(下堂)ᄒᆞ미 일홈이 이실거시오 비록 미약ᄒᆞ나 한님의 팔좌(八座) 명부(命婦)오 만일 죄 잇다 ᄒᆞ여 례츌(禮出) 잉쳡ᄒᆞ여 신즉 명을 드ᄅᆞ려니와 불연즉(不然則) 나리지 못ᄒᆞ리로다”...(중략)...ᄉᆡᆼ이 중타(重打)ᄒᆞ여 물니치고 쇼져를 나려 명(命)을 드ᄅᆞ라 ᄒᆞ니 긔식이 츄텬(秋天)의 한월(寒月)이 교〃(皎皎)ᄒᆞ고 삭풍(朔風)이 니는 ᄃᆞᆺᄒᆞ니 ᄎᆞ고 어려온 빗치 ᄉᆞ좌(四座)의 ᄡᅩ이나 ② 쇼져는 조금도 어려온 빗치 업셔 ᄌᆞ약(自若)ᄒᆞ니 ③ ᄉᆡᆼ이 경아(驚訝)ᄒᆞ여 ᄉᆡᆼ각ᄒᆞᄃᆡ, ‘이 녀ᄌᆡ 강렬(强烈)ᄒᆞ미 용널(庸劣)ᄒᆞᆫ 남ᄌᆞ는 졔어(制御)키 어렵도다’ ᄒᆞ며 더욱 단속(團束)ᄒᆞᆯ ᄯᆞᆺ이 급ᄒᆞᄃᆡ 부뫼 아ᄅᆞ실가 져허 쇼ᄅᆡ를 나즉이 ᄒᆞ여시나 옥면(玉面)은 ᄎᆞᆫ ᄌᆡ ᄀᆞᆺᄐᆞ니 쇼졔 가연히 ᄆᆞᆷ을 니러 관피옥결(冠佩玉玦)을 그ᄅᆞ고 중계(中階)의 나려서ᄂᆞᆫ지라 ᄉᆡᆼ이 비로쇼 분을 나리와 ᄆᆡ셩(罵聲) 문왈, “녀ᄌᆞ의 덕은 교요ᄒᆞ고 온중(穩重)ᄒᆞ미 귀ᄒᆞ거ᄂᆞᆯ 기간 허다 괴피지상(乖悖之狀)은 니ᄅᆞ지 말고...(중략)...” 쇼졔 텽파(聽罷)ᄋᆡ 슉연이 칭샤(稱謝) 왈, “군언(君言)이 ᄌᆞ당감쉬(自當甘受)라 유구무언(有口無言)이어니와 다만 협긔(俠氣)의 왕양(汪洋)ᄒᆞ미 만코 군ᄌᆞ의 덕이 젹의니 기리 불복(不復)ᄒᆞ나이다”..(중략)...④ ᄉᆡᆼ이 다시 ᄒᆞᆯ 말이 업셔 묵연(默然) 졍ᄉᆡᆨ(正色)ᄒᆞ나 진실노 구ᄅᆞᆷ ᄀᆞᆺᄐᆞᆫ 은졍(恩情)이 업ᄂᆞᆫ지라 이러구러 밤이 깁흐ᄃᆡ 쇼져를 쳥(請)ᄒᆞ여 오르라 ᄒᆞ미 업더니 문득 풍위ᄃᆡ쟉(風雨大作)ᄒᆞ고 우ᄅᆡ(雨雷) 쇼ᄅᆡ 진동(震動)ᄒᆞ며 쳠하(簷下)의 어ᄌᆞ러이 드르치니 쇼져의 신상(身上)의 난만히 ᄡᅩ이ᄃᆡ 좌ᄎᆞ를 기웃도 아냐 팔졍 ᄭᆞᆺ고 단졍히 셧시니 찬 긔운이 계변(階邊)의 ᄆᆡ화(梅花)를 니긔ᄂᆞᆫ지라 ⑤ ᄉᆡᆼ이 일단

경녀(驚慮)ᄒᆞ미 이시ᄃᆡ 그 거동을 보려 쳥이불문(聽而不聞)ᄒᆞ고 ᄌᆞ개 ᄯᅩᄒᆞᆫ 금침(衾枕)을 찻지 아녀 거챵(居窓) 단좌(端坐)ᄒᆞ여 밤을 ᄉᆡ올 거동을 ᄒᆞᆯᄉᆡ 잇ᄯᅡ 쵸동(初冬) 십월이라 텬긔(天氣) ᄃᆡ한(大寒)ᄒᆞ여 겹〃 모의(毛衣)ᄅᆞᆯ 닙고 더운 방(房)의 잇셔도 치울지라 쇼져ᄂᆞᆫ 계졍(階庭)의 셧시ᄆᆡ 나삼(羅衫)과 션삼(線衫)의 비 ᄯᅥ러져 경긱(頃刻)의 어름이 되고 ᄉᆡᆼ은 거챵(居窓)ᄒᆞ여 안져시니 치운 긔운이 골졀(骨節)을 부우ᄂᆞᆫ ᄃᆞᆺᄒᆞᆫ ᄃᆡ 량인(兩人)이 텬ᄉᆡᆼ일ᄃᆡ(天生一對)라 ᄌᆞ금도 어려온 빗치 업시 ᄉᆡᆼ의 거동은 구츄샹텬(九秋霜天) ᄀᆞᆺ고 쇼져ᄂᆞᆫ 셜니ᄆᆡ화(雪裏梅花) ᄀᆞᆺᄐᆞ니 모든 시비(侍婢) 챵황(惝怳)ᄒᆞ나 어ᄃᆡ 가 ᄒᆞᆫ 말을 ᄒᆞ리오 져히도 ᄀᆞᆺ치 비맛고 셧실 ᄲᅮᆫ이오 냥파(婆)ᄂᆞᆫ 느러지게 마ᄌᆞ 쳠하(簷下) 기ᄉᆞᆯᄋᆡ 브ᄃᆡ져 업ᄃᆡ여시니 ᄎᆞ시(此時) 경샹(景狀)이 가쟝 슈참(愁慘)ᄒᆞᆫ지라...(중략)...이ᄯᅡ 학ᄉᆞᄂᆞᆫ 친우(親友)의 연히(宴會)의 가고 하쇼졔 이 일을 아나 슈〃(嫂嫂) ᄉᆞ이의 혐의(嫌疑)에 구ᄋᆡᄒᆞ니 비록 련측(憐惻)ᄒᆞ나 구ᄒᆞᆯ 계긔 업셔 ᄒᆞᄆᆡ 이러구러 효계(曉雞) 악〃(喔喔)ᄒᆞ거ᄂᆞᆯ ᄉᆡᆼ이 ᄆᆞᆷ을 니러보니 ᄌᆞ긔(自己)ᄂᆞᆫ 방즁(房中)의 안져시ᄃᆡ 칩기 골졀(骨節)을 부ᄂᆞᆫ ᄃᆞᆺᄒᆞ고 ᄋᆞᄉᆡ 어름이 곳곳지 잇거ᄂᆞᆯ 쇼져ᄂᆞᆫ 바로 당젼(堂前)ᄒᆞ여 셔시니 만신(滿身)이 다 어름이 되여시ᄃᆡ 옥면(玉面) 츄파(秋波)의 효셩(曉星)이나 ᄌᆞᆨᄒᆞ고 단슌(丹脣)을 구지 함묵(含默)ᄒᆞ여 비컨ᄃᆡ 셜(雪)만 궁항(窮巷)의 고숑(古松)이 독닙(獨立)ᄒᆞᆷ ᄀᆞᆺᄐᆞᆫ지라 ᄉᆡᆼ이 시ᄋᆞ(侍兒)ᄅᆞᆯ 명(命)ᄒᆞ여 쇼져ᄅᆞᆯ 뫼셔가 슈〃(嫂嫂)긔 환후(患候)ᄅᆞᆯ 아라 오라 ᄒᆞ고 쥬시 계졍(階庭)의 나리ᄆᆡ 팔흘 미러 보ᄂᆡᆫ 후 비로쇼 방즁(房中)의 드러 안ᄌᆞ 모구(毛具)ᄅᆞᆯ 나리와 닙고 그윽이 ᄌᆞ기(自己)의 힝ᄉᆞ(行事)ᄅᆞᆯ 우으며 ⑥ 쇼져의 거동을 도로혀 츄연(惆然)ᄒᆞ여 ᄉᆡᆼ각ᄒᆞᄃᆡ, 'ᄂᆡ ᄌᆞ쇼(自少)로 셩졍(性情)이 인약(仁弱)ᄒᆞ여 지어(至於) 노복(奴僕)의게도 혹벌(酷罰)을 ᄡᅳ지 아냣거ᄂᆞᆯ 쥬시ᄂᆞᆫ 경국(傾國) 귀(貴) 쇼져라 ᄒᆞ믈며 부모의 독녀(獨女)로 바ᄅᆞᆷ만 ᄆᆡ이 부러도 촉샹(觸傷)ᄒᆞᆯ가 두릴 거시어ᄂᆞᆯ 앗가 그런 치위의 우셜(雨雪)을 무릅ᄡᅵ 일야(一夜)ᄅᆞᆯ 지ᄂᆡ게 ᄒᆞ니 군ᄌᆞ(君子)의 인덕(仁德)이 아니오 ᄯᅩᄒᆞᆫ 슈(數) 삼ᄌᆡ(三載) 날노 더브러 부〃지낙(夫婦之樂)을 니ᄅᆞ지 말고 ᄒᆞ로도 일방(一房) 즁(中)의 화평(和平)히 ᄃᆡᄒᆞ여 본적이 업ᄉᆞ니 내 도로혀 젹불션(積不善)의 일을 힝(行)ᄒᆞᄂᆞᆫ도다' ᄒᆞ고 ᄉᆞᄉᆞ로 심ᄉᆞ(心思)ᄅᆞᆯ 어루만져 좌ᄉᆞ우샹(左思右想)ᄒᆞᆯ ᄉᆞ이의 효긔(曉雞) 늉늉(隆隆)ᄒᆞ고 금계(金雞) 빈챵(頻唱)ᄒᆞ니...(후략)[96]

위 인용문은 현경문과 주소저 부부가 싸우는 장면이다. 인용문 ①③④⑤⑥은 현경문의 내면묘사이고 인용문 ②는 주소저의 내면묘사이다. 두 부분을 비교하면 현경문의 내면묘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 ②에서 현경문이 시비 등을 때리는 과정에서 주소저의 흔들림 없는 내면을 한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반면 인용문 ①③④⑤⑥에서는 현경문의 내면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현경문이 주소저에게 명을 내리는 대목에서는 현경문의 엄숙한 태도가 드러난다. 주소저가 명에 불순종할 때 현경문은 놀라고 걱정하는 심리를 드러낸다. 주소저를 제어하지 못할 때는 슬퍼하고 고민한다. 이처럼 현경문 부부서사에서도 가부장인 현경문의 내면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요컨대 2세대 가부장을 둘러싼 부부서사에서는 여주인공에 비해 가부장의 내면묘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부 갈등의 서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현수문과 현경문의 내면묘사가 자세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부부서사에서 현수문과 현경문의 내면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를 다음 장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96) 권1, 40a-44b.

Ⅲ. 내면의 양상과 분석

앞서 제Ⅱ장에서 작품 속 가부장 인물의 존재 양상을 알아보았다. 이 작품에는 여러 가부장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그려지는 가부장 인물은 2세대 가부장인 현수문과 현경문이다. 이 두 가부장과 그 자식의 이야기가 작품 전체를 통틀어 거의 등장하지 않는 반면, 그 부인들과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또한 부부서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부장의 내면이 비중 있게 서술된다. 그들의 내면묘사는 단지 부부 갈등이 발생할 때뿐 아니라 부부서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해진다. 이 장에서는 2세대 가부장인 현수문과 현경문 두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물의 내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면은 '외면'의 반대말로, '외면'은 '겉에 있거나 보이는 면'을 뜻한다. 내면은 사전적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정신적·심리적 측면"[97]을 뜻한다. 즉 내면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내적 심리나 정신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면은 자기 외의 다른 사람은 추측할 수 있을 뿐 알 수는 없는 사적 영역이다.[98]

그렇다면 소설 속 인물의 내면을 추측할 수 있는 표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박희병은 전기소설에서 인물의 미묘한 내적 심리와 감정을 담화보다는 시(詩), 사(詞)나 편지를 통해 더 섬세하게 표출한다고 주장하였다.[99] 전기화는 한글장편소설에서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지적하였는데, 하나는 인물의 내적독백이고 다른 하나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대한 논평이다.[100] 한편, 앞서 제Ⅱ장 제2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소설에서 심리를 묘사하는 기법에 대한 논의를 내면

97) 표준국어대사전, www.korean.go.kr.
98)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12, 276면.
99)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41-43면.
100) 전기화, 앞의 논문, 55면.

묘사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심리 묘사의 기법은 직접적 심리묘사와 간접적 심리묘사로 분류된다.[101] 직접적 심리묘사는 인물의 생각, 착각, 환각, 회상(回想), 꿈 등을 매개로 심리를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기법을 말한다. 간접적 심리묘사는 인물의 행동, 말씨,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시문(詩文), 인물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곳의 환경이나 분위기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추론하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한글장편소설이 인물의 내면을 긴 분량으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언행과 불일치하는 인물의 속마음과 시시각각 변하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한다는 특징[102]을 고려하면, 단일한 방법으로 인물의 내면에 접근할 때는 인물의 내면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계승하여 위와 같은 내면 표현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작품에 나타나는 현수문과 현경문의 내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분노에 잠재한 불안

현수문은 하소저, 윤소저, 귀형녀와 결혼한다. 작품의 서두에서 그는 씩씩하고 온화하며 말수가 적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103] 현수문은 하소저를 처음으로 만날 때 마음속으로 하소저가 “진짓 관관(關關)ᄒᆞᆫ 뚝이라 ᄯᅩᄒᆞᆫ 쳐궁(妻宮)이 하등이 아니로다”[104]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다. 하소저는 공손하게 듣기만 하고, 현수문은 웃으며 침상에 올라가 하소저와 부부관계를 가진다. 이후 현수문이 윤소저를 첩으로 얻으려 할 때 하소저의 의견을 묻자 그녀는 어진 여자라면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에 현수문은 하소저를 사랑하는 감정이 깊어진다. 이처럼 현수문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하소저를 부드럽게 대

101) 이하 심리 묘사의 기법에 대한 논의는 현룡순, 앞의 책, 85-91면 참고.
102) 전기화, 「한국고전소설 형식의 몇 가지 문제-서술자의 권위와 인물의 내면 서술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5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3, 122면.
103) “쟝ᄌᆞ 슈문은 활대(闊大) 쉭〃ᄒᆞ고 침묵(沈默) 언희(言稀)ᄒᆞ여 화긔 온ᄌᆞ(溫慈)ᄒᆞ고...(후략)”(권1, 1a).
104) 권1, 4b.

하고 그녀와 화목하게 지낸다.

반면 윤소저에 대한 현수문의 태도는 부드럽지 않다. 처음에는 노비의 딸인 줄 알았던 윤소저에게 반한 현수문이 그녀에게 강제로 첩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자, 윤소저는 머리를 벽에 부딪쳐 자살을 시도한다. 그럼에도 현수문은 위력으로 윤소저를 겁탈한다. 윤소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가 현경문에 의해 살아난 후, 그가 시랑 윤기화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후 윤소저는 결국 현수문과 결혼하게 되지만, 둘은 계속 불화한다.

이처럼 하소저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과 달리, 현수문은 윤소저에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그녀와 갈등한다. 현수문과 윤소저의 갈등은 작품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수문과 윤소저 부부의 갈등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윤소저의 속임수라 할 수 있다. 윤소저는 현수문과의 결혼 이후 세 번이나 속임수를 사용한다.[105] 그런데 작품은 '윤소저의 속임수'라는 사건을 서술할 때마다 현수문의 내면적 반응을 제시함으로써 부부 갈등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현수문 부부의 갈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수문의 내면묘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서사에서 현수문의 내면묘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 분노가 주로 표출되고 ② 분노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행위가 이어진다. 『현씨양웅쌍린기』에서 현수문의 이러한 내면은 윤소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를 찾고,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현수문의 내면이 세 차례에 걸쳐 표현된다. 우선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자.

> 1 어시 쳥파(聽罷)의 윤시 ᄌᆞ가(自家)를 ᄒᆞᆫ 어린 아히(兒孩) ᄀᆞᆺ치 속이듯 ᄒᆞ고 져런 츄악(醜惡)ᄒᆞᆫ 거ᄉᆞ로 ᄌᆞ가(自家) 죠ᄒᆞᆫ 몸을 욕(辱)ᄒᆞ여 텬하(天下) 긔쇼(譏笑)를 ᄃᆞᆺ게 ᄒᆞ믈 ᄉᆡᆼ각ᄒᆞ니 심간(心肝)이 ᄭᅱ놀고 분뇌(憤怒) ᄇᆡᆨ장(百丈)이나 놉흐니 좌우(左右)로 귀형(鬼形)을 ᄃᆞ려오라 ᄒᆞ고 바로 내당(內堂)의 드러오니 츄밀(樞密) 부뷔(夫婦) ᄀᆞᆺ 니러 녀ᄋᆞ(女兒)의 지금 ᄂᆞ오지 아니믈 고이 너기더니 현어ᄉᆡ 만면(滿面) 노긔(怒氣)로 당(堂)의 올

105) 서사 후반에 현수문은 윤소저를 두 번이나 속이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부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고셩대ᄆᆡ(高聲大罵) 왈, “공(公)이 년긔(年紀) 노쇠(老衰)ᄒᆞ시고 지위(地位) ᄌᆞ쳔의 거(居)ᄒᆞ여 요괴(妖怪)로온 ᄯᆞᆯ노 동심(同心)ᄒᆞ여 더러온 쳔(賤)ᄒᆞᆫ 년을 내 침쇼(寢所)의 보내고 윤가(家) 악죵(惡種)은 어ᄃᆡ 감쵸와 게시뇨 나ᄅᆞᆯ 나므ᄅᆞ 맛지 아닐진ᄃᆡ 그져 물니고 댱가(張家)의 쳡(妾)으로 팔며 니가(李家)의 안ᄒᆡ로 쥬어도 말니지 아닐 거시여ᄂᆞᆯ 져 년을 ᄃᆡ신(代身)ᄒᆞ여 날 욕(辱)ᄒᆞ기ᄅᆞᆯ 남은 ᄯᅡ히 업게 ᄒᆞ니 이졔 윤녀(女)ᄅᆞᆯ 은금(銀金)을 몃 냥(兩)이나 밧고 뉘 쳡(妾)을 숨아 보내여 계시뇨 ᄲᆞᆯ니 니ᄅᆞ쇼셔” 분긔(憤氣) 대발(大發)ᄒᆞ여 손으로 난간(欄杆)을 두ᄃᆞ리니 치ᄉᆡᆨ(彩色)을 아루ᄉᆞ린 거시 다 ᄯᅥ러지고 발로 마루ᄅᆞᆯ 구ᄅᆞ니 쳥널이 어ᄌᆞ러니 ᄲᆞᆫ지ᄂᆞᆫ지라 밍회(猛虎) 림즁(林中)의셔 파람ᄒᆞ미 아니면 교룡(蛟龍)이 여의쥬(如意珠)ᄅᆞᆯ 닷ᄐᆞᆷ ᄀᆞᆺᄐᆞ니 위풍(威風)이 규규(赳赳)ᄒᆞ여 불감양시(不敢仰視)러라 츄밀(樞密)과 부인(夫人)이 실ᄉᆡᆨ(失色)ᄒᆞ여 미쳐 ᄯᆞᆯ 닐허 놀ᄂᆞ오믄 잇고 ᄉᆡᆼ의 호령(號令)의 훈(魂) 아여 부인(夫人)은 ᄒᆞᆫ 구셕의 지쳐 안고 츄밀(樞密)은 눈을 두려지 ᄯᅥ 어ᄉᆞ와 귀형(鬼形)을 마죠 볼 ᄲᆞᆫ이니 이러구러 가즁(家中)이 믈 ᄯᆞᆯ ᄐᆞᆺᄒᆞ다 댱ᄉᆡᆼ이 져므러 가지 못ᄒᆞ고 윤ᄉᆡᆼ들로 더브러 자드니 대경(大驚)ᄒᆞ여 일시의 드러와 보니 ᄉᆡᆼ의 쟉난(作亂)이 비샹(非常)ᄒᆞ여 츄밀(樞密)ᄃᆞ러 ᄯᆞᆯ 어더 ᄂᆡ라 ᄒᆞ니 다 아ᄂᆞᆫ지라 모ᄃᆞ 셔셔 굿 볼 ᄲᆞᆫ이오 ᄉᆡᆼ의 노(怒)ᄒᆞᆫ 셩(性)이 렬화(熱火) ᄀᆞᆺᄐᆞ여 능히 말이지 못ᄒᆞ나 일변 귀형(鬼形)의 거동을 보니 우음이 ᄂᆞ더라 츄밀(樞密)이 겨유 놀ᄂᆞᆫ 거술 졍(正)ᄒᆞ여 귀형(鬼形)을 불너 연고(緣故)ᄅᆞᆯ ᄌᆞ시 고(告)ᄒᆞ라 ᄒᆞᆯ ᄉᆞ이 현ᄉᆞ인(舍人)이 형(兄)의 오지 아니믈 고이 너겨 됴회(朝會) 길의 밧긔 왓ᄃᆞ ᄒᆞ니 샤인(舍人)이 ᄂᆡ당(內堂)으로 드러오라 ᄒᆞ믈 고이히 너겨 ᄉᆞ양(辭讓)ᄒᆞ니 윤ᄉᆡᆼ이 위력(威力)으로 잇ᄯᅳ러 드러올ᄉᆡ 례뫼(禮貌) 빈빈(彬彬)ᄒᆞ고 힝동이 유법(有法)ᄒᆞ여 쇄금션ᄌᆞ(碎錦扇子)로 옥면(玉面)을 가리와 당(堂)의 올나 공(公)을 향(向)ᄒᆞ여 례(禮)ᄒᆞ고 어ᄉᆞᄅᆞᆯ 도라보니 만면(滿面) 노긔(怒氣)로 소셰(梳洗)도 아니코 관(冠)만 머리의 언고 셔시나 난간(欄杆)머리 ᄭᅮᆷ민 거시 다 브러지고 쳥샹(聽上)이 다 ᄯᅥ러졋ᄂᆞᆫ지라[106]

위 인용문은 현수문이 처음으로 윤소저에게 속은 후 그의 심리를 서술한 대목의 일부이다. 성혼하는 날 밤에 술에 취한 현수문은 귀형녀를 윤소

106) 권3, 27b-29b.

저로 알고 동침한다. 새벽에 눈을 뜨자 귀형녀가 옆에 있는 것을 알고 매우 분노한다. 윤소저에게 속아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현수문의 분노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는 얼굴에 노기가 가득하여 장인 윤추밀을 큰 소리로 욕하면서 윤소저를 어디에 감추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어 윤추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수문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바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광기를 드러낸다. 그는 난간과 마루 등 물건을 파괴한다. 인용문 1에서 보이는 현수문의 광패한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이다. 그의 폭력 행위로 인해 윤추밀 부부는 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현수문의 폭력에 윤추밀은 혼이 빠지고, 윤추밀 부인은 한 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다.

현수문의 폭력성은 이처럼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현수문의 분노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 감찰기관인 어사대(御史臺)의 수장(首長) 도어사(都御史)임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인해 조회(朝會)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현경문이 윤부에 찾아와 현수문을 보게 된다. 현수문은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에 관만 얹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현수문이 분노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수문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귀형녀는 외모가 추할 뿐 아니라 병을 앓고 있고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107] 특히 고름과 혹 같은 병적인 분비물이 보는 사람에게 더럽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현수문은 마음속으로 귀형녀를 “추악한 것”이라고

107) 원ᄂᆡ ᄎᆞ녀(此女)ᄂᆞᆫ 빌어먹ᄂᆞᆫ 거시로ᄃᆡ 품슈(稟受)ᄒᆞ기ᄅᆞᆯ 특별 흉괴망측(凶怪罔測)ᄒᆞ여 얽머 흔ᄂᆞᆺ치 기왓장 ᄀᆞᆺ치 길고 푸ᄅᆞ며 삼단 ᄀᆞᆺ튼 눈셥 우희 큰 혹과 불근 ᄉᆞ마괴 엉긔여시며 퉁방울 ᄀᆞᆺ튼 두 눈의 알 젹혀 계유 사ᄅᆞᆷ 아라볼 만ᄒᆞ고 주쳐안준 코ᄒᆡ 지드ᄃᆡᆫ 입으로 엄니 좌우(左右)로 가로박혓고 말쇼리ᄂᆞᆫ 슈오리 목ᄆᆡ니 ᄀᆞᆺ고 ᄒᆞᆫ ᄃᆞ리 졀고 숀이 뉵긔 온 몸이 펴지고 등이 굽은 가온ᄃᆡ 풍질(風疾)이 셩(盛)ᄒᆞ여 몸과 ᄉᆞ지의 헌 덕지 만창(滿瘡)ᄒᆞ여시니 그 거동이 ᄎᆞ마 흉령(凶獰)무셔워 우두나찰(牛頭羅刹)과 흑살텬신(黑殺天神)은 위엄(威嚴)이나 져어 뵈거니와 ᄎᆞ녀(此女)의 별물거동(別物擧動)은 텬하무ᄡᆞᆼ(天下無雙)이오 만고독뷔(萬古獨步)러라(권3, 25b-26a).

평가하는데, 여기서 그녀에 대한 혐오감이 드러난다.

첩에게 속아 혐오하는 상대와 동침하는 것이 누구나 불쾌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현수문의 분노는 강도와 지속성 양면에서 특징적이다. 현수문이 이렇게까지 격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수문의 지배욕과 나르시시즘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나르시시즘은 현수문이 윤소저의 계집종 설구(薛嫗)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그는 윤소저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가 용렬한 남자의 정실이 되기보다 자기 첩이 되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윤소저의 방에 들어가 그녀를 겁탈하려 하는 장면에서도 권위적인 면모와 나르시시즘이 드러난다. 그는 "노야(老爺)"를 자칭하고 윤소저의 신분을 비하하며 의건(衣巾)을 벗으라고 명령한다. 이에 윤소저는 자신이 시비(侍婢)가 아니라고 말하며 예의를 지키라고 요구한 뒤 자결을 시도한다. 그러자 현수문은 윤소저를 붙잡고 더 이상 반항하지 말라며 천신(賤身)이 "낭군(郞君)"의 첩이 되면 부귀를 누릴 것이라고 한다. 결국 현수문은 위력으로 윤소저를 겁탈한다. 이후 윤소저의 신분이 밝혀진 뒤 현택지는 윤추밀에게 윤소저와 현수문을 결혼시키라고 권한다. 그런데 윤소저가 현부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자 윤추밀은 딸을 보내지 않는다. 이에 현수문은 몸소 윤부에 찾아가 윤소저를 핍박한다. 이때 현수문은 윤소저가 반드시 자기 첩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가부장의 권위를 드러낸다.[108] 이상의 행동을 통해 현수문이 윤소저를 통제하려는 욕망과 나르시시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르시시즘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좌절시키는 대상에 대한 무기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며, 사소한 무시에도 과도한 격노를 표출할 수 있다.[109]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현수문은 윤소저를 잡아 처벌하려

---

108) "[현수문이-인용자] 그 닙지(立志)를 휘오려 ᄒᆞᄂᆞᆫ 고로 ᄂᆞ아가 홍샹(紅裳)을 ᄯᅳ어 안친 후 핍박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령이 비록 ᄉᆞ문(士門) 녀ᄌᆞ를 ᄌᆞ부(自負)ᄒᆞ나 가히 현ᄌᆞ여의 쳡 밧긔ᄂᆞᆫ 되기를 면치 못ᄒᆞᆯ 거시어ᄂᆞᆯ 거일(去日)의 뱡ᄌᆞ(放恣) 무례(無禮)ᄒᆞᆫ 언ᄉᆞ(言辭)로 쥬군(主君)을 능멸(凌蔑)ᄒᆞ니 그 죄 어ᄃᆡ 밋쳐ᄂᆞ뇨" 쇼졔 져의 졀졔 협박ᄒᆞ믈 각골(刻骨) 앙분(怏憤)ᄒᆞ여 옥ᄆᆡ(玉貌) 츈 ᄌᆡ ᄀᆞᆺᄐᆞ니 ᄒᆞᆨᄉᆡ ᄉᆞ샹ᄒᆞ연지 임의 오ᄅᆡᆫ 미인을 심야의 대ᄒᆞ니 엇지 샤(赦)ᄒᆞ리오 겸ᄒᆞ여 져ᄅᆞᆯ 무욕고져 ᄒᆞ엿ᄂᆞᆫ지라 명촉(明燭) 하의 핍박ᄒᆞ여 환ᄋᆞ 쾌락ᄒᆞ니 쇼졔 낙담(落膽) 샹혼(喪魂)ᄒᆞ여 평싱 힘을 다ᄒᆞ여 믈니치나 어ᄉᆞ의 냥비(兩臂) 쳔균(千軍)을 가비야이 너기ᄂᆞᆫ지라"(권3, 13a-13b).

고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기에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좌절한 현수문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까 걱정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른다.

분노는 '부당함에 복수하려는 욕구'로 정의된다.[110] 이 정의에 따르면 현수문의 분노는 곧 윤소저에게 복수하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욕구는 공격성으로 표출된다.[111] 현수문은 윤소저의 도망이 윤추밀이 꾸민 일이라고 의심하여 그에게 욕을 하며 윤소저의 행방을 묻는다. 이는 현수문이 윤추밀에게 언어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그는 난간에 새긴 장식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다. 또 발로 마루를 굴러 마룻바닥에 깔아 놓은 널조각을 어지러이 빠지게 하기도 한다. 이는 윤소저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난간과 마루 등 물건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격성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는 욕구를 반영한다.[112]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이나 불완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 한다. 이는 완전해지고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려는 원시적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은 나르시시즘적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113] 현수문은 윤소저를 자신의 첩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그가 윤소저와 성례를 올리던 밤에 그녀와 동침했다면, 스스로 늘 과시해 온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수문은 예상과 달리 실패했다. 현수문은 비

---

109) 마사 너스바움 지음,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383-385면.
110) 위의 책, 186면.
111) 공격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 '직접적 공격'은 목표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공격을 말하고, '간접적 공격'은 목표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공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목표 대상을 때리거나 목표 대상 앞에서 욕을 하는 것은 직접적 공격에 해당하고, 업무 중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서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뒤에서 상사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간접적 공격에 해당한다. 이상 직접적 공격과 간접적 공격에 관한 내용은 DeWall, C. N., Anderson, C. A., & Bushman, B. J., Aggression. Chapter in I. Weiner (Ed.), *Handbook of Psychology*, 2nd Edition, Volume 5, H. Tennen & J.Suls (Ed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ew York: Wiley., 2012, p. 450 참조.
112) 마사 너스바움, 앞의 책, 712면.
113) 위의 책, 377-379면.

웃음을 당했을 것을 생각하여 윤소저와 동침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보였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건까지 파괴하기도 했다. 현수문의 강도 높고 지속적인 공격성에는, 가부장으로서 첩을 제압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감추려는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는 욕구'는 불안을 수반한다. '불안'은 정신분석학에서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정동 또는 정서적 상태"[114]를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그 강도와 지속 기간은 다양하며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을 수반한다. 이때 신체적 반응으로는 심장 박동의 증가, 호흡의 빨라짐, 떨림, 땀 흘림 등이 있고 심리적 반응으로는 "모호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걱정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현상"[115]이 있다.[116] 불안의 주요한 동기는 자존심과 자기 존중에 대한 위협으로,[117] 이런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불안의 극복 메커니즘으로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118] 구체적으로 말해, 타인을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쾌감을 얻고자 하거나, 불안의 대상을 없앰으로써 무력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개인을 강화하고자 할 수 있다. 현수문의 신체적인 불안은 인용문에서 확인

114) 미국정신분석학회 편; 이재훈 외 옮김, 『정신분석 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194면.

115) 위의 책, 195면.

116) 이상 정신적 불안에 관한 내용은 위의 책, 194-195면을 참고했다.

117) 박용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의 불안」, 『대한불안의학회지』 1, 대한불안의학회, 2005, 14-17면.

118) 불안감에 대한 대응책으로 '권위주의', '파괴성'과 '자동인형적 순응'이라는 세 가지 도피 메커니즘이 제시된 바 있다. 권위주의 메커니즘은 자아에 결여된 힘을 얻기 위해 복종하거나 지배하려는 욕구로 드러난다. 이런 욕구는 피학적 충동과 가학적 충동으로 표출된다. 이 중 피학적 경향의 본질은 보다 강한 힘에 소속되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안전을 얻는 것이고, 가학적 경향의 본질은 타인을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쾌감을 얻는 것이다. 파괴성 메커니즘은 그 대상을 없앰으로써 무력감, 불안감, 좌절감에서 벗어나고 개인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가학-피학적 경향이 대상과 결합하는 공생을 목표로 삼는 반면, 파괴성은 그 대상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자동인형적 순응 메커니즘은 일부 동물이 보호색을 보이는 것처럼 개인이 자신의 개별적 자아를 포기하고 타인과 똑같아지고 타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상의 도피 메커니즘 중 권위주의의 가학적 경향과 파괴성이 공통적으로 공격성을 내포한다. 이상 도피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은 에리히 프롬 저, 김석희 옮김, 『자유로부터의 도피』, 휴머니스트, 2020, 157-201면을 참고했다.

하기 어렵지만, 심리적 불안은 그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광패한 행동을 하는 데서 확인된다. 윤소저의 부재로 인해 분노한 현수문은 정신적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목표 대상을 향해 일련의 간접적 공격을 한다. 현수문의 공격성은 윤소저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인한 무력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수문의 경우, 분노에 수반되는 공격성은 가부장으로서의 약점을 감추려는 욕구의 반영이자 불안을 극복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귀형녀와 동침한 현수문은 혐오감을 느낀다. 지배욕과 나르시시즘이 강한 그는 모욕당한 것에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낀다. 이 때문에 복수심이 생기고, 그 결과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성을 드러내게 된다. 즉, 현수문의 공격성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욕구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그의 내면적 불안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귀형녀의 대답을 들은 현수문의 반응과 내면을 살펴보자.

> 2 츄밀(樞密)이 숀을 드러 안기를 쳥(請)ᄒᆞ고 다시 귀형(鬼形)을 불너 므ᄅᆞ니 귀형(鬼形)이 프른 니를 들치며 ᄃᆡ(對)ᄒᆞᄃᆡ, "...(중략)...비ᄌᆞ(婢子)를 어ᄉᆞ 침쇼(寢所)로 보ᄂᆡ시니 두닙고 황공(惶恐)ᄒᆞ나 어ᄃᆡ 거ᄉᆞ리잇고 그러나 어ᄉᆞ 노야(老爺)의 도라보시믈 꿈의도 ᄉᆡᆼ각지 아녀더니 져 노애(老爺) 부인(夫人)이 업셔 녀ᄉᆡᆨ(女色)의 쥬려 계시던지 쇼비를 보고 죠곰도 더러이 너기지 아니샤 은근(慇懃) 총ᄋᆡ(寵愛)ᄒᆞ미 비길 ᄃᆡ 업ᄉᆞ니 쇼비(小婢) ᄯᅩ한 ᄆᆞ음 노아 동침(同寢) 노야(老爺)ᄒᆞ와 일야(一夜)를 지ᄂᆡ오니 인ᄒᆞ여 바리지 아니샤 금ᄎᆞ지렬의 빗놀가 하엿더니 ᄉᆡ비 니려 홀연(忽然) 쇼비(小婢)를 보시더니 져리 대로(大怒)ᄒᆞ여 나오시니 그 연고(緣故)를 모른쇼이다" 이리 니ᄅᆞ며 두 아귀에 춤이 흣듯고 얼골의 죵긔(種氣) 터져 농즙(膿汁)이 가로 흐ᄅᆞ고 혹 셩농(成膿)ᄒᆞᆫ 것도 이시며 쥭지를 어ᄌᆞ러니 두ᄅᆞ며 졀은 다리를 헤져으니 이ᄂᆞᆫ 본ᄃᆡ 말ᄒᆞᆯ ᄃᆡ 이리 ᄒᆞᄂᆞᆫ 버른시라 츄밀(樞密)이 경(景)업ᄉᆞᆫ ᄆᆞ음의도 우음을 춤지 못ᄒᆞ니 윤·쟝 등이 졀도(絶倒)ᄒᆞ기를 면(免)치 못ᄒᆞ고 샤인(舍人)이 역시 웃기를 춤고 안ᄉᆡᆨ(顔色)을 졍(正)히 ᄒᆞ고 봉안(鳳眼)이 나죽ᄒᆞ엿더니 어ᄉᆡ 분(憤) 풀 ᄃᆡ 업셔 홀 ᄎᆞ 귀형(鬼形)의 말이 졀통(切痛)ᄒᆞᆫ지라 믄득

허리 안ᄅᆡ로죠ᄎᆞᆫ 칼흘 ᄲᅧᆫ히니 흰 빗치 번득이며 셤삭(閃爍)ᄒᆞᆫ 빗치 좌우(左右)ᄅᆞᆯ 동ᄒᆞ여 귀형(鬼形)의 머리ᄅᆞᆯ 버혀 ᄂᆞ리치고져 ᄒᆞ니...(후략)[119]

혼이 빠진 윤추밀은 현경문과 인사를 나눈 후 귀형녀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다. 귀형녀는 윤소저가 현수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일을 계획했으며 현재 윤소저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답한다. 심지어 귀형녀는 현수문이 자기를 총애하여 동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들은 사람들은 웃음이 터진다. 이때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현수문은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 칼로 귀형녀를 죽이려 한다.

인용문 2에서 확인되는 현수문의 내면묘사는 앞에서 살펴본 인용문 1에 나타나는 내면묘사와 일맥상통한다. 현수문이 비웃음을 당한 모습을 통해 그의 자존심이 손상되었음을, 동시에 귀형녀를 죽이려는 행동을 통해 가부장으로서 모욕당한 일에 대한 복수심과 자기 약점이 드러날 것에 대한 불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씨양웅쌍린기』는 현수문의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그의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수문은 현경문의 말에 광폭(狂暴)한 행동을 멈추게 된다.[120] 현경문이 현수문에게 선비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며 분을 풀어 집에 돌아가라고 권유하기 때문이다. 현수문은 현경문의 말을 듣고 윤소저가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분을 풀기 위해 그녀의 거처를

119) 권3, 29b-30b.

120) “츄밀(樞密) 이해(以下) 눈이 둥구러 밋쳐 숀을 놀니지 못ᄒᆞ더니 샤인(舍人)이 급히 광슈(廣袖)로뻐 칼흘 막고 간왈(諫曰), “형쟝(兄丈)이 비록 분노(憤怒) 즁이시나 션배 되어 엇지 샤ᄅᆞᆷ을 친히 힝형(行刑)ᄒᆞ리 잇고 원컨ᄃᆡ 셩노(盛怒)ᄅᆞᆯ 늣츄시고 도라가샤이다” 어ᄉᆡ 발분(發憤) 발검(拔劍)ᄒᆞ엿더니 아이 온즁(穩重) ᄂᆞ즉ᄒᆞᆫ 말숨이 샤ᄅᆞᆷ의 일만불평(一萬不平)ᄒᆞ믈 다 술와 바리니 로(怒)ᄅᆞᆯ 놋쵸와 놀ᄒᆞ여 닐오ᄃᆡ, “내 윤시 거쳐(去處)ᄅᆞᆯ 아라 날 쇽인 분을 쾌히 풀고 가리니 너ᄂᆞᆫ 믄져 도라가라” 졍언간(正言間)의 쇼져의 유뫼(乳母) 셔간(書簡)을 어더 드리니...(중략)...어ᄉᆡ 눈으로 글을 보며 놀하여 ᄀᆞᆯ오ᄃᆡ, “윤시의 간악(奸惡)ᄒᆞ미 부모(父母)의게 거쳐(去處)ᄅᆞᆯ 고(告)치 아니코 ᄂᆞ가니 ᄎᆞ(此)ᄂᆞᆫ 빅부(背夫)ᄒᆞᄂᆞᆫ 역녜(逆女)라 쇼싱(小生)이 발분망식(發憤忘食)ᄒᆞ여 쵸ᄂᆞᆫ 놀은 ᄎᆞ녀(此女)의 머리ᄅᆞᆯ 버혀 오ᄂᆞᆯ날 분(憤)을 풀이니 대인(大人)은 노(怒)치 마ᄅᆞ쇼셔””(권3, 30b-32a).

알아봐야 한다고 한다. 이때 현수문은 윤소저가 보내온 편지를 보고 다시 분노한다. 현수문은 윤소저를 “간악”하며 “배부(背夫)하는 역녀”라고 욕설을 퍼붓고 윤소저를 잡으면 죽이겠다고 말한다.

그러던 중 현수문은 윤소저가 이모댁인 화주 박자사 집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현수문은 박자사의 집에 가서 윤소저의 교자를 납치한다.

> 3 셜파(說罷)의 일시(一時)의 뒤히 가는 교ᄌᆞ(轎子)를 아ᄉᆞ 메고 ᄂᆞᄂᆞᆫ ᄃᆞ시 도라오니 날이 임의 셕양(夕陽)일너라 교ᄌᆞ(轎子)를 평안(平安)이 뫼시라 ᄒᆞ고 드러와 어ᄉᆞ긔 고(告)ᄒᆞ니 싱이 윤시를 졀치부심(切齒腐心)ᄒᆞ여 하관(下官)을 보ᄂᆡ여 아ᄉᆞ 와 크게 모욕(侮辱)을 ᄒᆞ려ᄒᆞᄂᆞᆫ지라 져의 왓ᄃᆞᄒᆞ믈 듯고 긔운을 비양(飛揚)ᄒᆞ여 교ᄌᆞ(轎子)를 후당(後堂)으로 드러오라 ᄒᆞ고 크게 거러 ᄂᆞ가니 댱싱이 맛춤 왓ᄃᆞ가 긔식을 알고 싱의 과격ᄒᆞᆫ 셩(性)이 표ᄆᆡ(表妹)의 신샹(身上)을 샹(傷)ᄒᆡ올가 ᄒᆞ여 후챵(後窓)의 가 여어보더라 어ᄉᆡ 방중(房中)의 드러와 친히 풀을 것고 쇼리ᄒᆞ여 ᄀᆞᆯ오ᄃᆡ, “요특(妖慝)ᄒᆞᆫ 발부(潑婦)ᄂᆞᆫ 밧비 와 쥬군(主君)의 명(命)을 드ᄅᆞ라”[121]

위 인용문은 현수문이 윤소저의 교자를 납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다. 이때 현수문은 윤소저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뻐한다. 이는 윤소저의 교자가 왔다는 말을 들은 후 의기양양하며 크게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교자가 도착한 후 그는 교자의 발을 직접 올리고 윤소저에게 “발부”라고 욕하며 “주군(主君)”의 명을 들으라고 명한다. ‘주군’이라는 말에는 ‘일가(一家)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다.[122] 현수문이 ‘주군’을 자칭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윤소저 앞에서 ‘한 집안의 우두머리’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부각하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수문의 예상과는 달리 교자에서 내린 것은 한 할머니였다. 현수문이 윤소저에게 또 한 번 속은 것이다. 이때 현수문은 이전과는 다

121) 권3, 36a-36b.
122) 漢典, https://www.zdic.net.

른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확인한 인용문 1과 2에서와 같이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123] 이는 공격과 좌절의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좌절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좌절이 부정적 정서를 일으킬 때만 공격성을 가져오게 된다.[124]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두 번의 속임수에 대한 현수문의 반응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속임수를 당하는 현수문의 내면과 연관되며, 특히 가부장으로서 현수문의 분노한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렇다면 윤소저의 세 번째 속임수에 현수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 번째 속임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현수문의 내면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세 번째 속임수 때 현수문의 심리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속임수 때의 심리와 차이가 있다. 서사 중반에 이르러 현수문은 윤소저를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윤소저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녀를 잡아 화풀이하려고 한다.

> 4 병뷔 하쇼져로 금슬죵괴(琴瑟鐘鼓) 환연(歡然)ᄒᆞᄂᆞ 일념(一念)의 윤쇼져 ᄉᆞ모(思慕)ᄒᆞ여 ᄉᆡᆼ각하ᄃᆡ, '윤시 규즁(閨中) 녀ᄌᆞ로 먼니 가지 아냐실 거시니 짐즉건ᄃᆡ 화쥐(華州) 박ᄂᆡ샹 임쇼(任所)의 간가 ᄒᆞ엿더니 고이ᄒᆞᆫ 거술 ᄃᆞ려와 남의 우음만 보고 졀졀(節節)이 속인 ᄇᆡ 되니 ᄂᆡ부ᄃᆡ ᄎᆞᄌᆞ고 쇽인 죄ᄅᆞᆯ 뭇고 강녈(剛烈)ᄒᆞᆫ 닙지立志)ᄅᆞᆯ 휘워 쟝즁(帳中)의 두려니와 다만 만ᄂᆞᆯ 길이 업ᄉᆞ니 엇지ᄒᆞ리오'[125]

> 5 병뷔 닝쇼(冷笑) 왈, "죤공(尊公)이 대인(大人) 붕ᄇᆡ(朋輩)신 고로 그만이나 공경(恭敬)ᄒᆞᄂᆞᆫ지라 예ᄉᆞ 옹셔(翁婿) ᄀᆞᆺᄐᆞ면 큰 욕(辱) 보와 계

---

123) "ᄉᆡᆼ이 무망즁(無妄中)의 놀납고 ᄭᅮᆷ즉ᄒᆞ여 무릅써니 그 녀ᄌᆡ ᄉᆡ된 쇼ᄅᆡ로 닐오ᄃᆡ...(후략) 어ᄉᆡ 입이 ᄡᅳ 말이 ᄂᆞ지 아니니 강잉(强仍)ᄒᆞ여 무ᄅᆞᄃᆡ..."(후략)(권3, 36b-37a).

124) 이 이론은 레너드 버코위츠(Leonard Berkowitz)가 수정한 '좌절-공격성 가설(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이다. (Leonard Berkowitz,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9).

125) 권5, 27b.

시리이다 댱뷔(丈夫) 말을 ᄂᆡᄆᆡ ᄉᆞ매 ᄯᆞᆯ오기 어려오니 당당(堂堂)ᄒᆞᆫ 남ᄌᆡ 엇지 거즛말을 ᄒᆞ리오 이 글이 엇던 발부(潑婦)의 글인고 보쇼셔" ᄒᆞ고 휘모라 츄밀(樞密) 알ᄑᆡ 미니 츄밀(樞密)과 윤싱 등이 ᄒᆞᆫ가지로 보고 말이 막혀...(중략)...병뷔 분연졀치(憤然切齒) 왈, "ᄇᆡ부(背夫)·ᄂᆞᆫ륜(亂倫)·교샤(巧詐)·역녀(逆女) 윤가(哥) 발부(潑婦)ᄅᆞᆯ ᄌᆞᆸᄂᆞᆫ 날은 일쳑(一尺) ᄑᆞᄅᆞᆫ 날이 인졍(人情) 업ᄉᆞ리니 졀졀(節節)이 ᄉᆞᆨ은 일을 ᄉᆡᆼ각ᄒᆞᆫᄌᆞᆨ 통분(痛憤) ᄒᆡ괴(駭怪)ᄒᆞ니 즉금(卽今) ᄂᆞᆯ개 업ᄉᆞ믈 한(恨)ᄒᆞᄂᆞ니이다 연(然)이나 대인(大人)과 부인(夫人)이 요녀(妖女)의 ᄉᆞ쳥(所請)을 듯고 ᄉᆞ싱(小生)을 ᄉᆞᆨ이시거니와 시인(時人)의 ᄆᆡ명(浼名)이 두립지 아니 ᄒᆞ니잇가"[126]

인용문 4는 현수문이 윤소저에게 두 번째로 속은 뒤 혼자 생각하는 장면이다. 현수문은 정실부인 하소저와 화목하게 지내면서도 윤소저를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현수문은 그녀를 제어하여 윤소저가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싶어하기도 한다. 즉, 윤소저를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엿보이는 것이다.

인용문 5는 인용문 4에 이어지는 대목으로, 현수문이 고민하다가 윤부에 가서 윤소저의 거처를 알아보려 하는 장면이다. 현수문이 윤소저의 거처를 장모인 두부인에게 묻자 두부인은 모른다고 대답한다. 이때 윤소저의 편지를 발견한 현수문이 윤추밀을 책문한다. 이때 윤추밀은 자신도 윤소저의 거처를 모른다며, 현수문에게 윤소저를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현수문은 매우 분노하며 욕설을 퍼붓는다. 그는 윤소저를 "배부(背夫)", "난륜(亂倫)", "교사(巧詐)", "역녀(逆女)", "발부(潑婦)"와 "요녀(妖女)"라고 욕하며 앞에 있는 악부 윤추밀과 악모 두부인까지 비난한다.

위 인용문에서 주목할 점은 현수문이 윤소저를 '발부'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부'는 인용문 3에서도 확인되며, 현수문이 윤소저를 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발부의 어원은 중국 고전문학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기 남편을 지배하며 협박하고 괴롭히는 여자를 지칭한다.[127] 이때 여성이 남편을 괴롭히는 이유는 질투에서 비롯된다.[128] 이러

126) 권5, 29b-30b.

한 정의에 따르면 윤소저는 '발부'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수문이 윤소저를 발부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학작품에서 발부라는 단어는 남성이 그들의 권력이 여성에게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29] 이는 현수문이 윤소저에게 발부라는 말을 사용하여 욕설을 퍼붓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수문이 윤소저에게 욕설을 퍼붓는 상황은 윤소저가 현수문의 가부장적 권력을 위협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현수문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욕설을 퍼붓고 그녀를 통제하여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고자 한다. 요컨대 현수문은 가부장의 권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이에 불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속임수 장면을 확인해보기로 하자.

> 6 병뷔 모든 시녜(侍女) 짜라왓거든 믄져 형벌(刑罰)을 더어 위엄(威嚴)을 뵈고져 ᄒᆞ더니 이의 하관(下官) 배니(陪吏)ᄅᆞᆯ 물너가라 ᄒᆞ고 좌우(左右) 시녀(侍女)ᄅᆞᆯ 명(命)ᄒᆞ여 윤가(哥) ᄇᆡ부(背夫)ᄒᆞᆫ 계집을 ᄲᆞᆯ니 드려오라 ᄒᆞ니 슈유(須臾)의 교ᄌᆞ(轎子)ᄅᆞᆯ 메워 쳥샹(聽上)의 노흐ᄆᆡ 가즁(家中) 복부(僕夫)와 잉낭 ᄎᆞ두(叉頭) 수플 ᄀᆞᆺ치 모혀 ᄉᆡᆼ의 거동을 구경ᄒᆞ려 ᄒᆞ고 댱시즁 등이 셔셔 관광(觀光)ᄒᆞ더니 믄득 쇼져ᄅᆞᆯ 시녜(侍女) 옹위(擁衛)ᄒᆞ여 좌우(左右)로 붓드러 셰울ᄉᆡ 쇼졔 믄득 업더지니 병뷔 졔 분(憤)ᄒᆞ믈 이긔지 못ᄒᆞ여 구러지ᄂᆞᆫ 줄 알고 병뷔 크게 쇼리ᄒᆞ

---

127) 중국 동한(東漢) 왕부(王符)와 같은 철학자들은 '발부'의 의미를 확장하여 질투심 많은 관리(官吏)까지도 '발부'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기원후 5세기부터 발부에 관한 이야기가 선집에 수록되기 시작했으며 후에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까지 계속 유통되었다(Yenna Wu, *THE CHINESE VIRAGO: A Literature Them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5, pp. 4-8). '발부'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중국 고전소설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반면, 한국 국문소설에서는 중국 고전소설에 비해 그 빈도가 매우 낮다. 중국의 경우,『투부기(妒婦記)』,『쾌취이취련기(快嘴李翠蓮記)』,『금병매(金瓶梅)』,『임란향(林蘭香)』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현씨양웅쌍린기』,『윤하정삼문취록』등이 있다. '발부'라는 말이 보이는 한국의 문헌으로는『여사서언해(女四書諺解)』가 있는바, 이 책에는 "막ᄒᆞᆨ발부(莫學潑婦)의 투뇨빈빈(鬪鬧頻頻)이니라"(「사부장(事夫章)」,『여사서언해(女四書諺解)』)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발부'라는 말을 중국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28) ibid., pp. 4-5.

129) ibid., pp. 33-34.

여 왈, “윤가(哥) 출녀(刹女)는 스ᄉᆞ로 죄(罪)를 아는다 ᄂᆡ 젼일(前日) 년쇼(年少) 풍졍(風情)으로 그ᄃᆡ를 일시(一時) 유졍(有情)ᄒᆞ여 임의 잉쳡(媵妾)이 되미 분명(分明)ᄒᆞ다가 ᄉᆞ죡녜(士族女)믈 알ᄆᆡ ᄌᆞ못 불안(不安)ᄒᆞ야 ᄯᅩᄒᆞᆫ 뉵례(六禮)를 감등(降等)ᄒᆞ나 바히 만모(慢侮)ᄒᆞ미 업거ᄂᆞᆯ 교만방죵(驕慢放縱)ᄒᆞᆫ ᄯᅳᆺ이 ᄂᆞ리믈 한(恨)ᄒᆞ니 죄(罪) 깁거ᄂᆞᆯ 감히 쥬군(主君)을 업슈이 너겨 젼후(前後)의 두 번 쇽인 죄(罪) 일관(一貫)이 통히(痛駭)ᄒᆞ니 엇지 용셔(容赦)ᄒᆞ리오 그 ᄯᅳᆺ을 ᄌᆞ시 니ᄅᆞ라” 셩음(聲音)이 엄졍(嚴正)ᄒᆞ고 위풍(威風)이 규규(赳赳)ᄒᆞ니 좌위(左右) 불감양시(不敢仰視)ᄒᆞᄃᆡ 윤시 츄호(秋毫)도 움ᄌᆞᆨ이미 업셔 그져 업더져 니지 아니ᄒᆞ니 병뷔 노즐(怒叱) 왈, “좌우(左右)는 져 발부(潑婦)를 니ᄅᆞ혀 셰워 쥬군(主君)의 명(命)을 듯게 ᄒᆞ라” 좌위(左右) 붓드러 니ᄅᆞ혀니 그 쇼져의 ᄒᆞᄂᆞᆫ 거동이 고이ᄒᆞ야 ᄉᆡ별 ᄀᆞᆺ튼 눈을 뒤로 기고 병부를 마조 보고 노(怒)홈도 업고 ᄯᅵᆼ긔도 아냐 사ᄅᆞᆷ이 붓드러시면 셔고 노흐면 구러지ᄂᆞᆫ지라 ᄉᆡᆼ이 믄득 의심(疑心)ᄒᆞ여 갓가이 나아가 ᄌᆞ시 보니 아마도 산 ᄉᆞᄅᆞᆷ ᄀᆞᆺ지 아닌지라...(중략)...ᄉᆡᆼ이 이 거동을 보ᄆᆡ 입이 뻐 말이 ᄂᆞ지 아니니 졈즉이 물너셔ᄂᆞᆫ지라 죄우(左右)의 가득ᄒᆞᆫ 시녜(侍女) 춤아 우읍기를 이긔지 못ᄒᆞ여 경망(輕妄)ᄒᆞᆫ 시녀(侍女) 등은 숀벽 치고 것구러 드러가니 댱ᄉᆡᆼ 등이 이 거동을 참쳥(參聽)ᄒᆞ고 일시(一時)의 박쟝대쇼(拍掌大笑)ᄒᆞ니 병뷔 젼일(前日) 쇽은 일은 둘ᄌᆡ오 금일(今日) 허다(許多) 인언(人言) 가온ᄃᆡ 이런 우은 거조(擧措)를 보니 노분(怒憤)이 빅쟝(百丈)이나 니러나 만일(萬一) 윤시를 잡ᄂᆞᆫ 날은 만단(萬端)의 ᄂᆡ여 분(憤)을 플고져 ᄒᆞ나 대히(大海)의 부평쵸(浮萍草) ᄀᆞᆺ튼지라 크게 쇼리ᄒᆞ여 화쥐(華州) ᄀᆞᆺ던 숑신·냥호·츄련 등 ᄉᆞ십여 인(人)을 진슈(盡數)히 잡아 드리라 ᄒᆞ여 즁형(重刑)을 더을ᄉᆡ...(중략)...몸을 니러 후당(後堂)의 니ᄅᆞ니 좌우(左右)의 챵두(蒼頭) 하리(下吏) 가득ᄒᆞ여 ᄆᆡ질 쇼리 어ᄌᆞ럽고 병부ᄂᆞᆫ 미우(眉宇)의 노긔(怒氣) 대발(大發)ᄒᆞ여 능히 좌(坐)를 안졉(安接)지 못ᄒᆞᄂᆞᆫ되 댱시즁 형뎨(兄弟)ᄂᆞᆫ 것구러 웃ᄂᆞᆫ지라...(중략)...분(憤) 플고지 업셔 쵸인(草人)을 친히 만단(萬端)의 ᄭᅵ져 윤부(府)로 보ᄂᆡ고 긔운이 분분(紛紛)ᄒᆞ여...(후략)[130]

현수문은 윤소저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노복 등 여러 하인

130) 권5, 38a-42a.

앞에서 자신의 가부장적 위엄을 보여주려 한다. 윤소저가 타고 있는 교자 앞에서 전일 그녀가 가부를 모욕하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다. 현수문은 자신이 윤소저를 사랑으로 맞이했고, 업신여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어 그는 윤소저에게 그녀가 자신을 속인 일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행동은 용서하기 어렵기에 스스로 저지른 죄를 이르라고 명한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자 현수문은 좌우에게 명하여 윤소저를 잡아내라고 말한다. 이때 윤소저의 거동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낀 현수문이 가까이 가서 그녀를 확인하는데, 현수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윤소저가 아닌 허수아비였다. 이 광경을 본 현수문은 놀라 말없이 부끄러워하며 물러선다. 이러한 현수문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웃음이 터진다. 이에 현수문은 더욱 화가 나서 하인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허수아비를 찢어버린다.

인용문 6 역시 인용문 1, 2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 앞에서 현수문이 속은 후, 그가 느끼는 분노를 묘사한다. 이는 '노분(怒憤)이 백장(百丈)', '노기 대발' 등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노에 찬 현수문의 폭력적인 행위를 서술하기도 한다. 앞서 거론한 이론을 상기하면, 나르시시즘을 지닌 현수문은 또다시 아내에게 속아 가부장으로서 아내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좌절당한다. 그 결과 그는 모욕감, 수치심, 모멸감을 느껴 격분을 참지 못한다. 그리고 윤소저에 대한 복수심이 커지면서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현수문이 윤소저를 잡으러 간 송인을 비롯한 하인들을 처벌한 것은 간접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공격받아야 할 대상인 윤소저가 없기 때문에 실수한 하인들을 공격 대상으로 치환한 것이다. 즉 현수문은 자신의 불안감과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하인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수문은 사십여 명의 하인을 처벌했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편안히 앉지 못한다. 그의 분노는 허수아비를 찢는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정점에 이른다. 현수문은 가족 구성원 앞에서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과 수치심을 만회하려 하지만, 이것이 실패한 후 가부장으로서 아내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약점을 감추고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윤소저 대신 허수아비를

파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역시 간접적 공격에 해당한다. 현수문은 윤소저를 공격하지 못하기에 그녀를 가장하는 허수아비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 허수아비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수문의 파괴성은 윤소저를 제압하지 못한 좌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수아비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부장적 권위를 강화하려는 심리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씨양웅쌍린기』의 부부 갈등 서사는 주로 현수문의 내면묘사를 통해 전개된다. 현수문은 윤소저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분노와 사랑 등 내면의 상태와 그것의 변화를 드러낸다. 그중에서도 현수문의 분노가 중점적으로 그려져 있으며, 현수문의 분노는 주로 폭력적 행동으로 표현된다. 지배욕과 나르시시즘이 강한 현수문은 가부장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지만, 결국 윤소저에게 속아 자신감과 자존심을 위협받게 되어 격분한다. 이때 분노한 현수문이 윤소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 보이는 폭력적 행위는 가부장으로서 아내를 통제하지 못한 심리적·정신적 불안감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내적 갈등과 자신감 결여

『현씨양웅쌍린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2세대 가부장은 현경문이다. 그는 주소저, 육취옥, 철소저와 결혼하여 그들의 가부장으로 살아간다. 그중에서 현경문과 주소저의 부부 갈등이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작품 서두에서는 현경문의 성품이 차갑고 사나우며 굳세다고 서술하고 있다.[131] 주소저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현경문의 차가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131) “ᄎᆞᄌᆞ 경문은 여일(如一) 엄슉(嚴肅)ᄒᆞ며 셩되(性度) 강밍(剛猛)ᄒᆞ여 ᄆᆡ온 거동이 한풍렬일(寒風烈日) ᄀᆞᆺᄐᆞ니 내ᄌᆡ(內在) 빙쳥(冰淸) ᄀᆞᆺᄐᆞ나 외뫼 더욱 화(華)ᄒᆞ더라”(권1, 1a-1b).

1 ᄎᆞ시(此時) 한님이 ᄌᆡ셩각의 나아가 쇼져ᄅᆞᆯ 보ᄆᆡ 텬향국ᄉᆡᆨ(天香國色)이 교슈무비(嬌羞無比)ᄒᆞ여 일광(日光)이 ᄌᆡᆼ휘(爭輝)ᄒᆞ고 폐월(閉月)이 무ᄉᆡᆨ(無色)ᄒᆞ니 더욱 년긔(年紀) 십일 셰(歲) 츙년(沖年)을 당ᄒᆞ여 더욱 긔이(奇異)ᄒᆞᆫ ᄌᆞ틔(姿態) 옥분(玉盆)의 텬ᄒᆡ(天花) 벙으리고ᄌᆞ ᄒᆞ여 연〃(娟娟)ᄒᆞᆫ ᄌᆞ틔(姿態) 불가형언(不可形容)이로ᄃᆡ 싱의 눈의ᄂᆞᆫ 구ᄐᆞ여 긔특(奇特)ᄒᆞ믈 아지 못ᄒᆞ여 다만 그 ᄌᆞᄉᆡᆨ(姿色)이 인셰(人世) 샤ᄅᆞᆷ ᄀᆞᆺ지 아니믈 보고 그윽이 깃거 아녀 싱각ᄒᆞᄃᆡ, ‘ᄐᆡ임(太妊) ᄐᆡᄉᆡ(太姒) 일죽 ᄌᆞᄉᆡᆨ(姿色)이 잇다 듯지 못ᄒᆞ고셔 ᄌᆞ비연(趙飛燕)과 양옥진(楊玉眞)이 ᄌᆞᄉᆡᆨ(姿色)이 잇다 ᄒᆞ니 이러므로 ᄌᆞᄉᆡᆨ(姿色)은 불관(不關)ᄒᆞᆫ지라 하가(家) 슈〃(嫂嫂)ᄂᆞᆫ 형의 내샹(內相)이가시니와 ᄎᆞ인(此人)은 비쇼원(非所願)애라’ ᄒᆞ여 본ᄃᆡ 불여의ᄒᆞᆫ ᄉᆞᄅᆞᆷ으로ᄂᆞᆫ 말 아니ᄒᆞᄂᆞᆫ 셩품(性品)이라 묵연(默然)이 촉(燭)을 ᄃᆡᄒᆞ고 안ᄌᆞᄉᆞᄆᆡ 가온ᄃᆡ 칙(冊)을 취ᄒᆞ여 쇼리 업시 보더니 이윽고 눈을 드러보ᄆᆡ 좌위(左右) 다 물너가고 쇼져ᄂᆞᆫ 그져 셔 잇ᄂᆞᆫ지라. 싱이 그윽이 텬연(天然)치 아니케 너겨 문득 안ᄉᆡᆨ(顔色)을 고치고 닐오ᄃᆡ, “부인은 좌(坐)하라” 쇼졔 텬만(千萬) 슈ᄉᆡᆨ(羞色)을 ᄯᆡ여 동벽(東壁) 하(下)의 좌(坐)ᄒᆞ니 쥬쇼졔 ᄆᆡ양 하시로 더브러 거처(居處)ᄒᆞ여 젼의 골육(骨肉) ᄀᆞᆺ다가 홀연(忽然) 남ᄌᆞᄅᆞᆯ ᄃᆡ(對)ᄒᆞ니 어렵고 븟그러온 ᄆᆞ음 ᄲᆞᆫ이로ᄃᆡ 싱은 구ᄐᆞ여 녀ᄉᆡᆨ(女色)을 뉴념(留念)ᄒᆞ미 업ᄉᆞᆫ지라 지어(至於) 쥬쇼져ᄂᆞᆫ 익회(厄會) 깁허 싱의 눈의 더욱 취신ᄒᆞ미 업ᄉᆞ니 이러구러 밤이 들ᄆᆡ 촉(燭)을 쟝외(帳外)의 끌니고 ᄌᆞᄃᆡ 구ᄐᆞ여 쇼져ᄅᆞᆯ 본체 아니〃 쇼졔 그린 ᄃᆞ시 안ᄌᆞ ᄉᆡ오더라.[132]

위 인용문은 현경문과 주소저 부부가 결혼한 후 처음 만나는 장면이다. 현경문은 주소저의 미모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주소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든다. 주소저는 혼자 앉아 밤을 지새운다. 이 장면에서 현경문의 차가운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둘의 내면을 묘사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이 장면에서 주소저의 내면은 현경문을 대하기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서술된다. 반면에 현경문의 심리는 주소저에 대한 외모를

132) 권1, 5a-6a.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현수문 부부의 관계를 생각하는 등 섬세하고 풍부하게 서술된다. 이는 현경문의 내면묘사를 통해 부부 갈등이 시작되는 것임을 예시(豫示)하는 것으로, 부부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서사에서 포착되는 현경문의 내면의 특징은 '내적 갈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는 가부장의 권위로 주소저를 제어해야 할지, 그녀를 사랑하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 할지를 놓고 갈등한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접근-회피 갈등(approach-avoidance conflict)'[133]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갈등은 비슷한 강도의 힘이 상반된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할 때 발생한다. 달리 말해,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동기, 목표 또는 욕구가 병존할 때 내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의 목표가 정적 유인가(正的 誘引價, positive valence)와 부적 유인가(負的 誘引價, negative v-alence)를 동시에 지니는 경우가 있다. 목표의 유인가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매력적인 것과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은 것에서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목표에 대한 접근 경향과 회피 경향이 병존할 때 접근-회피 갈등이 발생한다. 요컨대 접근-회피 갈등이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는 목표나 일에 대해 접근과 회피의 심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한다.[134]

작품의 부부서사에서 현경문의 내면 서술을 통해 그가 접근-회피 갈등

---

133) 접근-회피 갈등은 동물 실험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나중에 이 개념은 심리학, 정신 질환 치료 등 분야에서 인간 행동을 모델링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스트레스 요소로서의 접근-회피 갈등은 현대 사회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심리학자 쿠르트 레빈(Kurt Lewin)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Robin L. Aupperle; Andrew J. Melrose; Alex Francisco,; Martin P. Paulus; Murray B. Stein, "Neural substrates of approach-avoidance conflict decision-making", *Human Brain Mapping* Volume 36, John Wiley & Sons, Ltd, 2015, pp. 449-462).

134) 이상 접근-회피 갈등에 대한 정리는 Lewin, Kurt,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McGraw-Hill, 1935, pp. 88-94, pp. 122-128; Bernstein, W. M, *A Basic Theory of Neuropsychoanalysis*, London: Karnac, 2011, pp. 73-82 참고.

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경문의 내면 서술에서 접근-회피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처음에 주소저와 함께 있을 때', ② '주소저와 헤어져 있을 때'와 ③ '주소저가 다시 돌아올 때'가 그것이다.

위에 제시된 시기는 작품 안에서 순서대로 나타난다. 더불어 현경문의 접근-회피 갈등은 현경문의 내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형상화된다. 우선 첫 번째 시기에 주소저의 협제(脅制)와 관련한 갈등, 이어 주소저와 헤어져 있는 두 번째 시기에는 주소저를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에는 주소저를 사랑하면서도 제어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요컨대 시기에 따라 현경문의 내적 갈등이 다양하게 그려지며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서사 초반에 현택지는 현경문이 주소저를 박대한다는 주명기의 암시를 듣고 현경문을 질책한다. 현경문은 주소저 때문에 아버지에게 훈계를 받아 '애달프다'.[135] 이때 현택지가 현경문에게 처가에 가서 자고 오라고 명하자 현경문은 어쩔 수 없이 처가에 간다. 그날 밤에 현경문이 주소저가 경박(輕薄)스럽다고 질책하자 주소저는 부끄러워서 눈물까지 흘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경문은 억지로 주소저와 잠자리를 하겠다고 그녀를 핍박한다. 주소저는 군자의 행실이 아니라며 동침을 거절한다.

이에 현경문은 계속해서 주소저를 비웃고 능멸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현경문은 주소저를 지나치게 비웃고 능멸하면 군자의 "행신(行身)을 휴손(虧損)"[136]하고 일을 더 크게 만들까 걱정되어 진퇴양난에 빠진

---

135) "학ᄉᆡ 한림다려 문왈, "현뎨(賢弟) 엇지 야〃(爺爺)긔 ᄎᆡᆨ을 드ᄅᆞ뇨?" 한림이 드ᄃᆡ여 야〃(爺爺)의 말ᄉᆞᆷ을 젼ᄒᆞ고 탄왈(歎曰), "ᄉᆞ군불츙(事君不忠)과 ᄉᆞ친불효(事親不孝)ᄅᆞᆯ ᄎᆡᆨᄒᆞ시믄 남ᄋᆞ(男儿)의 쾌ᄉᆞ(快事)어니와 처ᄌᆞ(妻子)로 말ᄆᆡ암아 탈관하당(爺爺)ᄒᆞ여 ᄎᆡᆨ을 듯ᄌᆞ오니 엇지 ᄋᆡ돏지 아니리오?""(권1, 10b-11a).

136) "쇼졔 져의 가지록 능명(凌蔑)ᄒᆞ믈 각굴통한(刻骨痛恨)ᄒᆞ여 평ᄉᆡᆼ(平生) 힘을 다하여 구지 밀막으니 ᄉᆡᆼ이 실 졍(情)이 업ᄂᆞᆫ지라 스ᄉᆞ로 ᄌᆞ가(自家)의 ᄒᆡᆼᄉᆞ(行事)ᄅᆞᆯ 우이 너기고 너모 멸시(蔑視)ᄒᆞ미 ᄒᆡᆼ신(形身)의 휴숀(虧損)ᄒᆞᆯ지라 비로쇼 물너 졍좌(正坐)ᄒᆞ니 쇼졔 허튼 의상(衣裳)을 슈념(收斂)ᄒᆞ고 분앙(憤怏)ᄒᆞ믈 니긔지 못ᄒᆞ여 옥면(玉面)이 찬 ᄌᆡ ᄀᆞᆺ고 ᄲᅡᆼ안(雙眼)이 더욱 ᄆᆞᆱ아 졍치(正體) 죠요(照耀)

다. 창밖에서 이 광경을 엿보던 주명기는 화를 참고 시비를 시켜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로 주소저를 불러오게 한다. 다음날 현경문이 주명기를 문병(問病)하러 가자, 주명기는 딸이 불민하니 세상을 뒤덮을 정도의 군자인 현경문에게 모욕당하는 것은 상사(常事)라고 빈정댄다. 현경문은 악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하는데, 주명기가 이 말에 답하기도 전에 후부인이 현경문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현경문은 악부모에게 모욕당했다는 것뿐 아니라 악부모가 자기 부부를 훔쳐보았다는 것 때문에 크게 분노한다. 그러나 그는 당당한 대장부로 여자와 다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분을 참고 현부로 돌아간다. 현경문이 현부에 도착하자 현택지는 현경문에게 주소저를 데려오라고 명한다. 이렇게 주소저 때문에 아버지에게 또다시 질책받은 현경문은 주소저가 자기의 두통거리라고 현수문에게 털어놓는다.

여기에서 현경문은 강제로 주소저와 동침하려고 하면서도, 군자의 위신을 실추할까 걱정하여 이를 회피하기도 한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현경문이 주소저와 동침하겠다고 그녀를 꾸짖으며 핍박하는 것은 겉으로는 부부의 화합을 위한 행동처럼 보인다. 부부관계를 해야만 부부간에 화락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경문은 1세대 가부장인 아버지의 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소저에게 '남자의 소임'을 행하겠다고 한다.[137] 즉 아버지의 권위를 빌려 가부장으로서의 성적 권력을 행사하고 부부관계를 달성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현경문은 주소저와 부부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상술하였듯이 현경문은 주소저를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소저와의 동침은 아버지의 명에 따른 것일 뿐이다. 동침하

ᄒᆞ니 천ᄐᆡ만광(千態萬光)이 교슈미비(嬌羞無比)라 ᄉᆡᆼ이 그 용ᄉᆡᆨ(容色)이 긔이(奇異)ᄒᆞ믈 모로지 아니ᄒᆞᄃᆡ ᄌᆞ긔지심(自己之心)이나 능히 강잉(强仍)키 어려온 고로 셩ᄃᆡ요란(盛大擾亂)ᄒᆞ믈 조히 아니 너겨 쇼져의 처신(處身)을 가비야이 알고 부〃의 은밀지ᄉᆞ(隱秘之事)ᄅᆞᆯ 챵설(彰說)ᄒᆞ믈 크게 미안(未安)ᄒᆞ나 일단 ᄋᆡ련지심(哀憐之心)은 업지 아녀 향각(向刻) 거조(擧措)ᄅᆞᆯ ᄉᆡᆼ각고 옥면(玉面) 봉안(鳳眼)의 미〃(微微)ᄒᆞᆫ 우음을 먹음어 쇼져ᄅᆞᆯ 슉시(熟視)ᄒᆞ니 쥬시 겨유 졍신을 뎡(正)ᄒᆞ여 먼니 좌(坐)ᄒᆞ엿더니 챵외(窓外)의 시녜...”(후략)(권1, 14b-15b).

137) “[현경문이] 링쇼(冷笑) 왈, “ᄉᆡᆼ은 쇼져의 너모 명염(明艶) 특츌(特出)ᄒᆞ믈 ᄭᅥ려 닐너 곳치고져 ᄒᆞ엿더니 져ᄃᆡ도록 노ᄒᆞ여 친쳑(親戚)간 부음(訃音)이나 드론 ᄃᆞ시 셜워울 쥴 어이 알니오 이러나 져러나 오늘은 부명(父命)을 드러시니 가히 남ᄌᆞ의 쇼임을 ᄒᆞ리라.””(권1, 13b).

려는 현경문의 의지는 1세대 가부장인 현택지의 권위에 의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138]

이처럼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현경문은 주소저와 동침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소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군자의 위신을 실추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주소저와의 동침은 현경문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병존이 현경문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주소저와의 동침을 주저하게 만든다. 즉, 그는 주소저를 핍박하려는 심리와 동시에 이를 꺼리고 회피하는 심리 또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주소저와의 관계에 있어, 현경문의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접근-회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주소저와의 부부 갈등에서 현경문이 접근-회피 갈등을 드러내는 장면을 더 살펴보자.

> ② 초일 샹셰 싱을 불너 지셩각으로 보내니 싱이 노ᄒᆞ미 익구존 쇼져의게 도라가 크게 치부(置簿)ᄒᆞ고 이시나 부명을 항거(抗拒)치 못ᄒᆞ여 쥬시로 샹ᄃᆡ(相對)ᄒᆞᄆᆡ 그 지용셩덕(才容性德)을 감동치 아니미 아니로ᄃᆡ 그 아뷔 죄를 ᄯᆞᆯ의게 아니 ᄡᆞ고 어ᄃᆡ 년좌(緣坐)하리오 ᄒᆞᄆᆡ 금셕 ᄀᆞᆺ튼 구든 ᄆᆞ옴이 더욱 어려오니 대강 부〃 량익(兩厄)이 기리가 리엿시미라 싱의 닝안(冷眼)이 죠동(早動)ᄒᆞ여 오ᄅᆡ도록 말이 업더니 믄득 불러 왈, "네 쥬인을 ᄲᆞᆯ니 나리와 명을 드ᄅᆞ라"...(중략)...싱이 즁타(重打)ᄒᆞ여 물니치고 쇼져를 나려 명(命)을 드ᄅᆞ라 ᄒᆞ니 긔식이 츄텬(秋天)의 한월(寒月)이 교〃(皎皎)ᄒᆞ고 삭풍(朔風)이 니ᄂᆞᆫ ᄃᆞᆺᄒᆞ니 ᄎᆞ고 어려온 빗치 ᄉᆞ좌(四座)의 ᄡᆞ이나 쇼져ᄂᆞᆫ 조금도 어려온 빗치 업셔 ᄌᆞ약(自若)ᄒᆞ니 싱이 경아(驚訝)ᄒᆞ여 싱각ᄒᆞᄃᆡ, '이 녀지 강렬(强烈)ᄒᆞ미 용녈(庸劣)ᄒᆞᆫ 남ᄌᆞᄂᆞᆫ 졔어(制御)키 어렵도다' ᄒᆞ며 더욱 단속(團束)ᄒᆞᆯ ᄯᆞᆺ이 급ᄒᆞᄃᆡ 부뫼 아ᄅᆞ실가 져허 쇼ᄅᆡ를 나죽이 ᄒᆞ여시나 옥면(玉面)은 ᄎᆞᆫ 지 ᄀᆞᆺᄐᆞ니...(후략)[139]

---

138) 이는 서사 후반부 현경문이 스스로 주소저와 동침하려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관해서는 이 절 뒷부분에서 논하기로 한다.

139) 권1, 40a-41b.

3 싱이 시ᄋᆞ(侍兒)를 명(命)ᄒᆞ여 쇼져를 뫼셔가 슈〃(嫂嫂)긔 환후(患候)를 아라 오라 ᄒᆞ고 쥬시 계졍(階庭)의 나리ᄆᆡ 팔흘 미러 보ᄂᆡᆫ 후 비로쇼 방즁(房中)의 드러 안ᄌᆞ 모구(毛具)를 나리와 닙고 그윽이 ᄌᆞ기(自己)의 힝ᄉᆞ(行事)를 우으며 쇼져의 거동을 도로혀 츄연(惆然)ᄒᆞ여 싱각ᄒᆞ ᄃᆡ, 'ᄂᆡ ᄌᆞ쇼(自少)로 셩졍(性情)이 인약(仁弱)ᄒᆞ여 지어(至於) 노복(奴僕)의게도 혹벌(酷罰)을 ᄡᅳ지 아냣거ᄂᆞᆯ 쥬시ᄂᆞᆫ 경국(傾國) 귀(貴) 쇼져라 ᄒᆞ믈며 부모의 독녀(獨女)로 바ᄅᆞᆷ만 ᄆᆡ이 부러도 촉샹(觸傷)ᄒᆞᆯ가 두릴 거시어ᄂᆞᆯ 앗가 그런 치위의 우셜(雨雪)을 무릅ᄡᅵ 일야(一夜)를 지ᄂᆡ게 ᄒᆞ니 군ᄌᆞ(君子)의 인덕(仁德)이 아니오 ᄯᅩᄒᆞᆫ 슈(數) 삼ᄌᆡ(三載) 날노 더브러 부〃지낙(夫婦之樂)을 니ᄅᆞ지 말고 ᄒᆞ로도 일방(一房) 즁(中)의 화평(和平)히 ᄃᆡᄒᆞ여 본 젹이 업ᄉᆞ니 내 도로혀 젹불션(積不善)의 일을 힝(行)ᄒᆞᄂᆞᆫ도다' ᄒᆞ고 스ᄉᆞ로 심ᄉᆞ(心思)를 어루만져 좌ᄉᆞ우샹(左思右想)ᄒᆞᆯ ᄉᆞ이의 효긔(曉雞) 늉늉(隆隆)ᄒᆞ고 금계(金雞) 빈챵(頻唱)ᄒᆞ니...(후략)[140]

위 인용문 2는 현경문과 주소저의 갈등을 묘사한 또 다른 장면이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현경문의 악부 주명기는 조카인 육취옥이 현경문에게 모욕당했다는 말을 듣고 현경문을 짐승이나 오랑캐 같은 일을 했다고 모욕한다. 사실 이는 육취옥이 현경문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한 거짓말인데, 주명기가 내막을 모른 채 현경문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이다. 이에 현경문은 주명기에게 화를 내고 옹서지간을 끊겠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안 현택지는 현경문에게 벌을 내린다.

샹셰 비로소 싱을 명ᄒᆞ여 의관(衣冠)을 쥬며 오ᄅᆞ라 ᄒᆞ니 한님이 ᄌᆞ긔 죄목(罪目)을 싱각ᄒᆞ고 그윽이 참슈(慙羞)ᄒᆞ며 미셰ᄒᆞᆫ 몸과 달나 좌우(左右)의 슈풀 ᄀᆞᆺᄐᆞᆫ 하예(下吏) 운집(雲集)ᄒᆞ엿ᄂᆞᆫᄃᆡ 몸이 오히려 형판(刑板)의 ᄆᆡ이여시니 쳔하(天下) 사ᄅᆞᆷ의 긔쇼(譏笑)를 면치 못ᄒᆞᆯ지라 원(怨)과 한(恨)ᄒᆞ미 그 뉘게로 도라가리오 쥬시를 통한(痛恨)ᄒᆞ미 깅가일층(更

140) 권1, 44a-44b.

加一層)ᄒᆞ여 밋고 풀니지 아니니 가히 어렵더라[141]

처벌을 받은 현경문은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한다. 이때 서술자는 현경문이 심한 벌을 받고 몸이 형판에 묶인 채 있게 되어 남들의 비웃음을 샀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주소저에 대한 현경문의 원한이 한층 깊어져 풀리기 어렵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소저와의 불화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받은 책망과 처벌, 악부모로부터 당한 모욕 때문에 현경문이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주소저에 대한 현경문의 감정이 애달픔에서 원한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현경문은 자신의 원한을 주소저에게 전가하고, 주소저를 만나기 싫어하면서도 아버지 현택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 함께 밤을 지낸다. 현경문은 자신의 가부장적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주소저에게 자기 명을 따르라고 한다. 주소저가 이를 거절하자 좌절감을 느낀 현경문은 주소저의 유모와 시비를 때린다. 하지만 주소저가 두려워하지 않자 이에 놀란 현경문은 주소저를 제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지점에서 현경문의 내적 갈등이 확인된다. 현경문은 폭력을 써서라도 주소저를 제어하고 싶지만, 자기가 폭력을 썼다는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를 통해 현경문의 접근-회피 갈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 [3] 역시 [2]와 마찬가지로 부부싸움으로 인한 현경문의 심한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장면은 인용문 [2]에 이어지는 대목으로, 현경문이 주소저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이다. 현경문과 주소저가 싸우는 바람에 주소저는 얇은 옷차림으로 추운 날씨에 눈과 비를 맞고 있다. 반면 현경문은 실내에 앉아 있다. 현경문은 이러한 주소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때 현경문의 형수 하소저가 그들의 부부싸움을 눈치챈 후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유모를 통해 현경문에게 전한다. 이 소식을 들은 후 현경문은 주소저를 하소저에게 보낸다. 주소저가 나간 후에 현경문은 혼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고민에 빠진다.

---

141) 권1, 36a-36b.

현경문은 하소저의 유모가 오기 전까지 “청이불문(聽而不聞)”하고 앉아 있을 뿐이다.[142] 현경문의 내면묘사에 주목하면 그의 내적 갈등이 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경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지만, 마음속으로 주소저가 “병들까 우려”하는 동시에 주소저에게 “구구히 빌려고 하지 않겠다고도 하기 때문이다.[143] 현경문이 주소저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가 접근-회피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내적 갈등은 부부 갈등을 보다 오래 지속시킨다. 현경문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고 주소저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었다면 그들의 부부 갈등이 멈췄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경문의 내적 갈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소저를 보낸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는 계속해서 주소저를 밖에 서 있게 해야 할지 갈

---

142) “싱이 다시 홀 말이 업셔 묵연(默然) 졍식(正色)ᄒᆞ나 진실노 구름 ᄀᆞᆺ튼 은졍(恩情)이 업ᄂᆞᆫ지라 이러구러 밤이 깁흐ᄃᆡ 쇼져ᄅᆞᆯ 쳥(請)ᄒᆞ여 오르라 ᄒᆞ미 업더니 문득 풍위ᄃᆡ쟉(風雨大作)ᄒᆞ고 우ᄅᆡ(雨雷) 쇼ᄅᆡ 진동(震動)ᄒᆞ며 쳠하(簷下)의 어ᄌᆞ러이 드르치니 쇼져의 신샹(身上)의 난만히 ᄡᅩ이ᄃᆡ 좌ᄎᆞᄅᆞᆯ 기웃도 아냐 팔졍 ᄭᅳᆺ고 단졍히 셧시니 찬 긔운이 계변(階邊)의 ᄆᆡ화(梅花)ᄅᆞᆯ 니긔ᄂᆞᆫ지라 싱이 일단 경녀(驚慮)ᄒᆞ미 이시ᄃᆡ 그 거동을 보려 쳥이불문(聽而不聞)ᄒᆞ고 ᄌᆞ개 ᄯᅩᄒᆞᆫ 금침(衾枕)을 찻지 아녀 거챵(居窓) 단좌(端坐)ᄒᆞ여 밤을 ᄉᆡ올 거동을 ᄒᆞᆯᄉᆡ 잇ᄯᅡᆨ 쵸동(初冬) 십월이라 텬긔(天氣) ᄃᆡ한(大寒)ᄒᆞ여 겹〃 모의(毛衣)ᄅᆞᆯ 닙고 더운 방(房)의 잇셔도 치울지라 쇼져ᄂᆞᆫ 계졍(階庭)의 셧시ᄆᆡ 나삼(羅衫)과 션삼(線衫)의 비 ᄯᅥ러져 경긱(頃刻)의 어름이 되고 싱은 거챵(居窓)ᄒᆞ여 안져시니 치운 긔운이 골졀(骨節)을 부우ᄂᆞᆫ ᄃᆞᆺᄒᆞᄃᆡ 량인(兩人)이 텬싱일ᄃᆡ(天生一對)라 ᄌᆞ금도 어려온 빗치 업시 싱의 거동은 구츄샹텬(九秋霜天) ᄀᆞᆺ고 쇼져ᄂᆞᆫ 셜니ᄆᆡ화(雪裏梅花) ᄀᆞᆺᄐᆞ니 모든 시비(侍婢) 챵황(惝怳)ᄒᆞ나 어ᄃᆡ 가 ᄒᆞᆫ 말을 ᄒᆞ리오 져ᄒᆡ도 ᄀᆞᆺ치 비 맛고 셧실 ᄲᅮᆫ이오 냥파(婆)ᄂᆞᆫ 느러지게 마ᄌᆞ 쳠하(簷下) 기ᄉᆞᆯ의 브ᄃᆡ져 업ᄃᆡ여시니 ᄎᆞ시(此時) 경샹(景狀)이 가쟝 슈참(愁慘)ᄒᆞᆫ지라...(중략)...이ᄯᅡᆨ 학ᄉᆞᄂᆞᆫ 친우(親友)의 연ᄒᆡ(宴會)의 가고 하쇼제 이 일을 아나 슈〃(嫂嫂) ᄉᆞ이의 혐의(嫌疑)에 구ᄋᆡᄒᆞ니 비록 련측(憐惻)ᄒᆞ나 구ᄒᆞᆯ 계긔 업셔 ᄒᆞ미 이러구러 효계(曉雞) 악〃(喔喔)ᄒᆞ거ᄂᆞᆯ 싱이 몸을 니러보니 ᄌᆞ긔(自己)ᄂᆞᆫ 방즁(房中)의 안져시ᄃᆡ 칩기 골졀(骨節)을 부ᄂᆞᆫ ᄃᆞᆺᄒᆞ고 ᄋᆞᄉᆡ 어름이 곳곳지 잇거ᄂᆞᆯ 쇼져ᄂᆞᆫ 바로 당젼(堂前)ᄒᆞ여 셔시니 만신(滿身)이 다 어름이 되여시ᄃᆡ 옥면(玉面) 츄파(秋波)의 효셩(曉星)이나 ᄌᆞᄒᆞ고 단슌(丹脣)을 구지 함묵(含默)ᄒᆞ여 비컨ᄃᆡ 셜(雪)만 궁항(窮巷)의 고숑(古松)이 독닙(獨立)ᄒᆞᆷ ᄀᆞᆺᄐᆞᆫ지라.”(권1, 42b - 43b).

143) “싱이 그 견강(健剛)ᄒᆞ믈 가쟝 어려히 너기고 병들가 우려(憂慮)ᄒᆞᄃᆡ 구〃히 비ᄃᆞᆫ 아니려 ᄒᆞ여 다만 눈으로 슉시(熟視)ᄒᆞ고 다만 혀 ᄎᆞ기ᄅᆞᆯ 마지 아니니 하시 유모(乳母) 진ᄅᆡ(進來) 샹젼(上前) 고왈, “우리 쇼졔 곽긔(癨氣) 겨셔 학ᄉᆞ 노야(老爺)도 계시지 아니니 엇지 ᄒᆞ리잇고” 싱이 짐ᄌᆞ고 닐오ᄃᆡ...”(후략)(권1, 43b-44a).

등한다. 인용문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이는 유교적 가부장이 가져야 할 '경'이라는 이념과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경문은 자신이 주소저에게 빌면 가부장의 체면이 손상될 것을 우려한다. 즉 주소저를 계속 밖에 세워 두는 것은 가부장으로서 현경문의 권위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동시에 유교적 가부장의 이념과 윤리에 어긋나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 갈등에서 가부장의 권력을 실행하고자 하는 동시에 이를 회피하려는 내적 갈등이 발생한다. 심지어 현경문은 날이 밝을 때까지 고민하는데, 이를 통해 그의 접근-회피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임이 드러난다.

이상 살펴본 바『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시기의 현경문의 내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현경문의 내면묘사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리고 부부 갈등 과정에서 그의 내면이 상세하게, 반복해서 서술된다. 둘째, 현경문의 내면에서는 접근-회피 갈등 양상이 나타나며 이는 주소저를 강압적으로 제어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고민을 통해 묘사된다. 셋째, 현경문의 내면묘사가 부부 갈등을 예시하며, 현경문의 내적 갈등은 부부 갈등을 더욱 오래 지속되게 한다. 요컨대 주소저와의 첫 만남 이후 그녀와 함께 있는 경우, 현경문의 내면은 지속적이며 상세하고 일관되게 표현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소저의 부재(不在) 상황에서 현경문의 내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주소저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경문의 내적 갈등은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상황과 유사하다. 현경문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서사 전개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또한 현경문의 내적 갈등 역시 접근-회피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접근-회피 갈등이 주소저를 강압적으로 제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저를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는 주소저의 부재로 인해 부부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런데 앞서 확인한 것처럼 현경문은 주소저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며, 심지어 부부 갈등으로 인해 주소저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

된다. 그렇다면 현경문은 주소저를 사랑하는 감정을 언제부터 드러내는가?

현경문이 주소저에 대한 사랑을 표출하는 것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확인된다. ① '주소저가 아버지 주명기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후', ② '주소저가 납치되어 종적이 묘연한 후', ③ '주소저의 시체가 발견되어 주소저가 죽은 것으로 안 후'가 그것이다. 우선 주소저가 아버지 주명기와 고향으로 떠나겠다고 한 뒤 묘사되는 현경문의 내면을 살펴보자.

현경문이 처음 주소저가 떠나는 것을 허락했을 때, 서운한 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144] 그러나 주소저가 떠나기까지 이틀 남았을 때, 현경문은 결연한 감정이 생긴다.[145] 이후 현경문은 주소저와 악부 주명기를 송별하고 집에 돌아와 가시를 벗은 듯 시원할 줄 알았는데, 주소저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마음이 좋지 않으며, 주소저에게 떠나라고 허락한 것을 후회한다.[146]

이처럼 주소저와 이별한 후 기분이 좋지 않은 현경문은 이듬해에 주소저를 그리워하기 시작한다. 아래 인용문은 주소저가 떠난 후 현경문의 내면을 묘사한 장면의 일부이다.

> 한님은 쳥츈장년(靑春壯年)의 한금(寒衾)이 뮤류ᄒᆞ고 의복(衣服)의 한셔(寒暑)의 ᄯᅢ를 맛쵸지 못ᄒᆞᄂᆞᆫ지라 뉵시는 노녀(老女)인 ᄀᆞᆺᄐᆞ여 힝혀 얼골을 ᄃᆡ(對))ᄒᆞᆯ가 겁(怯)ᄒᆞᄂᆞᆫ지라 ᄎᆞ시(此時)를 당ᄒᆞ여 젼쟈(前者)의

---

144) "공(公)이 이의 쥬어ᄉᆞ의 쇼원(所願)을 셜파(說破)ᄒᆞ고 짐ᄌᆞᆺ 닐오ᄃᆡ, "쥬형(兄) 부녀(父女)의 졍ᄉᆡ(情事) 츄연(惆然)ᄒᆞᆫ지라 내 허(許)ᄒᆞ여시니 네 엇지코져 ᄒᆞᄂᆞ다" ᄉᆡᆼ이 심하(心下)의 놀ᄂᆞ나 ᄯᅩᄒᆞᆫ 과도(過度)히 결연(缺然)ᄒᆞᆫ ᄯᅳᆺ은 젹은지라." (권2, 20b-21a).

145) "ᄉᆡᆼ이 비록 풍졍(風情)이 젹으나 불의(不意)의 원별(遠別)을 결연(缺然)ᄒᆞ며 ᄎᆞ야(此夜)의 ᄌᆡ셩각의 드러가니 쇼졔 업ᄂᆞᆫ지라."(권2, 21b).

146) "[현경문이] 쥬시를 니별(離別)ᄒᆞ고 도라오니 등의 가ᄉᆡ를 버슨 ᄃᆞᆺ ᄉᆡ훤ᄒᆞᆯ 거시로ᄃᆡ 당ᄎᆞ시(當此時)ᄒᆞ여ᄂᆞᆫ 그러치 아냐 쇼루히 허락(許諾)ᄒᆞᆫ 줄 뉘웃쳐 ᄌᆡ셩각 즁깁챵이 구지 ᄌᆞᆷ겨 옥인(玉人)의 그림ᄌᆡ 묘연(渺然)ᄒᆞ니 심ᄉᆡ(心思) 죠치 아냐 ᄉᆡᆼ각ᄒᆞᄃᆡ, '내 졀로 더브러 ᄒᆞᆫ 번 화평(和平)이 대(對)ᄒᆞᆫ 젹이 업셔 야야(爺爺)긔 슈칙(受責)ᄒᆞ미 져의게 불호(不好)ᄒᆞ미 만흐나 만ᄉᆡ(萬事) 유화(柔和) 타연(泰然)ᄒᆞ여 쟝부(丈夫)의 밋지 못ᄒᆞᆯ ᄇᆡ로ᄃᆡ 내 그 덕(德)을 아지 못ᄒᆞ고 짐ᄌᆞᆺ 그 부모(父母)를 조ᄎᆞ 가게 ᄒᆞ니 기졍이쳐의(其情意凄矣)라 내 엇지 그리 ᄆᆡ몰ᄒᆞ던고' 이러ᄐᆞᆺ ᄉᆡᆼ각ᄒᆞ여 고요ᄒᆞᆫ 밤 다 죠용ᄒᆞ나 ᄌᆡ(再) 샹샹(想像)ᄒᆞ여..."(후략)(권2, 34a-34b).

쥬시를 ᄆᆡ몰턴 줄이 츄회(追悔)ᄒᆞ여 쟝야단일(長夜短日)의 젼젼반측(轉轉反側)ᄒᆞ나 옥인(玉人)의 그림ᄌᆡ 묘연(渺然)ᄒᆞ여 관산(關山)이 길흘 막고 ᄋᆡ각(涯角)이 즈음쳐 **쳥되**(靑鳥) 신(信)을 젼(傳)치 아니니 희허쵸챵(噫噓怊悵)ᄒᆞ믈 면치 못ᄒᆞ더라.[147]

현경문은 그동안 주소저에게 매정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전전반측(輾轉反側)한다. 그는 마음이 섭섭하고 주소저가 그리워 그녀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주명기가 고향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현경문은 주소저에게 박정했던 것을 반성하며 그녀를 그리워하고 깊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주소저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148] 그러나 현경문은 속으로는 주소저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기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요컨대 현경문이 주소저를 사랑하는 감정은 주소저가 아버지 주명기와 고향으로 돌아간 후부터 시작되며 이는 주로 주소저에게 박정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주소저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현경문이 주소저를 사랑하는 감정은 주소저와 헤어지고 나서 그의 내면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소저가 요승 월청에게 납치되고 도적 대호 장군에게 팔려 종적이 묘연해졌을 때 현경문의 내면은 어떻게 서술되는가? 이는 아래 인용문에서 찾을 수 있다.

---

147) 권3, 9a.

148) “샤인이 십오 쟝년(壯年)의 독슈공방(獨守空房)이 지리ᄒᆞ여 뉵시 ᄀᆞᆺ튼 거슨 여시ᄂᆞ인(如視路人)ᄒᆞ여 힝혀 만놀가 피(避)ᄒᆞ고 ᄎᆞ시(此時)를 당ᄒᆞ여 쥬쇼져의 옥태(玉態) 월광(月光)이 안젼(案前)의 버러시며 쳥화(靑花) 야경(夜景)이 이변의 징징(琤琤)ᄒᆞ니 젼일(前日) 무고(無故)ᄒᆞᆫ 박ᄃᆡ(薄待) 태심(太甚)ᄒᆞ여 ᄌᆡ셩각 중의 드리치고 면목불견(面目不見)ᄒᆞ며 혹 잇다 감ᄃᆡ(感戴)ᄒᆞ나 반호(半毫) 인졍(人情)이 업시 구던 일이 ᄌᆞ긔지심(自己之心)이나 놀납고 고이ᄒᆞ여 그 잔잉(殘仍)ᄒᆞᆫ 신셰(身世)를 츄연년셕(惆然憐惜)ᄒᆞ니 방금 ᄎᆞ시(此時)ᄒᆞ여ᄂᆞᆫ 죵야불ᄆᆡ(中夜不寐)ᄒᆞ믈 면(免)치 못ᄒᆞ고 젼젼반측(輾轉反側)ᄒᆞᄃᆡ 말이 쾌(快)치 못ᄒᆞ여 능히 쇼져의 오기를 ᄌᆡ촉(催促)지 못ᄒᆞ더니 셩샹(聖上)이 쥬어ᄉᆞ의 인ᄌᆡ(人才)를 앗기샤 탁용(擢用)ᄒᆞ시니 깃브믈 이긔지 못ᄒᆞ여 쳔균지심(天君之心)이나 흔희(欣喜)ᄒᆞ미 비길 ᄃᆡ 업셔 가마니 날을 헤여 져의 환향(還鄕)ᄒᆞ기를 죄오나 외모(外貌)ᄂᆞᆫ 쉭쉭ᄒᆞ여 젼후(前後) 긔식이 ᄒᆞᆫ가지라 부뫼(父母)라도 그 ᄯᆞᆺ을 아지 못ᄒᆞ여 긔식을 탐관(探觀)ᄒᆞᆯ ᄲᆞᆫ이러라.”(권4, 1b-2b).

샤인이 믈너와 죽셔당의 니ᄅᆞ러 광슈(廣袖)로 ᄂᆞᆺ출 덥고 혜아리ᄆᆡ, ‘쥬쇼져의 옥질빙ᄌᆡ(玉質氷資) 아모리 되여시믈 아지 못ᄒᆞ여 ᄌᆞ가(自家)의 젼일(前日) 박졍(薄情)ᄆᆡ야ᄒᆞ던 일을 ᄉᆡᆼ각ᄒᆞᄆᆡ 몸을 쳐벌(處罰)ᄒᆞ고져 ᄒᆞᄂᆞᆫ지라’ 갓기ᄂᆞᆫ 한(恨)과 년셕(憐惜)ᄒᆞᄂᆞᆫ 졍(情)이 겸ᄒᆞ여 죵야불ᄆᆡ(終夜不寐)ᄒᆞ고...(후략)[149]

위 인용문은 현경문이 돌아온 가(假) 주소저를 의심하는 장면이다. 현경문은 주소저로 변신한 황숙 임강왕의 딸 형아를 보고 나서 진짜 주소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경문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고, 자기는 침소에서 얼굴을 덮고서 고민한다. 그는 주소저에게 박정하던 것을 뉘우쳐 자신을 처벌하고자 할 정도로 한탄한다. 현경문은 주소저를 생각하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운다. 이를 통해 현경문이, 자신이 주소저를 냉대한 일에 대해 죄책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죄책감은 일종의 자기 처벌적 분노이기 때문이다.[150]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한탄하고 불면증에 걸릴 정도로 고민하는 현경문의 모습은 주소저의 사생(死生)이 대호 장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거듭 확인된다.[151] 현경문은 자기 때문에 주소저가 죽었다고 자책한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소매로 얼굴을 덮으면서 탄식한다. 그러나 이렇게 슬퍼하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주소저가 납치되어 종적이 묘연해진 상황에서 현경문은 계속 고민한다. 더불어 이 상황에서 현경문의 내면묘사는 주소저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후 확인되는 현경문의 내면묘사와 유사하다. 두 상황에서 현수문의 심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현경문은 주소저에게 매정했던 것을 반성하며 후회하는 동시에, 주소저를 그리워한다. 둘째, 현경문의 고민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매우 깊은 것으로 나

149) 권4, 5a.

150) 마사 너스바움, 앞의 책, 379면.

151) “ᄉᆡᆼ이 즁방의 시비(是非) 분운(紛紜)ᄒᆞ믈 괴로오믄 일ᄅᆞ지 말고 진실노 빅인(伯仁)이 유아이ᄉᆡ(由我而死)라 슬프미 업지 아녀 샤ᄅᆞᆷ 업ᄉᆞᆫ 곳을 만ᄂᆞ면 광슈(廣袖)로 면챠(面遮)ᄒᆞ고 희허탄식(欷歔歎息)ᄒᆞ며 쟝탄단우(長歎短吁)ᄒᆞ되 표형(表兄) 등의 긔쇼ᄅᆞᆯ 슬히 너겨 외모(外貌)ᄂᆞᆫ 텬연화평(天然和平)ᄒᆞ더니...”(후략)(권4, 14a-14b).

타난다.

그러나 위의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주소저가 납치되어 종적을 모르는 상황에는 현경문의 고민이나 감정이 더 깊이 있게 묘사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소저가 고향에 가 있었을 때는 현경문은 자신이 매정하던 것을 후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주소저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현경문은 자신을 처벌하고 싶을 정도로 한하면서 잠을 완전히 포기한다. 그래서 현경문의 후회하는 정도나 사랑하는 감정이 더 깊은 것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소저가 위험에 처할수록 현경문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또한 현경문이 그의 감정이나 고민이 드러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현경문이 고민할 때 항상 소매로 얼굴을 덮거나 속으로는 매우 슬프면서도 "외모(外貌)는 천연화평(天然和平)"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현경문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주소저를 사랑하는 감정이 커지자 현경문은 불면에 시달리게 된다. 현경문은 주소저를 사랑하는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는 동시에 이를 회피하려 한다. 이 역시 접근-회피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소저가 죽은 것으로 안 후에 현경문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현경문이 파촉 서천에서 출전하고 돌아온 후 그의 내면을 살펴보자.

> 4 병뷔 하시로 원별(遠別)을 니ᄅᆞ며 ᄉᆡ로온 은ᄋᆡ(恩愛) 여산약ᄒᆡ(如山若海)ᄒᆞᄃᆡ 총ᄌᆡᄂᆞᆫ 야야(爺爺)ᄅᆞᆯ 시침(侍寢)ᄒᆞ고 부친(父親)이 내침(內寢)ᄒᆞᄂᆞᆫ 날은 쥭셔당의셔 ᄌᆞ고 나ᄌᆡᄂᆞᆫ 힝혀도 뉵시ᄅᆞᆯ 셔로 보지 아닐 분 아니라 가즁(家中) 홍쟝미(紅薔薇)ᄋᆡ 슈풀 ᄀᆞᆺᄐᆞᄃᆡ 의ᄉᆡ 찬ᄌᆡ ᄀᆞᆺᄐᆞᄃᆡ 다만 운유쟈의 옥슈지란(玉樹芝蘭) ᄀᆞᆺᄐᆞᆫ 풍ᄎᆡ(風采)ᄅᆞᆯ 잇지 못ᄒᆞ여 침ᄌᆡ(寢坐)의 ᄉᆡᆼ각ᄒᆞ여 ᄀᆞᆯ오ᄃᆡ, '쥬시 텬ᄉᆡᆼ려질(天生麗質)이 츌어범뉴(出於凡流)ᄒᆞᄃᆡ 명(命)이 박(薄)ᄒᆞ고 슈(壽) 단(斷)ᄒᆞ니 쟝뷔(丈夫) 신슌(信順)의 어리믈 효측(孝則)ᄒᆞᆯ 거시 아니오 부뫼(父母) 반ᄃᆞ시 취처(娶妻)ᄒᆞ믈 명(命)ᄒᆞ시리니 만일(萬一) 뉵시 ᄀᆞᆺᄐᆞᆫ 위인(爲人)이 드러오면 일ᄉᆡᆼ(一生) 두통(頭痛)이 될지라 져 운유쟤 결비(決非) 남ᄌᆡ라 내 기시의 근본(根本)을 판단(判斷)ᄒᆞ여 만일(萬一) 규슈(閨秀)여든 례(禮)로 마ᄌᆞ도 유ᄒᆡ(有害)치 아니ᄃᆡ 다만 ᄂᆡ ᄆᆞ음이 당ᄎᆞ시(當此時)ᄒᆞ여ᄂᆞᆫ 쥬시 향(向)

ᄒᆞᆫ ᄯᅳᆺ이 너모 구구(久久)ᄒᆞ여 다시 타인(他人)으로 화락(和樂)ᄒᆞᆯ ᄯᅳᆺ이 돈연(頓然)ᄒᆞ니 이 ᄯᅩ 병통(病痛)이로다'.[152]

인용문 4는 서사 중반 부분으로 현경문 형제가 파촉 서천에 출전하여 도적 울지대를 물리친 후 집에 돌아온 현경문의 내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때 주소저는 일광대사의 명을 받아 운유자로 변하여 현경문 형제가 울지대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준다. 울지대를 물리치고 집에 돌아온 현경문은 낮에 만난 운유자를 잊지 못하며 주소저의 미모를 생각하며 그리워한다.

주목할 점은 현경문이 운유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앞서 확인한 주소저가 고향으로 떠난 뒤, 그리고 주소저가 납치되어 종적이 묘연할 때 현경문이 주소저에게 매정했던 것을 반성하는 모습이 아닌 운유자를 사랑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마치 현경문이 주소저를 사랑하는 감정이 운유자에게 옮겨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현경문은 운유자를 잊지 못하면서도 주소저에 대한 사랑을 먼저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역시 현경문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한편 현경문이 주소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운유자로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주소저에게로 향한다. 더불어 현경문은 주소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낸 뒤, 주소저가 돌아오게 된 후 그 감정의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때 현경문의 사랑은 절정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ᄉᆡᆼ이 원간 외뫼(外貌) 유화(有和) ᄂᆞ즉ᄒᆞ나 기심(其心)은 쥬쇼져 향(向)ᄒᆞᆫ 일심(一心)은 잔잉 ᄎᆞᆷ졀(慘絶)ᄒᆞ여 반ᄀᆡᆨ(半刻)도 노힌 젹 업더니...(중략)...ᄎᆞᆼᄌᆡ의 쳘셕간쟝(鐵石肝腸)이 요동(搖動)ᄒᆞ여 ᄉᆞᆫ을 드러 쟝(帳)을 것고 바라보ᄆᆡ 교위(交椅) 우ᄒᆡ ᄒᆞᆫ ᄂᆞᆺ 목쥐(木主) 외로이 노혀시니 그 슬프고 쳐량(淒涼)ᄒᆞᆫ 거동이 일과지ᄉᆞ(一過之士)의 타누(墮淚)ᄒᆞᆯ ᄇᆡ라 기리 읍(揖)ᄒᆞ고 일쟝(一場)을 통곡(痛哭)ᄒᆞᄆᆡ 슬픈 곡셩(哭聲)이 양쟝 쳐쇼(淒楚)ᄒᆞ니 만일 쥬쇼져의 진짓 넉시 이실진ᄃᆡ 유명지간(幽冥之間)의 감동(感動)ᄒᆞᆯ 거시로ᄃᆡ 이 신쥬ᄂᆞᆫ(神主) 얼토덜토 아닌 ᄉᆞ름이라.[153]

152) 권5, 24a-24b.

6 [현경문이] 슈일(數日)이 지ᄂᆞᆫ 후 니뷔 부젼(父前)의 고(告)ᄒᆞ고 셩외(城外) 취별산 쥬쇼져 산쇼(山所)의 ᄂᆞ아가 곡빈(哭拜)ᄒᆞᆯᄉᆡ 산천(山川) 경물(景物)이 쇼쇄ᄒᆞ여 슬피 우ᄂᆞᆫ 두견(杜鵑)의 쇼리 더욱 심ᄉᆞ(心思)ᄅᆞᆯ 술오니 ᄉᆡᆼ이 집의셔ᄂᆞᆫ 봉친지하(奉親之下)의 무시곡읍(無時哭泣)을 못ᄒᆞ다가 금일(今日) 무지 공산(空山)의 외로온 무덤이 쳐량(淒涼)ᄒᆞ니 ᄂᆞ아가 읍(揖)ᄒᆞ고 일쟝(一場)의 방셩대곡(放聲大哭)ᄒᆞ여 슬픈 누쉬(淚水) 오월(五月) 쟝슈 ᄀᆞᆺᄐᆞ니 하리(下吏) 등이 민망ᄒᆞ여 ᄒᆞᄃᆡ 감히 위로(慰勞)치 못ᄒᆞ더니 ᄎᆞᆼᄌᆡ 두어 식경(食頃)이나 통곡(痛哭)ᄒᆞᆯᄉᆡ 춤연(慘然)ᄒᆞᆫ ᄯᆞᆺ을 이긔지 못ᄒᆞ여 능히 ᄂᆞᆯᄂᆡ니지 못ᄒᆞ더니 스ᄉᆞ로 쳔만(千萬) 관격ᄒᆞ여 좌우(左右)로 ᄒᆞ여금 디변(地邊)의 ᄎᆞᆼ잡(叢雜)ᄒᆞᆫ 슈목(樹木)을 베히고 친히 분샹(墳上)의 ᄯᆡᄅᆞᆯ 슈렴(收斂)ᄒᆞᆫ 후 다시 곡졀ᄒᆞ기ᄅᆞᆯ 맛ᄎᆞᄆᆡ...(후략).[154]

인용문 5는 인용문 4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현경문이 주소저의 죽음에 통곡하는 장면이다. 현경문은 주소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으며 그녀의 죽음에 몹시 슬퍼한다. 인용문 6 역시 현경문이 통곡하는 장면이다. 그는 현택지의 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철소저와 결혼한다. 그런데 결혼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현경문은 주소저의 무덤에 간다. 주소저의 무덤에서 그는 울며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상심(傷心)한다.

앞서 직접적으로 현경문의 내면을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위 인용문은 타인이나 주변 환경의 묘사를 통해 현경문의 내면을 부각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주소저의 넋이 있으면 저승에 있어도 감동할 것이다', '두견의 울음소리' 등 일련의 묘사를 통해 그의 슬픔이 두드러진다. 이는 곧 주소저를 향한 현경문의 깊은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경문이 부모 앞에서는 제대로 슬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현경문은 주소저의 죽음에 대한 슬픈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용문 4와 5에서 제시되었듯이 현경문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소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다. 이는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상황, 즉 주소저와 처음 만나 함께 있을

153) 권5, 25a-25b.
154) 권6, 23a-24a.

때 확인한 현경문의 내적 갈등과 유사하다. 현경문은 주소저를 사랑하는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는 동시에 그러한 것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심리 또한 접근-회피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현경문의 내적 갈등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혼잣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은 꿈을 통해 현경문의 내면을 묘사한 대목이다.

> 츠야(此夜)의 총지 일몽(一夢)을 어드니 몸이 취별산의 그져 잇거늘 슬허 불너 왈(曰), "부인의 향령(香靈)이 어이 그ᄃᆡ도록 ᄆᆡ아ᄒᆞ여 꿈의도 뵈지 아니ᄒᆞᄂᆞ뇨 셕년(昔年)의 쇼싱(小生)이 식안(識眼)이 불명(不明)ᄒᆞ고 냥익(兩厄)이 태심(太甚)ᄒᆞ여 부인을 져바림이 만커니와 엇지 맛춤ᄂᆡ 구원영결(九原永訣)이 될 줄 알니오" 인ᄒᆞ여 톄희탄식(涕唏歎息)ᄒᆞ여 숀으로 분샹(墳上)을 어ᄅᆞ만져 암암(暗暗)이 슬허ᄒᆞ더니 문득 샹면(上面)이 졀노 열이며 ᄒᆞᆫ 녀지 나와 셔시니 ᄂᆞᆺ과 몸이 다 샹(傷)ᄒᆞ여 뵈미 금죽ᄒᆞᄃᆡ 총지ᄂᆞᆫ 쳘구금심(鐵軀金心)이라 각별 놀나지 아니터니 그 녀지 싱을 향(向)ᄒᆞ여 만복(萬福)을 일ᄏᆞ라...(중략)...심하(心下)의 고이히 너겨 지삼(再三) 샹량(商量)ᄒᆞ여 능히 ᄭᆡᄃᆞᆺ지 못ᄒᆞ고 심시(心思) 시로이 비열(悲咽)ᄒᆞ더니 스ᄉᆞ로 ᄌᆞ칙(自責) 왈, "셩인(聖人)은 불무몽견쥬공(不復夢見周公)이라 ᄒᆞ여 겨시거늘 나ᄂᆞᆫ 이졔 녀ᄌᆞ를 꿈꿈이 가히 군지(君子) 되지 못ᄒᆞ리로다" 이ᄅᆞᆺᄐᆞᆺ ᄉᆞ량(思量)ᄒᆞ여 이윽고 이러 부모긔 문침(問寢)ᄒᆞᆯ시...(후략).[155]

현경문은 주소저를 그리워하고 꿈에서도 주소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토로한다. 그러나 막상 주소저에 관한 꿈을 꾸고 난 후 그는 이로 인해 군자가 되지 못할까 걱정하여 갈등한다. 이러한 내면묘사를 통해 현경문의 접근-회피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경문의 내면에는 주소저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한다. 아울러 이러한 감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불면증에 걸릴 정도로 매우 깊게 나타난다. 또한 현경문은 주소저에게 전

155) 권6, 27b-29a.

에 매정했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기도 한다.

둘째, 주소저가 없는 상황에서 현경문의 내면묘사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주소저가 아버지와 함께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상황, 주소저가 납치되어 가(假) 주소저를 알아보는 상황, 주소저가 죽은 것으로 아는 상황이 그것이다. 첫 부분에서는 주소저가 보이지 않아 섭섭한 마음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주소저에게 박정했던 것을 후회하고 한스러워하는 감정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소저가 죽은 것으로 알아 몹시 비통한 감정이 서술된다.

셋째, 주소저에 대한 현경문의 감정은 서사 전개에 따라 점점 깊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깊어짐에 따라 현경문 내면에서의 접근-회피 갈등 또한 첨예해진다. 주소저가 처하는 상황이 위험할수록 현경문이 주소저를 그리워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은 더 깊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이 깊어지면 현경문이 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는 접근-회피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주소저가 부재한 경우 현경문이 주소저를 사랑하는 감정이 서술되며 이는 서사가 진행될수록 두터워진다. 그의 내면묘사를 통해 현경문은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주소저를 사랑하는 감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내적 갈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때 현경문의 내적 갈등은 작품에서 앞서 확인되는 다른 내적 갈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술된다.

이상으로 논한 바와 같이, 현경문이 처음 주소저와 함께 있는 상황과 주소저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가 겪는 내적 갈등을 접근-회피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소저가 다시 돌아왔을 때 현경문은 어떤 유형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지 살펴보자.

> 쇼졔 져의 편히 취침(就寢)ᄒᆞ믈 보고 ᄯᅩᄒᆞᆫ 금병(錦屛)을 달ᄒᆡ여 압흘 막고 ᄌᆞ긔 침즁(寢中)의 헐슉(歇宿)ᄒᆞ니 ᄉᆡᆼ이 누어 긔듯 자ᄂᆞᆫ 톄ᄒᆞ고 광슈(廣袖) ᄉᆞ이로 그 거동을 보고 심하(心下)의 ᄉᆡᆼ각ᄒᆞᄃᆡ, ‘쥬시 셩되(性度) 렬렬(烈烈) 걍걍(剛剛)ᄒᆞ니 위엄(威嚴)으로 협제(脅制)ᄒᆞ믄 군ᄌᆞ(君子)의 덕(德)이 아니오 구구이 빌믄 남ᄌᆞ의 풍치(風采) 아니라 다만 셰구년심(歲久年深)ᄒᆞ여 그 회심(回心)ᄒᆞ믈 기ᄃᆞ릴 거시로ᄃᆡ ᄂᆡ 졍심(定心)이

본ᄃᆡ ᄆᆞᆫ저 쥬시를 화락(和樂)ᄒᆞᆫ 후 졀시를 ᄃᆡ졉(待接)고져 ᄒᆞ거ᄂᆞᆯ 쟝년(壯年) 남ᄋᆡ(男兒) 어이 ᄆᆡ양 독처(獨處)ᄒᆞ여 이 풀 우ᄒᆡ 쥬졈(朱點)을 직고 더욱 어ᄃᆡ가 단니리오' ᄯᅩ 스ᄉᆞ로 우어 왈(曰), "뉵시ᄂᆞᆫ 니ᄅᆞ지 말고 규ᄂᆡ(閨內)의 냥(兩) 미슉인(美淑人)을 두고 공관(空館)의 울젹ᄒᆞᆫ 쟈(者) 나 ᄒᆞᄂᆞ ᄲᅮᆫ이라 도로혀 어린 산 ᄋᆞᄒᆡ 되리로다" ᄒᆞ더라.[156]

위 인용문은 운유자의 정체가 발견되어 현부(府)로 돌아온 후 현경문 부부가 함께 있을 때 현경문의 내면을 묘사한 대목이다. 주소저가 돌아오는 날 열린 잔치에서 현경문은 장시랑, 장시중 형제에게 앵혈을 찍힌다.

이날 밤에 현경문은 주소저에게 부드러운 태도로 전날에 박정했던 것을 사과하고 부부관계를 가지려 한다. 그런데 주소저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거절하자 현경문은 주소저의 소회를 물어본다. 주소저가 부모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뜻을 전하자 분노한 현경문은 주소저에게 독한 술을 억지로 권유한다. 결국 억지로 술을 마신 주소저는 열이 나기 시작한다. 이때 현경문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다.[157] 이후 현경문은 주소저와 다시 동침을 시도하지만 역시 거절당한다.

이때 현경문의 첩인 육취옥이 주소저를 질투하여 일을 꾸민다. 시비 능선의 조카 영월과 계략을 모의하는 것이다. 이에 한 도적이 현부(府)에 들고, 그 남자는 자신이 주소저의 간부(姦夫)라고 말한다. 현택지 등이 도적을 옥에 가두고 사실을 밝히려던 중 남자가 육취옥에게 살해당한다.

다음 날 밤에 현경문은 누구의 소행인지 고민하다가 주소저에게 직접 물어본다. 주소저의 답을 들은 현경문은 소매로 얼굴을 덮으며 침대에서 갈등한다. 이때 현경문의 내면 서술은 앞서 주소저와 헤어지기 전에 드러내는 접근-회피 갈등과 흡사하다. 현경문은 주소저를 협제하고자 하지만 군자의 도리에 부합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동시에 주소저에게 구구히 빌면 가부장의 권위를 실추할까 걱정하기도 한다. 이 역시 접근-회피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현경문이 처음 주소저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던

156) 권7, 22b-23a.

157) "ᄉᆡᆼ이 긴 오술 벗기고 친히 븟드러 보ᄆᆡ 훈열(薰熱)ᄒᆞᆫ 긔운이 ᄉᆡᆼ의게 ᄡᅩ이며 잇ᄯᅧᄂᆞᆫ 인ᄉᆞ(人事)를 모ᄅᆞᄂᆞᆫ지라 ᄌᆞ못 경겁(驚怯)ᄒᆞ여 십분 뉘웃고..."(후략)(권7, 14a).

접근-회피 갈등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현경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앞서 인용문 4에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인용문 4에서 현경문은 주소저와 운유자 사이에서 고민하며, 위 인용문에서는 철소저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갈등한다. 이때 주소저를 우위에 놓는 현경문은 먼저 주소저와 화목하게 지내고 나서 철소저와 잘 지내려고 한다. 그러나 현경문은 곧 이런 방법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다시 우울해진다.

주목할 것은 현경문이 현경문의 내면에 주소저를 협제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인용문 2와 3을 통해 살펴본, 처음 주소저와 함께 있을 때 현경문의 심리와 차이가 있다. 인용문 3에서 주소저가 비를 맞을까 걱정하지만 이는 주소저를 사랑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의 인덕(仁德)”에 어긋나지 않기 위함이다. 반면 주소저와 재회하고 나서 현경문은 주소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이를 통해 현경문의 내적 갈등은 단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경문의 내적 갈등은 현경문과 주소저 부부의 갈등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잇ᄯᅢ 쥬시 침쇼(寢所)의 도라오니 긔약지 아닌 총ᄌᆡ 샹샹(牀上)의 빗기 언와(偃臥)ᄒᆞ여 광슈(廣袖)로 면차(面遮)ᄒᆞ고 자ᄂᆞᆫ ᄃᆞᆺ시브니 심하(心下)의 괴롭고 불열(不悅)ᄒᆞ여 ᄲᅡᆼ환(雙鬟)을 슈기고 금병(錦屛)을 지혀 단좌(端坐)ᄒᆞ엿더니 ᄉᆡᆼ이 ᄌᆞ가로ᄡᅵ 비쇼(誹笑)ᄒᆞ여 금쟝 ᄉᆞ이 허물을 챵셜(彰說)ᄒᆞ믈 노(怒)ᄒᆞ여 가장 쥰칙(峻責)고져 ᄒᆞ더니 촉하(燭下)의 져의 션염미모(鮮艶美貌)와 ᄇᆡᆨᄃᆡ졀승(百態絶勝)ᄒᆞ믈 ᄃᆡ(對)ᄒᆞ고 ᄯᅩ 쳐음으로 부부ᄒᆡᆼ낙(夫婦行樂)을 ᄭᅵᄃᆞᄅᆞᄆᆡ 견전지졍(繾綣之情)이 여산하ᄒᆡ(如山河海)ᄒᆞᆫ지라 능히 칙언(責言)이 돕지 아니코 년ᄋᆡ지졍(憐愛之情)이 뉴츌(流出)ᄒᆞ니 스ᄉᆞ로 강쟉(强作)ᄒᆞ고 슈렴(收斂)ᄒᆞ여 ᄉᆡᆼ각ᄒᆞᄃᆡ, ‘내 부녀(婦女)의게 셰샹(世上) 남ᄌᆡ 너모 혹닉(惑溺)ᄒᆞᄂᆞᆫ 쟈(者)ᄅᆞᆯ 가장 불쾌(不快)히 너기더니 이제 내게 당ᄒᆞ여 과연(果然)ᄒᆞᆫ지라 진실노 ᄒᆞᆫ하며 샹ᄒᆞ미 어려오니 쥬시ᄂᆞᆫ 비록 나의 가ᄎᆞᄒᆞ믈 닙으나 남재 외입(外入)ᄒᆞᆫ 쟈(者)도 아니어니와 내 ᄯᅳᆺ이 이ᄃᆡ도록 ᄒᆞ믄 실노 ᄯᅳᆺ밧길다’.[158]

주소저는 하소저에게 현경문의 성격이 괴망하며 여자에게 인정이 없고 군자의 행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엿들은 현경문은 침소에 돌아온 주소저를 꾸짖으려 한다. 하지만 현경문은 촛불에 비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녀를 꾸짖으려는 생각이 사라진다.

현경문이 주소저를 꾸짖고자 하는 것은 주소저가 자신의 허물을 말했기 때문이다. 주소저의 이러한 행위는 가부장으로서 현경문의 체면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현경문은 주소저를 꾸짖음으로써 가부장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현경문은 주소저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소저를 꾸짖는 것을 회피하기도 한다. 요컨대 현경문은 접근-회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목할 점은 그가 자신의 내적 모순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현경문이 처음 주소저와 만났을 때 그의 내면묘사를 살핀 바 있다. 현경문은 주소저의 미색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 남자가 미색에 탐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현경문은 이제 자신이 주소저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다는 것에 놀란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면, 주소저가 돌아왔을 때 현경문의 내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현경문은 지속적으로 내적 갈등을 드러내며 이는 접근-회피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둘째, 현경문의 내적 갈등은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묘사된다. 현경문은 주소저를 제어하는 것에 대한 고민, 주소저의 미모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 등을 통해 내적 갈등을 겪으며, 스스로 내적 모순을 인식하기도 한다. 곧, 현경문의 내적 갈등은『현씨양웅쌍린기』에서 지속적이며 다양하게 서술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현경문의 내면묘사를 통해 그가 내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주소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은 유교적 가부장으로서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는 규범 때문에 발생한다. 주소저를 강압적으로 제어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은 가부장으로서 권위를 가져야

158) 권8, 55b-56b.

한다는 의식 때문에 발생한다. 후자는 작품에서 중점적으로 묘사된다. 사실 가부장이라는 지위에 이미 아내를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현경문은 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는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 가부장으로서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인용문 2에서 살펴보았듯이, 권1에서 현경문은 가부장의 권위를 내세워 주소저에게 명을 들으라고 요구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때 현경문은 "이 녀ᄌᆡ 강렬(强烈)ᄒᆞ미 용녈(庸劣)ᄒᆞᆫ 남ᄌᆞᄂᆞᆫ 졔어(制御)키 어렵도다"라고 생각했다. 이 내면묘사를 통해 현경문이 주소저를 남편에게 쉽게 순종하지 않는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아내를 충분히 지배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나중에 그는 주소저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를 놓고 반복적으로 갈등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경문이 '용렬한' 가부장이라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현경문의 '용렬한' 모습은 아내에게 성적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부부서사가 시작되는 권1부터 부부서사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권8까지, 현경문은 성적 권력을 행사하는 데 계속해서 실패한다. 전술했듯이 현경문은 결혼 직후에는 주소저를 사랑하지 않으며, 단지 부명(父命) 때문에 부부관계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소저를 사랑하게 되어 주소저와 관계를 맺으려고 여러 차례 자발적으로 시도한다. 그러나 주소저는 7년 동안이나 현경문의 요구를 거절한다.[159] 현수문과 하소저가 처음부터 금슬 좋게 지내는 것에 비해, 현경문은 아내에게 성적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면서도 그렇게 할 힘이 모자란 듯 보인다. 규범의 측면에서 보면, 가부장은 의당 아내에게 성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경문은 성적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160]

---

159) "[현경문이] 침샹의셔 닐너 왈, "부인이 ᄉᆡᆼ의 명명(明明)ᄒᆞᆫ 안ᄒᆡ오 녀ᄌᆞ의 의법(依法)ᄒᆞᆫ 쇼텬(所天)으로 피ᄎᆞ 머리털 ᄆᆡᄌᆞᆫ 지 셰ᄌᆡ 닐곱 츈취(春秋)니 그 ᄉᆞ이 두어 ᄌᆞ녀ᄂᆞ ᄉᆡᆼ산(生産)ᄒᆞ여실 것이어ᄂᆞᆯ 그ᄃᆡ 너모 고집ᄒᆞ여 지금 이셩(二姓)의 친(親)이 업ᄉᆞ니..""(후략)(권8, 47a).

160) 물론 주소저가 고향으로 떠나거나 종적을 감추는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현경문이 그녀와 부부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경문이 주소저와 함

현경문이 성적 권력을 행사하는 데 성공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무력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서사 후반부에 현경문이 주소저와 동침하게 된 계기는 '앵혈 사건'이다. 장시랑과 장시중 형제는 현경문의 팔에 앵혈을 찍는다. 그리고 현경문이 여자로 변했다고 놀리며 주소저에게 현경문을 박대하지 말라고 한다. 이에 놀란 현택지는 현경문이 용렬한 탓으로 비웃음을 받는다고 꾸짖는다.

현경문의 앵혈은 그가 가부장으로서 성적 권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 병뷔 쇼왈(笑曰), "넨들 언마ᄒᆞ여 남ᄋᆞ(男兒)를 아니 싱(生)ᄒᆞ랴마ᄂᆞᆫ 다만 져 풀을 므ᄉᆞ 일건네 동히고 잇ᄂᆞ뇨 그 일이 가쟝 슈샹ᄒᆞᄃᆞ다" 총지 웃고 ᄃᆡ왈(對曰), "젼(前)의 ᄆᆡ고 잇던 버ᄅᆞ시라 미쳐 프지 못ᄒᆞ엿ᄂᆞ이다" 병뷔 쇼왈(笑曰), "아니라 곡졀(曲折)이 잇ᄂᆞ니 네 쥬슈(嫂)를 너모 두려 지금 어린 남지 되기를 면치 못ᄒᆞ엿ᄂᆞ니 쟝뷔(丈夫) 엇지 ᄎᆞ마 녀ᄌᆞ의게 굴거(屈居)ᄒᆞ리오...(후략)"[161]

위 인용문은 현수문이 아들을 낳은 후 현경문과 현수문이 대화하는 대목의 일부이다. 현경문은 형이 아들을 낳은 것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이때 현수문은 현경문이 앵혈을 감추기 위해 팔을 동여맨 것을 알아챈다. 이에 현경문은 팔을 동여매고 다니는 것이 예전부터의 습관이라고 변명한다. 현수문은 현경문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현경문이 주소저를 너무 두려워하여 앵혈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를 고려하면 현경문 팔의 앵혈은 현경문이 주소저와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표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앵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것은 현경문이 주소저를 여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현경문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현경문은 앵혈을 없애기 위해 세 차례나 주소저와의 동침을 시도하여 마침내 성공한다. 처음에 현경

께 있는 상황에서는 단 한 번 동침에 성공할 뿐 다른 동침 시도를 모두 거절당한다.

161) 권8, 44a-44b.

문은 전에 매정하게 군 것을 부드럽게 사과하고 동침을 시도하지만 거절당한다. 주소저의 앵혈을 본 현택지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현경문에게 아내에게 속박되지 말라고 명령한다. 이에 현경문은 두 번째로 동침을 시도하지만, 또다시 주소저의 거절로 실패하고 만다. 현택지는 현경문의 앵혈을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동침하라는 명을 내린다. 세 번째에야 현경문은 주소저와 부부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현경문이 주소저와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현택지의 명령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1세대 가부장의 명령이 없었다면 현경문은 계속해서 주소저를 제압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고, 주소저와 이처럼 빨리 동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현경문은 주소저와의 부부관계에 있어 가부장이 의당 가져야 할 권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현경문의 앵혈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반응이다. 상술하였듯이 현수문은 현경문에게 주소저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부장의 권위를 가지라고 종용한다. 장시랑, 장시중 형제는 현경문이 가부장으로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거듭 조롱한다. 현택지는 주소저에게 속박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명한다. 그들은 현경문이 주소저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에 그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그를 조롱한다. 요컨대 현경문이 가부장으로서 주소저를 통제하지 못하며, 현수문, 현택지, 장시랑, 장시중 형제 등 다른 인물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현경문은 자기 힘으로 가부장의 성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력한 가부장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인물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품 속에서 현경문은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ᄯᅢ 총ᄌᆡ 몸을 ᄲᅧᆫ혀 ᄂᆞ와 보ᄆᆡ 오시 다 층층(層層)히 무혀지고 두발(頭髮)이 혀트러 거동이 ᄒᆡ연(駭然)ᄒᆞᆫ지라 스ᄉᆞ로 크게 탄왈(歎曰), “싱이 십뉵 년의 부모(父母)긔 효(孝)ᄂᆞᆫ 닐오지 못ᄒᆞ고 도로혀 ᄎᆞ약(嗟愕)ᄒᆞᆫ 욕언(辱言)이 존젼(尊前)의 미ᄎᆞ며 쟝뷔(丈夫) 되여 부인 녀ᄌᆞ의 허다(許多) 구욕(毆辱)을 듯고 ᄒᆞ면목(何面目)으로 닙어됴항(立於朝行)ᄒᆞ

며 니부텬관(吏部天官) 즁직(重職)과 홍문관(弘文館) 묽은 직임(職任)을 당ᄒᆞ리오" 인ᄒᆞ여 ᄌᆞᄎᆞ희허(咨嗟欷歔)ᄒᆞ며 ᄯᅩ 안히셔 쇼ᄉᆞ 부부의 다토는 말과 그 양ᄌᆞ(養子) 아들 되른 말을 듯고 도로혀 어히 업셔ᄒᆞ더니...(후략)[162]

위 인용문은 악모 후부인에게 모욕당한 뒤 현경문의 내면을 서술한 대목의 일부이다. 주소저는 아버지 주명기의 귀녕 청탁으로 주부로 돌아간다. 그런데 능선의 조카 영월은 후부인에게 주소저가 귀녕한 것이 아니라 출부를 당한 것이라고 이간질한다. 또한 그는 후부인에게 현경문을 집으로 청한 뒤 조상을 모욕하라고 귀띔한다. 이어 현경문이 오자 후부인은 현경문을 모욕한다. 현경문은 참지 못하여 주소저에게 빨리 죽어 속죄하라고 소리친다. 주소저가 혼절하고 후부인은 칼을 뽑아 현경문을 찌르려고 한다. 마침 이때 주명기가 들어오고 현경문은 밖으로 나가 탄식한다.

현경문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여자에게 얻어맞고 욕을 당했으니 조정의 반열에 나아가 설 낯이 없다고 한탄한다. 여기서 '여자'에는 악모 후부인뿐만 아니라, 주소저도 포함된다. 현경문은 주소저 때문에 현택지에게 여러 번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았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63] 요컨대 현경문은 자신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효와 아내에 대한 권위라는 유교적 규범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 때문에 가정 밖에서의 벼슬살이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잃게 된다.

이런 자신감의 결여는 현경문의 내면묘사에서 다시 확인된다.

---

162) 권7, 46b-47a.

163) "학ᄉᆡ 한님 다려 문왈, "현뎨(賢弟) 엇지 야〃(爺爺)긔 ᄎᆡᆨ(責)을 드ᄅᆞ뇨" 한님이 드되여 야〃(爺爺)의 말ᄉᆞᆷ을 젼(傳)ᄒᆞ고 탄왈, "ᄉᆞ군불츙(事君不忠)과 ᄉᆞ친불효(事親不孝)를 ᄎᆡᆨ(責)ᄒᆞ시믄 남ᄋᆞ(男兒)의 쾌ᄉᆡ(快事)어니와 처ᄌᆞ(妻子)로 말ᄆᆡ암아 탈관(脫冠) 하당(下堂)ᄒᆞ여 ᄎᆡᆨ(責)을 듯ᄌᆞ오니 엇지 ᄋᆡ돏지 아니리오""(권1, 10b-11a).

"ᄒᆞᆨᄉᆡ 나와 야야(爺爺) 쥬의(注意)를 니ᄅᆞ고 불통(不通)ᄒᆞ믈 ᄎᆡᆨ(責)ᄒᆞ니 ᄉᆡᆼ이 처ᄌᆞ(妻子)의 연고(緣故)로 야야(爺爺)긔 슈ᄎᆡᆨ(受責)을 ᄌᆞ로 밧ᄌᆞᆸ고 필경(畢竟) 쟝ᄎᆡᆨ(杖責)ᄒᆞ며 내치ᄂᆞᆫ 거조의 밋ᄎᆞ믈 실노ᄡᅵ 원한(怨恨)이 쥬시긔 도라가고 진졍 은ᄋᆡ(恩愛)ᄂᆞᆫ ᄌᆞ가지심(自己之心)이나 임의(任意)치 못ᄒᆞ여 슈일(數日)을 쇼졔를 례ᄒᆞ고 쥭셔당의 들고 나지 아니니..."(후략)(권2, 16b).

남휘 경아(驚訝)ᄒᆞ여 ᄂᆞ아가 븟드러 긴 오술 벗기도 구호(救護)ᄒᆞ더니 쇼졔 눈을 ᄯᅥ보고 대로(大怒)ᄒᆞ여 경경(梗梗)이 니러 안지니 별 ᄀᆞᆺ ᄐᆞᆫ 안치(眼彩)의 독긔(毒氣) 어ᄅᆡ여 ᄉᆞ벽(四壁)의 ᄡᅩ이가ᄂᆞᆯ 스ᄉᆞ로 너모 실언(失言)ᄒᆞ믈 우ᄉᆞ며 어리눅게 샤죄(謝罪) 왈, “ᄉᆡᆼ이 ᄂᆞᄌᆡ 슐을 먹고 취즁(醉中)의 실언(失言)ᄒᆞ여시니 관샤(寬赦)ᄒᆞ라 악부모(岳父母) 우러ᄋᆞᆸᄂᆞᆫ 졍(情)이 엇지 쳘샹셔(尙書) 부부(夫婦)로 비기리오마ᄂᆞᆫ 나ᄂᆞᆫ 셩품(性品)이 본ᄃᆡ 그러ᄒᆞ거ᄂᆞᆯ 부인은 아지 못ᄒᆞ니 ᄋᆡᄃᆞᆯ도다” 쇼졔 더욱 분연(憤然)ᄒᆞ여 쵸강이 닐ᄋᆞᄃᆡ, “ᄌᆞ긔(自己) 부모(父母)ᄅᆞᆯ 공경(恭敬)ᄒᆞᄂᆞᆫ 이ᄂᆞᆫ 남의 친(親)을 례(禮)로 ᄃᆡ졉(待接)ᄒᆞᄂᆞ니 ᄌᆞᆸ말ᄒᆞ여 무엇ᄒᆞ리 잇고” 남휘 놀나 ᄉᆡᆼ각ᄒᆞᄃᆡ, ‘이 녀ᄌᆞᄅᆞᆯ 너모 가ᄎᆞᆫ 타ᄉᆞ로 금일(今日) 말이 이리 방ᄌᆞ(放恣)ᄒᆞ니 던득이 휘오지 못ᄒᆞ리라’[164]

위 인용문은 현경문과 주소저 부부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의 일부이다. 이 대목은 현경문 부부의 마지막 갈등을 서술하고 있다. 현경문이 운남에서 반역을 평정한 후 집에 도착하고, 정답게 주소저의 손을 잡은 채 전에 주소저가 자신을 구해 준 것을 감사한다. 그러나 주소저는 현경문이 악부모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서글픔을 느낀다. 주소저가 냉담해 보이자 현경문은 그 까닭을 묻는다. 이유를 안 현경문은 주소저를 빈정댄다. 이때 주소저는 슬프고 분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갑자기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 이에 놀란 현경문은 주소저를 구호하고 깨어난 주소저에게 사죄한다.

현경문이 주소저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사뭇 흥미롭다. 상술하였듯이 그는 계속 주소저에게 구구히 빌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현경문은 그렇게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의 체면이나 권위를 무시하고 주소저에게 용서를 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저는 현경문을 용서하지 않고 자신의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놀란 현경문은 주소저가 방자하니 자기가 도저히 그녀를 제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현경문이 가부장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열등감이 드러난다. 또 앞서 인용문 ②에 나온, “이 녀ᄌᆡ 강렬(强烈)ᄒᆞ미 용녈(庸劣)ᄒᆞᆫ 남ᄌᆞᄂᆞᆫ 졔

164) 권9, 48a-48b.

어(制御)키 어렵도다"라는 내적독백을 고려했을 때, 현경문은 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소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경문 부부에 대한 서사에서는 현경문의 내면이 주로 묘사된다. 현경문의 내면묘사는 부부 갈등을 예시하고, 부부 갈등에 대한 서사를 전개하고 지속시킨다. 현경문은 처음에 주소저와 함께 있을 때는 그녀를 강압적으로 제어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한다. 주소저와 헤어져 있을 때는 그녀를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한다. 마지막으로 주소저가 돌아왔을 때는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제어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번민을 겪는다. 이런 내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도, 그 구체적 양상은 서사의 전개에 따라 다양해진다. 그중에서도 주소저를 압제할지에 대한 고민이 중점적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심리는 현경문이 가부장으로서 주소저를 통제할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Ⅳ. 내면의 의미

제Ⅲ장에서는『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가부장의 내면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이 작품에 나타난 2세대 가부장의 내면이 지니는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다른 한글장편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작품 속 가부장의 내면이 갖는 특징을 알아보고, 당대 향유층의 측면에서 이 작품 속 가부장의 내면이 갖는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또한 당대 이념과 현실 간의 격차에 주목하여 2세대 가부장의 내면이 이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된 이유를 밝히고, 나아가 중국의 고전소설 및 한국의 현대소설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부장의 내면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실감의 부각을 통한 향유층의 확대

선행연구에서는 일찍이 한글장편소설 속 인물의 내면묘사를 섬세하다고 평가해왔다.[165]『소현성록』,『유씨삼대록』,『완월회맹연』 등의 작품은 이에 해당하는 소설들이다. 특히『소현성록』,『쌍천기봉』,『조씨삼대록』 등의 작품은 부부서사에서 가부장의 내면을 그려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따라서『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가부장의 내면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현씨양웅쌍린기』를 위 작품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소현성록』에 나타나는 가부장들의 내면을 살펴보자.『소현성록』 본전(本傳)에서 핵심 인물로 부각되는 가부장은 소현성이다. 소현성 부

165)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정병설,『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김동욱,「임화정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최어진,「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전기화, 앞의 논문, 2022; 정혜경,「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현씨양웅쌍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부에 관한 서사에서는 유교 윤리에 충실한 부인들에 대한 소현성의 감동과 사랑, 병든 부인에 대한 걱정 등의 내면이 주로 묘사되어 있다. 별전(別傳)에서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가부장은 소운성이다. 소운성 부부에 관한 서사에서는 부인 형씨에게 말실수한 것에 대한 소운성의 후회, 소영과 친압하면 형씨의 마음이 불편할 것에 대한 걱정, 형씨와 헤어진 후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 아픈 형씨에 대한 걱정, 병든 명현공주의 입장에서 그녀를 이해하는 마음, 명현공주의 죽음에 대한 슬픔 등이 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부부가 불화하는 상황에서 소운성의 내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장면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 싱이 부인의 ᄋᆡ원(哀怨)ᄒᆞᆫ 말숨과 상활(爽豁)ᄒᆞᆫ 옥음(玉音)을 드ᄅᆞ매 심하의 깃거ᄒᆞᄃᆡ, '내 비록 것디ᄅᆞ고져 ᄒᆞ여 득쳐 뉵칠 삭이나 뎨 일호도 녹〃ᄒᆞᆫ ᄐᆡ되 업서 쳐신ᄒᆞ미 단엄(端嚴)ᄒᆞ니 내 ᄯᅩᄒᆞᆫ 품으미 가티 아니코 ᄒᆞᆯ며 쳔신만고(千辛萬苦)ᄒᆞ야 계유 부뷔 모드매 져근 일노 불합ᄒᆞ미 가티 아니타' ᄒᆞ여 노긔ᄅᆞᆯ 플고...(후략)[166]

위 인용문은 형씨가 여러 부인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소운성의 내면을 묘사한 대목이다. 형씨의 형수인 위씨가 형씨에게 소운성의 매몰참을 한탄했느냐고 묻자 형씨는 이를 부정한다. 소운성은 이를 듣고 마음속으로 형씨의 기세를 억압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함께 지내는 육칠 개월 동안 아내의 단정한 행실을 보고 자기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또한 천신만고 끝에 부부가 함께하게 되었는데 작은 일로 못마땅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현씨양웅쌍린기』에서 현경문이 주소저를 강압적으로 제어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것과 달리, 소운성은 아내에 대한 불만을 스스로 가라앉히며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쌍천기봉』 속 이몽창의 부부 갈등 서사에서는 가부장인 이몽창의 내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몽창은 첫째 부인이 죽은 후 소월혜에

166) 조혜란·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권9, 54면(조혜란·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1, 소명출판, 2010).

게 반해 상사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른다. 나중에 그녀와 결혼하지만, 친합한 시녀 옥난의 계교로 소월혜의 정절을 의심해 분노한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들이 그의 의심을 믿지 않자, 이몽창은 억울해한다. 소월혜의 종적이 묘연해지자 이몽창은 조제염과 결혼하지만, 혼인날에 조제염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후 조제염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이몽창은 소월혜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고,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조제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요컨대 이몽창이 소월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조씨삼대록』은 여성인물보다 가부장 인물의 내면묘사가 더 두드러지는 작품이다.[167] 이 작품에서는 가부장인 소경수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아내의 현숙한 모습에 감동하고 그녀를 동정하는 소경수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다.[168]

> 샹셰 부인의 현슉(賢淑)ᄒᆞᆫ 말ᄉᆞᆷ과 황홀ᄒᆞᆫ 용화(容華)ᄅᆞᆯ 대ᄒᆞ니 마ᄋᆞᆷ이 녹고 ᄲᅧ 져리ᄂᆞᆫ지라 그 젼듀만ᄉᆞ(前頭萬事)ᄅᆞᆯ 능히 지긔(知機)ᄒᆞ고 화복길흉(禍福吉兇)과 젼졍만리(前程萬里)ᄅᆞᆯ 예탁ᄒᆞᄂᆞᆫ 즁 총명여신(聰明如神)을 탄복ᄒᆞᄆᆡ 여산(如山)ᄒᆞᆫ 은졍(恩情)과 약히(若海)ᄒᆞᆫ ᄯᅳᆺ이 여텬디무궁(如天地無窮)이라 쳔금옥질이 옥즁간초와 의식의 괴로오미 사ᄅᆞᆷ의 ᄎᆞᆷ아 견대지 못ᄒᆞᆯ 경계ᄅᆞᆯ 아오라 쳔역(賤役)의 다ᄉᆞᄒᆞ오미 일시여력이 업ᄉᆞ니 셕목(石木)이라도 견대기 어려오믈 헤아리니 몸이 알프고 마ᄋᆞᆷ이 찬지라 구외(口外)의 내여 원망코져 ᄒᆞᆫ 즉 인ᄌᆞ(人子)의 도리 아니오 몸의 죄과(罪過)ᄅᆞᆯ 더ᄒᆞᆯ ᄲᅮᆫ이라 묵묵ᄒᆞ여 벙어리 ᄀᆞᆺ고 한ᄀᆞᆺ 마ᄋᆞᆷ이 챵연ᄒᆞ여 오직 봉안(鳳眼)의 가ᄃᆞᆨᄒᆞᆫ 눈물이 삼삼ᄒᆞ여 옥면(玉面)의 이음ᄎᆞ믈 ᄭᅵᄃᆞᆺ지 못ᄒᆞ여 부인의 셤슈(纖手)ᄅᆞᆯ 굿지 잡고 어린 ᄃᆞ시 움ᄌᆞᆨ이지 못ᄒᆞ고 믹믹히 슬허ᄒᆞᆯ ᄲᅮᆫ이라[169]

위 인용문은 소경수의 내면을 묘사한 대목의 일부이다. 소경수의 부인 조자염은 다른 부인과 시누이들의 모함으로 시어머니의 처벌을 받는다.

---

167) 허순우, 앞의 논문.
168) 위의 논문, 131-134면.
169) 『조씨삼대록』, 권27, 105-107면(전진아 역주, 『조씨삼대록』 4, 소명출판, 2010).

하지만 조자염은 유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겪은 고난이 자신의 운명의 탓이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소경수는 부인의 총명함에 감탄하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또한 그는 아내가 겪은 고난에 대해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다. 하지만 소경수는 효라는 유교적 윤리 때문에 아내의 괴로움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 이어 소경수는 마음이 더욱 괴로워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우 슬퍼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소현성록』, 『쌍천기봉』, 『조씨삼대록』은 모두 부부관계에서 가부장의 아내에 대한 사랑, 걱정, 배려 등 다양한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즉 이 작품들은 아내에 대한 가부장의 애정을 바탕으로 그들의 내면을 그려낸다고 할 수 있다. 아내를 사랑하는 가부장의 마음은 『현씨양웅쌍린기』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작품 속 2세대 가부장인 현수문과 현경문의 내면은 위의 가부장들의 내면과 차이가 있다. 윤소저에게 속은 것에 대한 현수문의 분노와 불안이나, 주소저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에 대한 현경문의 고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다른 작품에 비해 『현씨양웅쌍린기』에서는 아내를 제압해야 한다는 의식과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분노와 고민이 부각되어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와 같이 가부장의 내면을 자세하게 그려냈을까?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남녀가 중매를 통해 부부가 되고, 그때부터 사랑을 싹틔우면서 부부생활을 하기 시작된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갈등도 하기 마련이다. 『소현성록』, 『쌍천기봉』 등에 그려져 있는, 아내에 대한 가부장의 배려와 애정은 유교적 가부장에게 요구되는 '경(敬)'과 '애(愛)'라는 윤리규범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내면은 가부장을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로 형상화하는 데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 속의 부부 갈등에서 가부장은 아내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더 복잡하고 다변하는 심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현씨양웅쌍린기』는 이런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참된 개성을 지닌 진실된 인물을 설정하는 것은 작가에게 매우 중요하다.[170] 개성적 면모를 지닌 인물에 비해 이념적인 성격만 지닌 인

물은 현실과 거리가 멀기 쉽고, 독자는 이런 상투적 인물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171]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구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등장인물의 면면을 설명하는 '말하기(telling)', 둘째는 등장인물에 대한 논평 없이 그의 말이나 행동을 보여주는 '보여주기(showing)', 셋째는 등장인물의 의식 밑바닥을 들춰 보이는 '내적독백'이다. 그중에서도 내적독백은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깊은 내면을 직접 들여다보게 한다.[172] 『현씨양웅쌍린기』에서는 현경문의 내적독백이 내면묘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아내를 제압하려는 가부장의 심리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다양한 내적 반응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내면묘사는 가부장 인물에게 현실감을 부여하고, 그로써 다양한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작가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당대 부부관계에서 가부장은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 존재했다. 그럼에도 선행연구에서는 작품에 드러난 여성 중심인물에만 초점을 맞추며 부부관계 내 2세대 가부장의 의미를 간과해온 경향이 있다. 이 작품을 향유했던 독자층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173] 따라서 본고에서는 2세대 가부장을 중심으로 그들의 내면이 여성 독자뿐 아니라 남성 독자들에게도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조명해보고자 한다.

우선, 2세대 가부장의 내면은 당대의 여성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제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가부장은 한편으로 아내 또는 자식을 통솔하는 권력을 가지면서도 제가(齊家)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동시에 유교적 윤리와 규범에 충실해야 한다. 가부장이 이런 요건에 부

---

170)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157-158면.

171) 홍희복(洪羲福)은 『제일기언』의 서문에서 과거에 창작된 소설의 상투성을 비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9세기 초중엽의 소설 애독자들이 소설에서 새로움을 찾지 못했고 '대동소이'한 유형성에 실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유형화된 내용은 독자에게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30-131면 참조).

172) 이상 인물의 성격에 관한 내용은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142-152면 참조.

173) 이다원, 앞의 논문, 91-95면; 김서윤,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신분 위상과 부부 갈등」, 『한국학』 3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200면.

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아내는 가부장을 무시하게 되고, 이는 부부간 불화로 이어지기 쉽다. 이덕무가 쓴 『사소절』「부의(婦儀)」에서 이러한 양상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 세상에 못난 남자 중에는 사나운 부인에게 제압되어 꼼짝 못하는 자가 왕왕 있는데, 이것은 인륜의 큰 변고로 용서하지 못할 바이니, 능멸하고 구타하고 꾸짖는 등 못할 짓이 없기 때문이다. 대개 사나운 부인은 으레 재주가 많아서 가정 경영을 잘하므로, 남편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활하게 된다. 그 때문에 부인은 남편을 제압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꼼짝 못하게 되니, 어찌 가련하지 않은가.[174]

위 인용문에서 이덕무는 무능한 가부장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그 출현 원인을 논하고 있다. 유교 규범에 의하면 가부장은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아내가 재주가 많은 반면 가부장은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 가부장은 아내에게 의지하여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남편은 가부장의 권위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아내들은 무능한 가부장들을 능멸하고, 구타하거나 꾸짖는다. 이런 아내의 행동은 가부장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가부장이 유교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면 여성들의 경시(輕視)로 인해 부부 갈등이 유발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사회에는 이념적으로 부부유별과 내외법이 강조되어 있었기에, 부부간의 육체적, 감정적 교감을 쉽게 할 수 없었다.[175] 더불어 유교적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부장이 자신의 내면을 쉽게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부인은 가부장과 함께 있어도 그 내면을 알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부부싸움에서 가부장에게 불만을 가진 여성은 가부장이 보인 행동 속에 숨겨진 진실한 감정, 심리 등을 쉽게 이해하지 못

174) “世之孱男子, 挾制於悍婦人, 不能措手足者, 往往有之. 此人倫之大變, 王法之所不容. 以凌侮歐罵, 無所不至也. 盖悍婦類多才氣, 能營生理, 其夫藉此而活. 故婦爲之鉗制, 夫爲之讋服, 可不哀哉.”(이덕무, 「사소절」,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30).

175) 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9면.

했을 것이다. 『현씨양웅쌍린기』는 부부 갈등을 겪는 2세대 가부장의 내면 상태와 그 변화 과정을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여성 독자들은 2세대 가부장의 내면을 통해 그의 진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현실 속의 가부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현실에서 가부장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여성 독자들은 2세대 가부장들이 가부장적 권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불안감, 고민, 그리고 위축된 자신감을 읽어냄으로써 위안과 쾌감을 얻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2세대 가부장의 내면은 당대의 남성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자. 남성 독자들은 역시 2세대 가부장의 내면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현씨양웅쌍린기』는 아내를 통제하려 하는 가부장의 내면을 바탕으로 2세대 가부장의 내면을 묘사하는 작품이다. 가부장제의 위계성[176]이 강화된 조선후기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남성 독자들은 이러한 가부장 인물의 내면에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아내의 반항과 불순종에 2세대 가부장들이 드러낸 불안, 고민과 결여된 자신감은 남성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앞서 인용한 『사소절』의 한 대목은 당시 사회에 권위를 상실한 가부장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덕무는 아내에게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가부장들에 대해 "어찌 가련하지 않은가"라고 말한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이덕무는 이들에게 동정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정 불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문인도 있었다. 이황(李滉)은 아내와 불화를 겪고 있던 이함형(李咸亨)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다.[177] 그 편지에서 이황은 자신의 부부 갈등 경험과 이를 해소한 방법

176) 조선사회의 가부장제는 중국 종법제도(宗法制度)를 이념형으로 하고 그 이념적 성격이 위계성(位階性), 집합성, 영속성으로 구분된다. 위계성은 여성이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물처럼 지위가 낮아 이들에게 종속되는 것이고, 집합성은 자손 세대가 동거하고 모든 아들이 가산을 균분하는 것이며, 영속성은 효의 윤리를 기반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62-63면 참고).

177) 이황, 「與李平叔」, 『퇴계집(退溪集)』 권37. "듣자니 아마 공은 금슬이 좋지 못하여 탄식하고 있는 뜻하오. 무슨 연유에서 이러한 불행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소. 그러나 내가 세상사를 보니 이러한 근심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소. 부인 중에서 성품이 악하여 교화하기 어려운 이도 있고, 못나든 예쁘든 지혜롭지 못한 이도 있소. 그 남편 중에도 제멋대로라 행실이 옳지 않은 이도 있고, 나쁜 것을 좋아

을 이야기한다. 이익(李瀷, 1681～1763)은 이 편지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이황의 사연을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 아내의 성품이 불미스러운 점이 많다 하더라도 남편이 너그럽게 용납하여 남의 이목에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진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그 잘못한 거리는 한 치도 되지 못한다. 퇴계 선생이 이함형에게 보낸 글에, "내가 일찍이 재취를 하였는데 심히 불행한 일이었다. 그 사이에 마음이 산란하여 답답함을 견딜 수 없는 때가 있었다" 하였는데, 내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의심이 없지 않았다.
>
> 근자에 이함형 공 형제의 외손에게서 퇴계 선생의 친서(親書)를 구해 보았는데 그 겉봉에, "길에서 비밀히 떼어 보라[道次密啓看]"는 다섯 자가 적혀 있었다. 『퇴계집』에는 어찌 이 글만 누락되었는지 알 수 없다. 아마 이 공이 도산(陶山)에서 물러나올 때 자리가 번거로워 자세히 말

하고 상도를 거스르는 이도 있소. 그 변고의 이유가 여러 가지라서 이루 다 들 수가 없소. 그러나 대의(大義)로서 말하자면, 이러하오. 그 가운데 성품이 악하여 교화하기 어려운 부인이 실로 스스로 소박을 당하게 된 죄를 제외한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남편에게 책임이 달려 있다고 하겠소. 스스로 반성하여 두터운 마음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여 부부의 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큰 인륜이 무너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요, 그 자신도 박절한 처지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오....(중략)...이러한 일은 나 이황이 일찍이 겪어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오. 나는 재취를 하였는데 늘 심히 불행한 일을 당하였소.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마음으로 감히 스스로 박대하려 하지 않았으며 좋은 쪽으로 힘써 노력한 것이 거의 수십 년이 되었소. 그 사이 극도로 마음이 뒤숭숭하고 어지러워 그 고민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적도 있었소. 그렇지만 감정대로 처신하여 큰 인륜을 무시하여 홀어머니에게 근심을 끼치는 짓을 차마 할 수 없었소. 질운(郅惲)이 "부부관계는 아비도 아들에게 어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말로 도를 어지럽히고 사악함에 빠지게 하는 말이라오. 이 말을 핑계 삼아 공에게 충고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보오. 공은 마땅히 반복하여 심사숙고하고, 고쳐나갈 바가 있으면 고쳐나가시오. 끝내 고쳐나갈 수 없다면 어찌 학문을 할 수 있겠소? 어찌 실천을 할 수 있겠소"(似聞公有琴瑟不調之歎, 不知因何而有此不幸. 竊觀世上有此患者不少, 有其婦性惡難化者, 有嫫醜不慧者, 有其夫狂縱無行者, 有好惡乖常者, 其變多端, 不可勝擧. 然以大義言之, 其中除性惡難化者, 實自取見疎之罪外, 其餘皆在夫. 反躬自厚, 黽勉善處, 以不失夫婦之道, 則大倫不至於斁毁, 而身不陷於無所不薄之地....(中略)...此事請以滉所嘗經者告之. 滉曾再娶, 而一値不幸之甚, 然而於此處, 心不敢自薄, 黽勉善處者殆數十年. 其間極有心煩慮亂, 不堪撓憫者, 然豈可循情而慢大倫, 以貽偏親之憂乎. 郅惲所謂父不能得之於子者, 眞是亂道邪諂之言, 不可諉此而不忠告於公, 公宜反覆深思, 而有所懲改焉, 於此終無改圖, 何以爲學問, 何可爲踐履耶.) 번역은 이종묵, 『부부』, 문학동네, 2011, 231-233면에서 인용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글로 적어 비밀스럽게 부탁하여 혼자만 보고 누설하지 말라고 한 것 같다. 제자가 스승 섬기기를 부모와 같이 하니 스승도 또한 제자를 아들과 같이 여기는 것이므로, 이 공이 인륜의 변고를 당한 것을 보고 마침내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공이 죽은 뒤에 그의 부친 참판 이식(李栻)이 퇴계 선생의 서찰을 일일이 수습하여 도산으로 보내 발간하여 후세에 전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이 공의 뜻은 아닐 것이다. 지금 퇴계 선생의 『어록(語錄)』 가운데 한 구절에는, "이 공의 부인이 선생의 부음을 듣고 3년 동안 상중에 고기반찬을 먹지 않는 소식을 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이 공이 선생의 그 비밀 서찰을 보고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 그 부인에게 간절하게 일을 잘 처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선생이 한 번 말하고 침묵한 것이 이처럼 사람의 윤리에 큰 관계가 되었던 것이다.

또 『어록』에 선생이 큰아들 준(寯)에게 보낸 서신 몇 통을 실었다. 그 가운데 "너에게는 이미 권속이 많고 또 머지않아 아내를 맞아야 할 아들 몽(蒙)이 있다. 나는 성품이 번잡함을 싫어하고 조용함을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부자손(父子孫) 가운데 형편에 따라서 분가를 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였다. 또 어떤 서신에는, "부자간에 살림을 각기 차리는 것은 원래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너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혼인하게 되었는데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분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옛날에 동궁(東宮)과 서궁(西宮), 남궁(南宮), 북궁(北宮)의 제도가 있었으니 한 담장 안에서 함께 거처하면서도 살림은 각기 차렸다고 한다. 그러나 차라리 거처는 달리하더라도 살림을 함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또 다른 서신에는, "네가 의지할 곳이 없이 남의 곁방에 들어 군색함이 이를 데 없다고 하니, 너의 서신을 볼 때마다 여러 날 동안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였다.

앞뒤 글을 참조해보면, "마음이 산란하다"는 말은 그만한 곡절이 있어 나온 것이리라. 아들 준은 바로 전부인의 소생이다. 아무리 번잡함을 싫어하고 조용함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하지만 어찌 그만한 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남의 곁방에 들어가 군색함을 겪게 하였겠는가? 다만 선생의 높은 덕행으로도 마침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니, 차라리 재산을 나누어 가정을 안정시키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선생이 어찌 잘못 생각하여 어긋난 처리를 하려 하였겠는가? 사람의 가정에는 변고가 적

지 않아, 더러는 갑자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소상히 기록해두는 바이다.[178]

이익은 비록 아내가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더라도, 가부장이 아내의 이런 점들을 용납하여 이를 남에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황은 재취한 뒤에 불화를 겪으며 마음이 산란하고 고민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적이 있다고 토로한다. 이익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한다. 이익은 이황의 편지를 한두 번 읽은 것이 아닐 만큼 이황의 고민에 궁금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익은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한다.[179] 이황은 원래 비밀스럽게 이함형에게 자신의 부부 갈등 경험과 이를 해소한 방법을 이야기했다. 그의 가르침으로 이함형 부부는 다시 화목해졌고, 이함형의 아내는 이황이 별세했을 때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여겨 3년 동안 고기반찬을 먹지 않았다. 이함형의 후손들은 이런 뜻을 기려 이 편지를 대대로 물려주었다. 그 덕분에 나중에 이황의 문집을 보완하면서 이 편지를 다시 실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황은 세상을 떠난 전실(前室) 소생 큰아들의 분가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다. 그는 큰아들의 분가를 허락하면 예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배다른 자식이 같은 집에서 살면 불편한 것을

178) 이익, 「퇴계의 재취(退溪再娶)」, 『성호사설』 권14. “婦人之性或多不賢, 丈夫宜寬以容之, 不使宣暴於耳目. 不然其賢不肖之相去不能以寸矣. 退溪先生與李平叔書云, 某曾再娶, 一値不幸之甚. 其間頗有心煩慮亂, 不堪撓悶處. 每讀至此, 不能無疑也. 今於李公兄弟之外孫許得先生手筆, 其封皮有道次密啓看五字. 不知本集何獨漏此不錄. 盖李公自陶山辭歸, 有煩不可盡言者, 故以書密囑, 令獨見而無泄焉. 弟子之於師事之如父, 則師亦宜視之如子, 而人倫處變之際, 恐不可終嘿也. 李公旣沒, 其父叅判栻一一收拾, 送之陶山, 以至刊傳後世, 則又非李公之志也. 今語錄中載一條云, 李公之夫人聞先生喪, 食素三年, 然則李公必因此感悟, 有委曲善處者矣. 先生語嘿有關於倫常如此. 語錄又載先生與長子寯書數條. 一云, 汝旣多眷屬, 蒙兒不久當娶, 吾性厭煩喜靜, 不得已父子孫中觀勢分住. 一云, 父子異爨本非美事, 但汝兒輩長成婚嫁, 無容身處, 勢不得不至於此. 古有東宮西宮南宮北宮之制, 與其同處而異財, 孰與別處而猶不失同財之意乎. 一云, 汝無所歸, 贅寓艱窘, 每見汝書, 輒數日不樂. 上下叅商, 所謂心煩慮亂, 有爲而發也. 寯卽前夫人出, 雖謂厭煩喜靜, 豈無可以處此者, 而至於贅寓艱窘耶, 以先生德義終有沒奈何處, 則反不若析産鎭安之爲愈. 先生豈錯筭而謬處者哉. 人家變事不少, 或至激成乖亂, 故詳著之.” 번역은 위의 책, 235-238면에서 인용하였다.

179) 이하 이익의 추측에 관한 정리는 위의 책, 238-239면 참조.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부득이 큰아들의 분가를 허락했다.

위와 같은 추측을 통해 이익은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불화를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이황의 답답한 마음이 연유가 있으며 그의 처리 방법을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익의 기록을 통해 당시 문인이, 가정불화에 직면한 가부장이 해야 할 일과 그의 고뇌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덕무와 이익처럼 당대 남성 독자들은 2세대 가부장의 고민, 불안, 결여된 자신감을 통해 현실 속 부인과의 불화를 연상하면서 공감하고 몰입했을 것이다.

요컨대 '애정'을 바탕으로 가부장의 내면을 그려내는 다른 한글장편소설에 비하여, 『현씨양웅쌍린기』는 가부장의 권위가 흔들리는 상황을 설정하고, 아내를 강압적으로 제어하려는 심리 및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내면과 그 변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면은 현실 속의 부부 불화에서 가부장이 경험할 만한, 복잡하고 다변하는 심리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내면묘사를 통해 여성 독자들은 현실 속의 가부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위안과 쾌감을 얻었을 것이다. 남성 독자들은 현실 속 부인과의 불화를 연상하면서 2세대 가부장에게 공감하고 소설에 몰입했을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현씨양웅쌍린기』에서 2세대 가부장의 내면을 자세하게 그려낸 것은 현실감을 부각하고, 여성 독자층뿐 아니라 남성 독자층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서

제Ⅲ장에서 확인하였듯이, 작품의 부부서사에서 2세대 가부장들은 그들의 권위가 위협받을 때 분노, 불안, 고민, 자신감의 결여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내면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유교 윤리에 입각한 조선시대의 부부관계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유별을 지킨다. 또

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이 강조되지만, 아내의 순종은 남편의 정도(正道)에 합하는 선도(先導)를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윤리는 일종의 쌍방성을 지닌다.[180] 이것이 이념·윤리에 충실한 이상적 형태이다. 조선사회는 이러한 이상적 부부관계를 추구했지만, 윤소저, 주소저와 같은 주체성이 강한 여성들의 도전으로 인해,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사회였을 것이다.[181] 17세기 중반부터 가부장제는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였다.[182] 이러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부부관계에서는 가부장의 위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그런데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이 지은 『역천집(櫟泉集)』에 수록된 「규감서(閨鑑序)」는 가부장들이 여성을 통솔하지 못한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근세의 부녀들은 교육이 전혀 없어 혹 어린아이 적에는 아첨을 떨고 간교하게 구는 것을 익히고, 비단옷을 입고 금옥으로 치장하여 남의 집 연회에 드나들며 성예(聲譽)를 노린다. 아들이 있는 집에서 보내는 매파가 끊이질 않아 오로지 며느리로 얻기를 바라고, 며느리로 얻고 나면 며느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애지중지하여 이르지 못할 데가 없다. 그리하여 교만하고 나태한 버릇을 길러 그 남편에게 오만하게 굴고, 시부모를 업신여겨 부도(婦道)를 손상시킨다. 혹은 몸단장을 전혀 하지 않고 조심하는 마음 없이 제멋대로 굴어 예법을 무시하는가 하면, 혹은 음란하고 사납고 질투심이 많아 그 남편을 선하지 않은 데로 이끈다. 그 자질이 높고 기상이 빼어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날려 바깥일에 간섭하여 새벽에 우는 암탉이 되기도 한다.[183]

---

180) 이상 부부관계의 윤리에 관한 정리는 김기현, 「유가의 윤리구조분석: 소학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19, 고려대학교 문족문화연구소, 1986, 165-170면 참조.

181) 정병설, 「조선시대의 부부싸움과 부부의 역학: 『옥원재합기연』」, 『문헌과 해석』, 문헌과 해석사, 1998, 132-133면 참조.

182) 강명관, 『열녀의 탄생-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 돌베개, 2009, 547면.

183) 宋明欽, 「閨鑑序」, 『櫟泉集』 권13. “近世婦女, 專無敎誨, 或爲兒便習妖媚巧黠, 錦繡金珠, 出入人家讌會, 以賭聲譽, 有子者媒妁相望, 唯患不得, 旣得之, 唯患傷其志, 凡親愛寶重, 無所不至, 遂養成驕惰之習, 傲其夫, 慢其舅姑, 以傷婦道, 或廢妝壞容, 放蕩不謹, 汙衊禮法, 或淫虐妒狠, 習不善以導夫, 其資高氣邁者, 便揚能使智, 干涉外事, 爲牝雞之晨.” 번역은 강명관, 위의 책, 394면에서 인용하였다.

위 인용문을 보면 여성이 가부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가부장을 대신하여 자식의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가부장에게 오만하게 행동하며, 자기 능력으로 바깥일에 간섭하는 점에서 확인된다. 한편 가부장의 권위가 도전받을 것에 대해 우려한 문인도 있다.

> 요즘 세상 부인 중에 재주 있는 자가 혹 붕당(朋黨)의 당파에 대한 이야기와 어느 집안 문벌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와 옛날 벼슬아치들의 승진되고 좌천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가친척의 남녀들은 시끄럽게 그의 재능을 칭찬하게 되니, 아! 이것은 참으로 집안을 어지럽히는 근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바깥일에 참견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184]

위 인용문은 이덕무가 쓴 『사소절』「부의(婦儀)」의 일부이다. 윗글을 통해 당시 조선사회에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재주 있는 여성들이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내외법과 부부유별을 중시하는 가부장제 이념 아래에서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치와 관련된 일은 남성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덕무는 이를 막지 않으면 여자들이 바깥일에 참견하여 가문을 어지럽힐까 봐 걱정했다. 여성은 남편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바깥일에 개입하면 가부장의 지배적 지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조선 문인 홍한주(洪翰周, 1798~1868)의 필기(筆記) 『지수염필(智水拈筆)』에 보이는, 부부가 호론과 낙론으로 갈라져 싸운 사례 또한 이러한 시대 상황을 보여준다. 부부가 논쟁을 벌인 결과 남편보다 학문이 더 높은 부인이 우위를 차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185] 이 사례는 정치나 학문에 관심을

---

184) “近世婦人有才氣者, 或談及偏黨色目家閥高下科宦陞黜之事, 則姻族男女, 嘖嘖稱其能也, 嗚呼, 此誠亂家之本也, 推此以往, 參與外事, 無所不至.”(이덕무, 「사소절」,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30).

185) 이경구, 『조선, 철학의 왕국: 호락논쟁(湖洛論爭) 이야기』, 푸른 역사, 2018, 336-339면.

두는, 재주 있는 여성이 가부장의 우위를 어느 정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요컨대 당시 가부장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가부장의 권위가 도전받은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부장의 권위가 불순종하는 여성에게 도전받았을 때, 가부장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줌으로써 아내의 순종을 얻어내야 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제Ⅱ장 제1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유교적 가부장은 윤리와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아내의 언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유교적 이념·윤리에 충실한 쌍방적인 부부관계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그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가부장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책임의 편중은 가부장제의 위계성과 관련이 있다. 이 점은 이덕무가 『사소절』에서 한, "아내가 교만 방자해지게 되는 것은 모두 장부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갖지 하는 데서 연유한다"[186]라는 말에서 잘 확인된다.[187]

이렇듯 가부장에게 요구되는 일방적인 권력과 책임은 2세대 가부장이 불안해하거나, 자신감을 결여하는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2세대 가부장들은 부부 갈등 속에서 가부장적 권위를 보여줌으로써 부인을 압제하려 하지만, 각각 부인에게 여러 번 속거나 거절당한다. 이렇게 유교적 가부장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가부장의 권위가 무너지게 된다. 그럼에도 '규범적 가부장상(家父長像)'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 불안, 갈등, 자신감 결여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만약 그들의 부부관계가 서로 협력하는 쌍방적인 관계였거나, 2세대 가부장이 규범적 가부장상에 부합하기를 포기했다면 그들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이념적으로 이상적인 가부장의 모습과 실제 가부장의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2세대 가부장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발휘해야 할 통제력에 집착하고, 가부장에게

186) "使妻驕恣, 皆由於丈夫之不能先正其身"(이덕무, 「사소절」,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30).

187) 퇴계 이황은 "그중에 성질이 나빠 교화하기 어려운 자가 실로 소박 당할 죄를 자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로 보아, 아내의 부도덕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관념은 조선후기뿐 아니라 조선중기에도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其中除性惡難化者, 實自取見疎之罪外, 其餘皆在夫.)(이황, 「與李平叔」, 『퇴계집』 권37.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하였다).

요구되는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2세대 가부장들은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자신감이 부족해진다. 2세대 가부장들이 이러한 집착을 보이는 것은 그들 주변 인물과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댱시즁이 춤지 못ᄒᆞ여 총지ᄃᆞ려 왈, “의외예 십오뉵 청츈(靑春)의 관쟉(官爵)이 고대(高大)ᄒᆞ거ᄂᆞᆯ ᄯᅩ 부인의 덕(德)의 이십ᄉᆞ 읍(邑) 부요지디(富饒之地)ᄅᆞᆯ 더으니 영광이 측냥(測量) 업거니와 쥬슈(嫂)의 ᄯᅳᆺ이 심샹(尋常)치 아닌가 시브니 근쳐의ᄂᆞᆫ 븟치지 아니ᄒᆞ고 죠ᄎᆞ 내치면 어이ᄒᆞᆯ고 미리 근심졋도라” 싱이 미쇼 왈, “남지 츙효ᄅᆞᆯ 일흘가 근심ᄒᆞᆯ지언졍 처지(妻子) 업술가 렴녀(念慮)ᄒᆞ리잇고 쥬시 젼일(前日) 죠강(糟糠)의 졍즁(鄭重)ᄒᆞ다가 이제 샹봉(相逢)ᄒᆞ미 깃브다도 ᄒᆞ려니와 제 부도(婦道)ᄅᆞᆯ 폐ᄒᆞᆫ즉 나도 례(禮)로 ᄃᆡ졉지 아닐지라 형은 영슈(令嫂)의게 무셔워 ᄯᅥ는 사ᄅᆞᆷ이라 져허ᄒᆞ거니와 쇼뎨(小弟)ᄂᆞᆫ 그 처엿 일은 ᄭᅮᆷ쇽 ᄀᆞᆺ도쇼이다” 시즁이 쇼왈, “헛쟝 ᄡᅳ지 마라 네 젼의 쥬슈(嫂)의 셩복(成服)날 우러 두 눈이 퉁방울ᄀᆞᆺ치 븟고 거번(去番) 산쇼의 가 뉘 길가 숑쟝을 븟들고 엉엉 쳐 울고 오더라 ᄒᆞ니 그ᄂᆞᆫ 뉘 신체(身體)라 ᄒᆞ고 븟들고 운다” 인ᄒᆞ여 빅단(百端) 쥬츌(做出)ᄒᆞ여 싱의 거동을 옴기니 죄위(左右) 개쇼(皆笑)ᄒᆞ고 총지 함쇼묵연(含笑默然)ᄒᆞ여 댱싱 등의 어ᄌᆞ러이 구ᄂᆞᆫ 거동을 실쇼(失笑)ᄒᆞ여...(후략)[188]

위 인용문은 장시중 형제가 주소저의 공으로 관직과 땅을 얻은 현경문을 놀리는 대목이다. 남장한 주소저는 현경문 형제를 도와 반란을 평정한다. 이에 천자는 그녀를 여총재에 제수하고, 현경문을 서평백에 제수하고, 그에게 파촉의 24개 고을을 준다. 이때 장시중 형제는 현경문이 주소저의 공으로 관직과 땅을 얻었다고 놀린다. 또한 주소저가 주체성이 강하니 그녀에게 버림받을 것을 미리 걱정하라고 현경문을 조롱한다. 이를 들은 현경문은 아내가 ‘부도(婦道)’를 따르지 않으면 자신도 ‘예’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아내를 두려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장시중 형제가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한다. 이러한 반론을 통해 현경문이 가부장으

188) 권6, 48a-48b.

로서의 자존심이 강하고 규범적 가부장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2세대 가부장인 현수문도 마찬가지이다. 윤소저의 이모부인 박자사는 현수문에게 조정에서 권위가 있는데 어떻게 질녀에게 세 번이나 속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현수문은 윤소저를 잡으면 제가(齊家)의 "위풍"[189]을 보여주겠다고 대답한다. 이를 통해 현수문 역시 가부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가부장이라는 위치에 수반되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에서 현경문과 현수문은 주변 남성 인물에게 조롱받을 때마다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요컨대 2세대 가부장들은 규범적 가부장상에 대한 집착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일종의 쌍방성을 지닌 이상적 부부관계를 추구했지만, 현실에서는 주체성이 강한 여성의 도전으로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조선후기에는 남편과 아내의 위계가 강조되었으며, 남편의 권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가부장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가부장에게 있었다. 이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2세대 가부장들은 유교적 윤리와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가부장상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가부장상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좌절할 때 이들은 분노, 불안, 갈등, 자신감 결여 등의 감정을 표출한다.

이 같은, 규범적 가부장상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을 중국 고전소설과 한국 현대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홍루몽』을 제외한 중국 고전소설은 한글장편소설 등 다른 소설에 비해 인물의 내면묘사가 상대적으로 적다.[190]『홍루몽』에서 내면묘사의 비중이 가장 큰 인물은 가보옥이다. 이 작품은 가보옥이 결혼하기 전에 임대옥과 사랑을 나누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이들의 희로애락, 그리고 서로의 진심을 알 수 없기에

189) 권9, 19a-20a.

190) 정병설, 앞의 책, 1998, 227-228면; 周子燕,「《紅樓夢》對中國古典小說敘事方式的創拓及其意義」,『紅樓夢學刊』, 1992, 101-105면.

발생하는 괴로움과 고뇌를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191] 즉 『홍루몽』은 사랑의 감정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현씨양웅쌍린기』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가부장이 아닌 미혼 남성 인물의 심리를 부각한다는 점은 『현씨양웅쌍린기』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금병매』는 『홍루몽』 다음으로 인물들의 내면묘사가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여겨진다.[192] 특히 『금병매』에서 서문경이 가부장의 불안감을 표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93] 서문경은 처첩에게 가부장의 성적 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배욕을 생리적·심리적으로 충족시키려 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성적 학대와 강력한 성적 능력으로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 그런데 동시에 서문경은 이런 통제력을 잃을까 걱정하여 춘약을 계속해서 복용한다. 춘약을 먹은 후 그는 자신의 절륜한 정력에 대한 여성의 칭찬을 매우 즐긴다. 요컨대 서문경은 겉으로 처첩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가부장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느끼는 고민과 불안을 섬세하게 그린 한국 현대소설도 발견된다. 조선작(趙善作, 1940～)의 「고압선(高壓線)」(1974)과 호영송(扈英頌, 1942～)의 「흐름 속의 집」(1980)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가부장 인물은 자기 집을 마련하기를 절실히 바란다. 그러나 거액의 집값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무력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고민한다. 이동하(李東河, 1942～)의 「홍소(哄笑)」(1977)와 최인호(崔仁浩, 1945～)의 「타인의 방」(1971)은 가부장의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불안, 두려움, 분노, 고독감 등을 느끼는 가부장의 심리를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들에서, 가부장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이들이 이상적 가부장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데 있다.[194]

---

191) 張蕾, 「明淸古典小說心理描寫藝術初探－－以《金瓶梅》、《紅樓夢》爲例」, 『社會科學家』, 復旦大學中國古代文學硏究中心, 2007, 2면.

192) 裏正, 「論中西方小說心理描寫之差異－－兼談《金瓶梅》心態描寫」, 『社會科學輯刊』, 遼寧《綜合治理大觀》編輯部, 1995; 張蕾, 위의 논문; 賈舒穎, 「《金瓶梅》與《源氏物語》人物形象比較硏究」, 復旦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高飛燕, 「《金瓶梅》人物心理描寫硏究」,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4; 黃廷富, 「論《金瓶梅》中西門慶形象的心理描寫」,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193) 이하 서문경의 내면에 대한 논의는 黃廷富, 위의 논문, 15-20면 참고.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조선시대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과 책선(責善)에 입각한 부부간의 일종의 쌍방성이 이상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체성이 강한 여성의 도전으로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조선후기에는 남편과 아내의 위계가 강조되었으며, 남편에 권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가부장의 권위가 도전받았을 때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가부장에게 있었다. 이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2세대 가부장들은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규범적인 가부장상에 집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가부장상에 부합하지 못할 때 분노, 불안, 고민, 또는 자신감 결여를 경험하게 된다. 중국 고전소설은 물론, 한국의 현대소설에서도 이러한 심리가 확인된다. 결국 규범적 가부장상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은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의 보편적 심리라고도 할 수 있다.

194) 이상 현대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의 내면에 대한 정리는 장소진, 앞의 논문, 404-415면을 참고하였다.

Ⅴ. 결론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현씨양웅쌍린기』는 현수문과 현경문이라는 가부장의 내면이 전면에 부각된 독특한 작품이다. 작품 속 가부장의 내면은 부부서사 전반에 걸쳐 생생하게 그려진다. 이러한 내면묘사는 가부장의 권위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보여준다. 본고는『현씨양웅쌍린기』속 가부장의 내면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나타나는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기존에 선본으로 간주된 이본을 새로 발견된 이본과 비교하여 연구 대상 자료를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완질본은 선본으로 여겨진 낙선재본을 비롯하여 9종이 있었는데 국도본B와 성대본이 새로 확인되었다. 세 이본 중에서 낙선재본이 다른 이본들에 비해 작품의 내용이 온전하고 오자(誤字)가 적으므로 여전히 선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낙선재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이본을 참고하였다.

제Ⅱ장에서는 가부장의 개념을 정의하고『현씨양웅쌍린기』속 가부장 인물의 등장 양상을 분석하였다. 가부장을 조선시대 유교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개념을 '가족 안에서 아내 또는 자식을 통솔하며, 유교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권력과 책임을 갖는 남성'으로 규정하였다.『현씨양웅쌍린기』에서 이 규정에 부합하는 인물은 모두 네 명으로, 이들을 1세대 가부장인 현택지·주명기와 2세대 가부장인 현수문·현경문으로 분류하였다. 1세대 가부장의 서사는 주로 2세대 가부장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권(父權)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1세대 가부장의 말과 행동 등 외면적 묘사를 통해 전개된다. 2세대 가부장의 서사는 2세대 가부장들과 각각의 부인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세대 가부장의 경우, 부권(夫權)을 행사하는 과정에 관한 서술에서 가부장의 내면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Ⅱ장의 분석을 토대로 삼아, 제Ⅲ장에서는 현수문과 현경문을 대상으로 그들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제1절에서는 현수문의 내면을 고찰

하였다. 현수문이 윤소저에게 복수하는 과정에 관한 서술에서는 현수문의 분노가 중점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 분노는 주로 폭력적 행동으로 표현된다. 지배욕과 나르시시즘이 강한 현수문은 가부장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윤소저에게 속아 자신감과 자존심을 위협받게 되고, 그 결과 심한 분노를 느낀다. 윤소저에 대한 복수심에서 기인한 폭력적 행위는 가부장으로서 아내를 통제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2절에서는 현경문의 내면을 분석하였다. 현경문은 처음에 주소저와 함께 있을 때 그녀를 강압적으로 제어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한다. 또 주소저와 떨어져 있을 때는 그녀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한다. 마지막으로 주소저가 돌아왔을 때는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제어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번민을 겪는다. 현경문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주소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어할지 고민한다. 이는 현경문이 가부장으로서 주소저를 통제할 자신감이 없음을 보여준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 속 가부장의 내면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제1절에서는『현씨양웅쌍린기』에서 가부장의 내면을 이처럼 자세히 묘사한 것의 의미를 당대 향유층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애정'을 바탕으로 가부장의 내면을 그려내는 다른 한글장편소설에 비하여, 이 소설에서는 아내를 강압적으로 제어하려는 심리 및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내면과 그 변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내면묘사는 현실 속의 부부 불화에서 가부장이 경험할 만한, 복잡하고 다변하는 심리를 잘 반영한다. 작가가 이러한 내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현실감을 부각하고, 여성 독자뿐 아니라 남성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제2절에서는 가부장의 내면이 갖는 의미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선후기에는 가부장의 권위가 도전받았을 때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가부장에게 있다고 간주했다. 2세대 가부장들은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규범적인 가부장상(家父長像)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자신이 그러한 가부장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면 분노, 불안, 고민, 또는 자신감 결여를 경험하기 쉬웠다. 이러한 심리는 중국

의 고전소설은 물론 한국의 현대소설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규범적 가부장상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은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의 보편적 심리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현씨양웅쌍린기』에 등장하는 가부장에게 주목하여 그 내면을 분석하고 그러한 내면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현씨양웅쌍린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동시에 고전소설 속 가부장 인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다만 이 작품과 연작 관계에 있는 『명주기봉』 등을 함께 검토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가부장의 내면을 『현씨양웅쌍린기』와 같은 방식으로 묘사한 작품이 출현할 수 있었던 당대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玄氏兩熊雙麟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玄氏兩熊雙麟記』(고려대 도서관본).
『玄氏兩雄雙麟記』(서울대 규장각본).
『현시냔웅쌍님긔』(국립중앙도서관본 국도본A).
『玄氏兩雄相蓮幾年』(국립중앙도서관본 국도본B).
『玄氏兩雄雙麟記』(성균관대학교 존경각본).
『玄氏兩雄記』(김광순 소장본).
『현씨양웅쌍인긔』(조동일 소장본).
『현씨쌍린괴』(김동욱 소장본).
『玄氏兩雄雙麟記』(연세대 도서관본, 이윤석, 이다원 교주,『현씨양웅쌍린기』, 경인문화사, 2006).
『玄氏兩雄雙麟記』(덕흥서림 간행본).
『소현성록』(조혜란·정선희 역주,『소현성록』1, 소명출판, 2010).
『조씨삼대록』, 서강대 도서관 소장본 (전진아 역주,『조씨삼대록』4, 소명출판, 2010).

『演慶堂漢文目錄 附諺文目錄』(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墨子』
『星湖僿說』
『櫟泉集』
『禮記』
『退溪集』
『女四書諺解』

『士小節』(이동희 편역,『사소절(士小節): 선비 집안의 작은 예절』, 傳統文化硏究會, 2013).
『士儀』(한국고전의례연구회 역주,『(국역)사의』, 보고사, 2006).

『조선총독부 관보』 제0010호(1912년 8월 10일)(https://db.history.go.kr).

표준국어대사전(www.korean.go.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漢典(https://www.zdic.net).

2. 단행본

강명관,『열녀의 탄생-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 돌베개, 2009.
권보드래,『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12.
김두헌,『韓國家族制度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김일렬,『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박미해,『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아카넷, 2010.
박병호,『韓國의 傳統社會와 法』,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박희병,『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신희천; 조성준 편저,『문학용어사전』, 청어, 2001.
오탁번·이남호,『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이경구,『조선, 철학의 왕국: 호락논쟁(湖洛論爭) 이야기』, 푸른 역사, 2018.
이광규,『韓國家族의 構造分析』, 一志社, 1975.
이성권,『한국 가정소설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이원수,『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이윤석; 大谷森繁; 정명기,『貫冊 古小說 硏究』, 혜안, 2003.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이종묵, 『부부』, 문학동네, 2011.
이지하, 『가족 서사의 욕망과 상상력: 여성 주체적 시각으로 읽는 고전 장편소설』, 소명출판, 2023.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_____,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조미숙, 『현대소설의 인물묘사방법론』, 한국학술정보, 2007.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64,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현룡순, 『소설창작론』, 한국학술정보, 2006.

거다 러너 지음, 강세영 옮김,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마사 너스바움 지음,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모리스 꾸랑, 『한국서지』, 이희재 역, 일조각, 1994.
미국정신분석학회 편; 이재훈 외 옮김, 『정신분석 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실비아 월비 지음; 유희정 옮김, 『가부장제 이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에리히 프롬 저, 김석희 옮김, 『자유로부터의 도피』, 휴머니스트, 2020.
테오도르 몸젠 지음; 김남우, 김동훈, 성중모 옮김, 『몸젠의 로마사』, 푸른 역사, 2013.

Bernstein, W. M, *A Basic Theory of Neuropsychoanalysis*, London: Karnac, 2011.
DeWall, C. N., Anderson, C. A., & Bushman, B. J., Aggression. Chapter in I. Weiner (Ed.), *Handbook of Psychology*, 2nd Edition, Volume 5, H. Tennen & J.Suls (Ed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ew York: Wiley, 2012.
Hamilton, Henry R, *The Classic Greek Dictionary: English-Greek;*

Containing All the Words in General Use with Their Various Significations Classified, New York (State): A. Hinds, [189-?], 1880.

Lewin, Kurt,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McGraw-Hill, 1935.

Rosemarie, Tong; Botts, Tina Fernandes,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 (Fifth ed.),* New York, 2017.

Shelton, Jo-Ann, *As the Romans Did: A Sourcebook in Roman Social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Yenna Wu, *THE CHINESE VIRAGO: A Literature Them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5.

3. 논문

강보승, 「경(敬)과 유교의례(儒敎儀禮)로 본 효(孝) 실천과 유교적 영생의 길」, 『유교사상문화연구』 84, 한국유교학회, 2021.

강우규, 「등문고를 울린 어리석은 여성들-<임씨삼대록>의 목지란과 <현씨양웅쌍린기>의 육취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강전섭, 「언문칙목녹(諺文冊目錄) 小考」,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5, 중앙문화사, 1995.

강희경, 「Shakespeare 로만스 극의 정치성」,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_____, 「가부장 신화의 관점에서 본 『심벨린』」, 『셰익스피어 비평』 38, 한국 셰익스피어학회, 2002.

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공혜란, 「<현씨양웅쌍린기(玄氏兩雄雙麟記)>에 나타난 상층 여성 겁탈과 대응 문제」,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_____, 「가문소설의 여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 한국외국어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삼대록계 소설에 나타난 남성 인물의 의처증 연구-<소현성록(蘇賢聖錄)> 연작의 '소운명'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3,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곽성민, 「<현씨양웅쌍린기>의 갈래복합 구조와 소설사적 의의」, 『동남어문논집』 47, 동남어문학회, 2019.
구선정, 「가부장제하 남성의 죄벌(罪罰)과 고통의 이면-<쌍천기봉>의 "이몽창"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김기현, 「유가의 윤리구조분석: 소학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19, 고려대학교 문족문화연구소, 1986.
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묘사담론 연구」, 『서강인문논총』 2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김서윤,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신분 위상과 부부 갈등」, 『한국학』 3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김수연, 「18세기 고소설의 속물형 아버지와 효 윤리의 재설계－<완월회맹연>의 장헌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김은일,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김지연, 「『현씨양웅쌍린기』의 단일 갈등 구조와 인물 형상의 관계」,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학회, 2005.
김진세, 「玄氏兩熊雙麟記 硏究」, 『논문집』 4,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972.
_____, 「玄氏兩熊雙麟記의 書誌的 硏究-樂善齋本과 德興書林本의 경우」, 『관악어문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1.
도민재, 「晦齋 李彦迪의 예학사상 연구」, 『東洋哲學硏究』 35, 동양철학연구회, 2003.

도해자, 「셰익스피어 극의 가족 서사 재구성: 안젤라 카터의 『현명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비평』 55, 한국 셰익스피어학회, 2019.
민찬, 「玄氏兩熊雙麟記」, 김진세 저,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박명희, 「고소설의 女性中心的 視角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박병호, 「韓國의 傳統家族과 家長權」, 『韓國學報』, 일지사, 1976.
박영희, 「<楊豊傳>에 나타난 父子對立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_____, 「<蘇賢聖錄> 連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박용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의 불안」, 『대한불안의학회지』 1, 대한불안의학회, 2005.
박은정, 「<송부인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위상과 가족의 재구성」,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_____, 「<현씨양웅쌍린기> 연작의 '육취옥' 연구」, 『고전문학연구』 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송성욱, 「婚事障碍型 大河小說의 叙事文法 硏究: 單位談의 展開樣相과 結合方式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_____, 「家門意識을 통해 본 한국고전소설의 구조와 창작의식: 「家門小說」과 「軍談小說」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_____, 「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의 양상과 그 세계관: <뉴효공 선행록> <뉴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유권종, 「유교의 상례와 죽음의 의미」, 『철학탐구』 16,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2004.
신동흔, 「玄氏兩熊雙麟記에 그려진 귀족사회의 실상」,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양민정, 「<蘇賢聖錄>에 나타난 女家長의 역할과 社會的 意味」, 『외국문

학연구』1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2.
엄태웅, 「<방한림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연구』39, 우리어문학회, 2011.
유인선,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개성적인 여인상: 주소저의 인물분석을 바탕으로」, 『관악어문연구』3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8.
유춘동, 「<책열명록>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35, 태학사, 2006.
_____, 「자료: 한일병합(韓日倂合) 즈음에 유통되었던 고소설의 목록」, 『연민학지』15, 연민학회, 2011.
이다원, 「『현씨양웅쌍린기』 연구-연대본 『玄氏兩雄雙麟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미영, 「『자에는 자로』: 권위를 문제 삼은 '문제극'」, 『셰익스피어 비평』40, 한국 셰익스피어학회, 2004.
이영택, 「<玄氏兩雄雙麟記> 連作 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원수, 「<창선감의록>, 장자상속제와 사대부가의 고민」, 『어문학』100, 한국어문학회, 2008.
이정효, 「『大畜觀書目』과 『承華樓書目』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73, 한국서지학회, 2018.
이주영, 「늑혼을 둘러싼 사회 관계망과 전언 분석-<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성현공숙렬기>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32, 국문학회, 2015.
이지하, 「현씨양웅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희원, 「셰익스피어의 『페리클리즈』에 나타난 부녀 관계」, 『영미문학페미니즘』8,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1.
_____, 「"역풍을 넘어 포옹하는 격이었지요": 『겨울이야기』에 나타난 남녀의 분열과 화해 The Male/Female Dichotonry and Mutual Accommodation in The Winter's Tale 1」, 『영미문학페미니즘』6, 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1998.

장경남, 「<문성기> 연구」, 『고소설 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_____, 「朝鮮後期 小說을 통해 본 父權의 形象-「어룡전」, 「양풍운전」을 中心으로-」, 『어문연구』, 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장소진, 「현대소설에 나타난 '집'의 의미와 가부장의 위상」, 『우리말 글』 39, 우리말글학회, 2007.
전기화,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_____, 「한국고전소설 형식의 몇 가지 문제-서술자의 권위와 인물의 내면 서술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5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3.
정긍식, 「조선전기 朱子家禮의 수용과 祭祀承繼 관념」, 『역사민속학』 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정병설, 「조선시대의 부부싸움과 부부의 역학: 『옥원재합기연』」, 『문헌과 해석』, 문헌과 해석사, 1998.
정병욱, 「樂善齋文庫 目錄 및 解題」, 『국어국문학』 44-45, 국어국문학회, 1969.
정선희, 「특집: 고전소설의 주인공;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始原)-<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정영신, 「문화: 여성(女性) 가장(家長)의 역할(役割)과 기능(機能) -<윤하정삼문취록(尹河鄭三門聚錄)>을 중심으로-」, 『東方學』 1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정혜경,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현씨양웅쌍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조광국, 「<창선감의록>의 적장자 콤플렉스」,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구, 청관고전문학회), 2018.
조창규, 「儒家 冠禮의 文化解釋」, 『大東漢文學』 27, 대동한문학회, 2007.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長權) 행사의 문제」, 『한국

고전여성문학연구』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_____, 「<소현성록> 연작 기획특집 2: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_____, 「가문과 개인 사이-<임씨삼대록>의 임관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_____,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주형예, 「19세기 한글통속소설의 서사문법과 독서경험-여성이야기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최기복, 「유교 상예의 근본 의의와 현대적 쇄신」, 『유교사상문화연구』15, 한국유교학회, 2001.
최기숙,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부부관계'와 '결혼 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 '현경문-주소저' 부부 관련 서사분석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최길용, 「連作型 古小說 硏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최지우, 「<현씨양웅쌍린기>와 <하진양문록>의 비교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_____, 「<완월회맹연>의 폭력적 가부장에 대한 비판적 시선의 형상화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1.
_____, 「大河小說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웅쌍린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황미숙, 「고소설에 등장하는 媤父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황병홍, 「<南征記>의 構造와 意味-유연수의 성격분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고대학』30,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황지현, 「자기 파괴성을 통해 본 국문장편소설의 세계관」,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周子燕, 「《紅樓夢》對中國古典小說敘事方式的創拓及其意義」, 『紅樓夢學刊』, 1992.
裏正, 「論中西方小說心理描寫之差異－－兼談《金瓶梅》心態描寫」, 『社會科學輯刊』, 遼寧《綜合治理大觀》編輯部, 1995.
張蕾, 「明淸古典小說心理描寫藝術初探－－以《金瓶梅》、《紅樓夢》爲例」, 『社會科學家』, 復旦大學中國古代文學硏究中心, 2007.
賈舒穎, 「《金瓶梅》與《源氏物語》人物形象比較硏究」, 復旦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高飛燕, 「《金瓶梅》人物心理描寫硏究」,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4.
黃廷富, 「論《金瓶梅》中西門慶形象的心理描寫」,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Leonard Berkowitz,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9.
Hartmann, Heidi,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Capital and Class*, 1979.
Robin L. Aupperle; Andrew J. Melrose; Alex Francisco,; Martin P. Paulus; Murray B. Stein, “Neural substrates of approach-avoidance conflict decision-making”, *Human Brain Mapping* Volume 36, John Wiley & Sons, Ltd, 2015.

中文摘要

《玄氏两熊双麟记》中家父长的内心研究

刘珂
首尔大学 研究生院
国语国文系 国文学专业

本文旨在通过分析朝鲜后期韩文长篇小说《玄氏两熊双麟记》中出现的家父长内心情况，以此阐明作品所具有的意义。《玄氏两熊双麟记》是一部描写家父长玄寿文和玄景文夫妻矛盾的小说，其独特之处在于，以细腻的笔触描绘了家父长‘压制’妻子的相关心理活动。这不仅影响夫妻叙事的展开，还对主题的塑造起着重要作用。因此，关注家父长内心，分析《玄氏两熊双麟记》，有助于探究作品的真相，而且对于加深理解韩文长篇小说中家父长人物性格也有重要意义。

正文第二章对家父长概念进行了界定，并分析了《玄氏两熊双麟记》中的家父长情况。本文把家父长放在朝鲜时代儒家意识形态脉络中理解，将其概念定义为‘在家庭中统率妻子或子女，具有儒教规范所规定的权利和责任的男性’。《玄氏两熊双麟记》中符合这一规定的家父长共有四名，分别是第一代家父长玄泽之和朱命基，第二代家父长玄寿文和玄景文。第一代家父长的叙事主要围绕通过行使父权化解第二代家父长夫妻矛盾，以第一代家父长的语言和行动等外在描写展开。第二代家父长的叙事主要由第二代家父长与各自夫人间的矛盾为中心构成。此时，第二代家父长在行使夫权的过程中，其内心描写非常突出。

第三章根据第二章的分析结果，分别以玄寿文和玄景文家父长为对象，具体探讨了其内心情况。首先考察了玄寿文的内心情况。在关于玄寿文报复

尹小姐过程的叙述中，重点描绘了玄寿文的愤怒，这种愤怒主要表现为暴力行为。支配欲强和自恋的玄寿文想行使家父长权利，但因被尹小姐欺骗，自信心和自尊心受挫，非常愤怒。因想报复尹小姐而表现出的暴力行为，根源在于他作为家父长无法压制妻子的不安。接着分析了玄景文的内心情况。玄景文开始与朱小姐在一起时，纠结是否要强硬压制她。与朱小姐分开时，苦恼是否流露出对朱小姐的爱慕之情。最后，朱小姐回来后，玄景文流露出既喜爱朱小姐又想要压制她的双重矛盾。玄景文内心持续经历这种苦恼，考虑具体应该怎么压制朱小姐，这表明玄景文作为家父长对于压制朱小姐并没有信心。

第四章以第三章的分析结果为基础，考察了作品中出现的家父长内心的意义。首先从当时读者群的角度，考察了作品中家父长内心的意义。与其它以“爱慕”为基础刻画家父长内心的韩文长篇小说相比，该小说重点描绘了家父长想要压制妻子，以及未能做到这一点的心理及其变化过程。这很好地反映了当时夫妻不和关系中家父长可能会经历的复杂多变的心理。作者之所以如此详细地描写这样的心理，是为了彰显真实感，以此来吸引女性读者群和男性读者群的关注。其次，从社会文化层面探究了家父长内心的意义。第二代家父长因为社会压迫而执着于规范的家父长形象，认为自己不符合这种形象时，产生了愤怒、不安、苦恼和缺乏自信的心理。中国古典小说和韩国现代小说中也发现了这种心理。可以说，执着于规范家父长形象而产生的情绪不稳定是家父长制度社会下男性的普遍心理。

关键词：《玄氏两熊双麟记》，韩文长篇小说，家父长，内心，不安，内心矛盾，缺乏自信，真实感，读者群，社会压迫

学　号：2020-26674